



12

주체98(2009)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8(2009)년 제12호

(루계 제 746 호)

차 례

전투에서 전투에로 이어온 기세드높이 문학작품창작에서 계속양양을 일으키자.....	4
총과 유산.....	5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6
노래가사들에 비낀 위인의 겸손성.....	6
주체문학의 대강.....	8
전선길에 펼쳐진 사랑의 화폭영생의 모습.....	8
심장깊이 새겨주신 고귀한 진리.....	9
병사의 축복속에 아름다운 고향아.....	9
올려가라 행복의 노래여.....	10
총번호-1857.....	13
봄향기.....	14

경구, 격언	25
회령의 아들 외 1 편	26
끝나지 않는 이야기	27
선군과 평화	27
시인의 남다른 얼굴이 엿보이는 독특한 시형상	28
조선속담	30
집에 대한 생각 외 1 편	31
내앞에 너인들이 간다	32
병사의 어머니	33
해병과 바다	34
내고향은 아름답다	35
세계유모아	45
철옹령의 검은소나무	46
우리의 본때가 여기에 있다.....	56
고향이 어딘가 외 2 편	57
시대의 요구를 민감하게 반영하자.....	58
아들과 나눈 마음속 대화.....	61
밝은 앞날의 모습	62
이 가을날에	72
할아버지 심은 나무 어디 있나요.....	73

상식.....	73
영각소리	74
상식.....	74
《소경과 앓은뱅이의 문답》	75
박지원의 《열하일기》에서 수필형식의 리용	76
저고리	77
주체 98(2009)년의 《조선문학》-한해의 마감장을 덮으며.....	78
《종이와 펜을 달라!》	80

전투에서 전투으로 이어온 기세드높이 문학작품창작에서 계속양양을 일으키자

강성대국건설에서 위대한 전환의 해, 변이 나는 올해에 우리 문학은 시대정신이 세차게 굽이치는 혁명적인 작품으로 한해를 빛나게 장식하였다.

우리 작가들은 올해에 격동하는 시대와 뜨겁게 호흡하면서 150일전투를 힘있게 벌리고 100일전투에서도 우리 당이 의도하고 바라는 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며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발양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는 언제나 당이 의도하고 바라는 절박한 문제를 종자로 잡아쥐고 창작사업을 벌려나감으로써 당의 충실한 방조자, 믿음직한 협력군으로서의 영예와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주체101(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기어이 열어제길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지니시고 여기에서 올해전투가 그 돌파구를 여는 결정적전환의 디딤돌로 된다는것을 헤아리시고 우리 군대와 인민을 총결사전에로 부르시였다.

언제나 당의 요구에 투철하였으며 창작으로 우리 당의 선군정치에 적극 이바지하여온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를 창작실천에 적극 구현하여 훌륭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올해 문학작품창작에서는 문제성이 전례없이 강화되었으며 주체의 인간학의 본색이 더욱 뚜렷해졌다.

백두산3대장군의 위인적품모를 형상한 작품들이 우리 문학의 주류를 이루고 총서형식의 장편소설과 위인칭송의 송가작품들이 적극 창작되어 우리 군대와 인민을 수령결사옹위의 정신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해인 변이 나는 올해에 우리 작가들은 현실주체의 장편소설창작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켰다. 우리 작가들은 강성대국건설에서 우리 당이 중시하고있는 인민경제의 주요부문의 생활을 반영한 적극적인 주제에 선차적인 창작적관심을 돌렸다.

장편소설들인 《행복의 기초》, 《불타는 러명》을 비롯하여 《내 고향의 봄》, 《바다사나이》, 《년륜》과 《북두칠성》 등이 창작되어 독자들을 기쁘게 하였다.

시대를 선도하는 투쟁의 기치로 세차게 펴럭이

는 시가문학이 진격의 나팔수, 투쟁의 기수가 되어 격동적인 목소리로 시대를 선도하였다. 여기에서 시조 《희천의 메아리》, 《희령의 불타는 아침》 등은 서정의 격동성과 쇄소리나는 호소성으로 하여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며 천만군민을 투쟁과 위훈으로 힘있게 고무하였다.

올해 우리 아동문학은 선군시대 어린이들의 심리정서를 형상하려는 아동문학작가들의 피타는 노력과 탐구에 의하여 아동문학의 모든 형태에 걸쳐 특색있는 작품들을 많이 내놓았다.

문학창작의 새로운 형상분야를 탐색하며 문학운동을 적극 벌리는데서 평론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문학형상문제를 놓고 전례없는 논쟁이 활발하게 벌어졌다.

우리 작가들은 작가이기 전에 혁명가라는 높은 정치적자각을 간직하고 변이 나는 올해에 시대와 혼연일체가 되어 창작활동을 힘있게 벌렸다. 작가들은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가 타오른 강선을 비롯하여 세상을 놀래우는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타오르는 경제강국건설의 주요전선들에 달려나가 전투적인 화선식경제선동과 창작활동을 더욱 활기있게 벌렸다. 《조선문학》잡지를 비롯하여 많은 신문, 출판물들에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지펴올린 강선과 우리 시대의 또하나의 큰 자랑인 원산청년발전소, 놀라운 《희천속도》를 창조하고있는 희천발전소 특집들이 편집되어 시대의 숨결과 량만이 차넘치게 한것은 올해에 특기할 만 한 자랑이다.

우리 작가들은 특히 150일전투의 격동적인 하루하루를 보람찬 창작전투로 수놓으며 결전으로 부르는 작품들을 빛나게 창작하였으며 지금 벌리고있는 100일전투의 총결사전을 탐구와 사색, 열정의 창작전투로 되게 하고있다.

오늘 우리 작가들에게는 위대한 장군님의 부름 따라 보람찬 창작성파로 올해를 빛내인 그 기세, 그 기백으로 다음해의 창작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야 할 전투적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작가라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세상을 놀래우는 시대의 명작을 창작하여야 한다.

모든 창작을 새 세기의 혁신적인 안목과 70년대의 창조기풍, 창작투쟁방식으로 해나감으로써 우리 문학의 형상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새 세기의 영화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총과 유산

전 승 일

회령사적관 한자루 권총앞에
우리 장군님
숨엄히 서계시다

어쩌면 지금도
어머님의 온기로 더웁고
어머님의 체취로 달아있을것만 같은
아, 한자루 이 권총!

흥기하와 대사하 황거우...
생각만 해도 가슴 서늘해지는
사선의 순간순간들마다에서
어김없이 무서운 벼락을 터친
어머님의 이 권총

눈덮인 백두밀영에서
어리신 아드님에게
어머님은 부디 불을 뿜는 총을
첫 놀이감으로 안겨주시었던가

망양나루 비에 젖은 두만강을 건너지고
부모형제 이국의 산야에 다 묻으시고
어머님 불러불러 피타게 찾으신것은
총, 날강도의 정수리에 벼락을 터칠 총이었다
총은 어머님의 운명이었다

아 수령님 떠나 살수 없는
이 나라 겨레였기에
총은 수령님의 친위전사
어머님의 뉘이였다
결사옹위정신으로 만장약된
총은 어머님 한생의 전부였다

너무도 짧으신 생을 사신 어머님
짧았어도 심장속에 함께 계시는 어머님
조국을 지키라고
조국을 떨치라고
이 한자루 총을 유산으로 남기신 김정숙어머님

장군님가슴속에선 활화산이 끓고계신다
이 총을 안고 나의 조국은 백승을 떨치고
이 총을 물려받은 나의 조국은
세계앞에 영원한
백두산강국으로 빛날것이다

아, 어머님 한생을 바쳐
남기신 이 한자루 권총앞에서
장군님은 총대의 역사를 추억하신다
우리 조국이 목숨처럼 넘겨받은
어머님 남기신 유산은
백전백승의 선군이였다!

음악예술과 연극예술에서 시대의 미감과 정서적요구에 맞게 내용과 형식, 형상수법을 새롭게 하여 명작들을 창조하고있는것처럼 문학작품창작에서도 전면적인 혁신을 하여야 한다. 소설, 시, 아동문학 등 모든 부문들에서 새 세기의 미학정서적요구에 맞게 형상수법을 대담하게 혁신하여 주체문학의 면모를 참신하고 생동하며 새맛이 나게 일신하여야 한다.

우리 문학의 새로운 혁신을 위하여 절박하게 나서는 문제는 작가들의 창작실무적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이다. 재능은 작가의 생명이며 작품은 사색과 열정의 산물이다. 작가들은 창작적재능을련마하여야 하며 끊임없이 사색하고 탐구하며 열정을 기울여 창작하여야 한다.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시대적요구에 맞게 문학작품창작에서 혁신하려면 문학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문학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선군문학을 건설하는데서 매우 중요하다.

문학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문학창작사업을 끊임없이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따라세울수 있으며

창작에서 양양을 일으킬수 있다. 문학사업이야말로 매일같이 변모되는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시대적요구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 요구를 기동성있게 관철하기 위한 창작전투의 연속으로 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문학운동을 힘있게 벌려 광범한 대중이 문학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전체 작가집단이 한결같이 떨쳐나서고 광범한 군중이 적극 참가하면 문학창작사업에서 점령못할 요새가 있을수 없다.

우리앞에는 강성대국건설의 총결사전의 요구에 맞게 문학작품창작사업에서 끊임없이 혁신을 일으켜나가야 할 무겁고도 책임적인 과업이 나서고있다. 격식화된 틀과 구태의연한 창작방식으로써는 문학작품창작에서 혁신을 일으킬수 없다.

모든 작가들과 창작지도일군들은 혁명의 수뇌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주체101(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려는 우리 당의 신념과 의지를 문학작품창작으로 관철함으로써 강성대국의 문패를 걸어놓는데서 전위투사가 되어야 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 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김정숙동무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김정일동무를 미래의 령도자로 키워 당과 조국앞에 내세워준것입니다. 동무들은 내가 김정일동무를 후계자로 키워냈다고 하지만 사실 그 기초는 김정숙이 쌓아놓은것입니다. 그가 혁명앞에 남긴 가장 큰 공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김정숙동무는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날에도 김정일동무를 불러앉히고 그에게 아버지를 잘 받들라는것과 아버지의 위업을 계승완성해야 한다는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김정일동무에게 남긴 유언으로 되었습니다.》

령도자와 작가

노래가사들에 비낀 위인의 겸손성

어 버 이 수 령 님 그 대 로 이 신 경 애 하 는
김정일 동지는 걸출한 사상리론가, 정치가, 전략가, 령도의 예술가이실뿐아니라 위대한 인간이시다. 그래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그이를 자나깨나 그리며 언제나 걸음걸음 따르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김정일** 동지는 인민의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훌륭한 품모를 다 갖추고있습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얼마나 위대한분이신가를 그이께서 지니신 겸손성의 일부를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주체84(1995)년 봄의 어느날.

한 인민군작가는 축배를 들자는 내용을 담은 가사를 창작하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올리였다. 처음가사는 이렇게 되어있었다.

1. 동무여 축배를 들자 승리의 축배를 들자
우리는 한마음한뜻으로 붉은기 지켰다
축배 승리의 축배 축배 기쁨의 축배
위대한 령장 위해 축배를 들자

...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노래의 가사를 보시고 어떤 평가를 주실가?)

작가는 초조감과 긴장된 마음으로 그 시간을 기다리고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뜻밖에 서거하신 후 오로지 우리의 사회주의와 붉은기를 지켜 가시기에 밤낮을 가리지 않으시고 머나먼 전선시찰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우리 장군님!

정녕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장군님의 건강

을 위하여, 그이의 안녕을 위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은 축배를 들고싶었다. 하여 작가도 군대와 인민의 그 절절한 마음담아 노래의 가사를 짓게 되었다.

드디어 작가가 기다리던 영광의 시각은 왔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노래를 잘 지었다는 평가의 말씀을 해주시었던것이다.

작가는 경애하는 그이께서 지도하여주신 가사를 받아안고 감격에 목이 메었다.

당시로 말하면 우리 나라에서 어버이수령님을 뜻밖에 잃는 대국상을 당하였고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동유럽나라들에서 붉은기가 내리워졌던 시기였다. 또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끊임없는 책동으로 우리 나라에서 어느 시각에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긴박한 정세가 조성되던 시기였다. 하지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것처럼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한 군인작가의 가사를 몸소 지도해주시었던것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이 가사를 보시고 표현을 수정가필하여 완성시켜주시었다.

작가가 처음에 위대한 장군님께 올리였던 가사에는 1절마지막에 《위대한 령장 위해 축배를 들자》라고 되어있었다. 이것을 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사에 표현되어있는 《령장》이라는 표현을 《인민》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써주시었다. 이 대목을 본 작가는 커다란 감동에 눈시울을 적시지 않을수 없었다.

《령장》대신에 《인민》이라는 표현, 여기에는 위대한 선군령장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이 겸손하신 성품이 그대로 어려있었다. 언제나 자신보다 먼저 인민을 생각하시고 모든것을 군대와 인민을 위해 바쳐가시는 우리 장군님! 그러기에

위대한 장군님을 끝없이 흠모하여 작가는 가사에서 위대한 선군령장이신 장군님을 우러러 붉은기를 지킨 승리의 촉배, 장군님을 모신 기쁨의 촉배를 들자고 표현하였던 것이다. 또 가사에서 《령장》이라는 작가의 표현속에는 우리 장군님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 언제나 위대한 승리와 영광만을 안아오시는 장군님에 대한 최대의 흠모와 격찬의 마음이 뜨겁게 담겨진것으로 하여 사실 이 가사에서는 《령장》이라는 표현이 핵이라고도 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장군님께서는 《령장》이라는 표현을 《인민》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주신것이 아닌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한없이 겸허하신 인품에 작가는 다시금 머리숙이지 않을수 없었다.

혁명, 그것은 위대한 령장이 있어 언제나 승리하는 법이다. 그런데 우리 장군님께서는 그 《령장》이란 표현보다 《인민》이라는 표현이 더 중하시어 가사를 이렇게 고쳐주신것이 아닌가.

작가는 그날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러 언제나 인민을 먼저 생각하시는 장군님 같으신분은 이 세상에 더는 없으시다고 다시금 자기의 걱정을 터쳐놓지 않을수 없었다.

작가의 걱정이 이때뿐이라.

작가가 또 다른 가사를 창작하여 올리었을 때의 일이다. 그 노래가 오늘 우리가 즐겨부르는 가요 《번영하여라 로동당시대》이다.

1. 해쉴는 아침처럼 희망찬 시대
꽃피는 봄날처럼 화창한 시대
장군님 해빛아래 락원이 꽃피
화목한 대가정엔 봄이 넘치네
(후렴) 빛나라 로동당시대
태양이 찬란한 시대
영원히 번영하여라

...

오늘 우리는 **김일성** 민족으로서 이 조국에서 **김정일**시대를 빛내이며 누구나 행복하게 기쁨에 넘쳐 살고있다. 하기에 사람마다 이 시대를 **김정일**시대라고 누구나 스스로 말하며 빛내고있다.

(**김정일**시대! 이 영광이 넘치는 시대를 격조높이 노래하여야 한다.)

작가는 이런 생각을 안고 우리 군대와 인민 누구나 격찬하는 **김정일**시대를 빛내일 일념으로 노래의 가사를 창작하게 되었다.

어느날 또다시 군인작가가 **김정일**시대를 빛내이는데 이바지하는 노래의 가사를 창작하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올리게 되었다.

그런데 이 가사를 보아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가사에 있는 《**김정일**시대》라는 표현을 모두 《로동당시대》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가필해 보내주시었다.

작가의 충격은 더욱 컸다.

(어제는 위대한 령장으로서 받으셔야 할 촉배를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돌려주시더니 오늘은 또 **김정일**시대로 온 세상에 자랑떨치는 시대를 있는 그대로 표현했는데도 로동당시대로 달리 표현하시다니...

아니다, 이 자랑찬 시대에 사는 전사들의 도리로서 우리는 마땅히 이 시대를 **김정일**시대로 표현해야 하며 가사에서 그대로 써야 한다. 그런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절대 승인하지 않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작가는 하루하루 안타까웁게 모대기고있었다.

그러던 그해 여름 어느날 작가는 뜻밖에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접견을 받는 최상의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뜻깊은 자리에서 작가는 작곡가와 아니,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의 한마음 담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노래 《번영하여라 로동당시대》를 처음노래 그대로 《**김정일**시대》라는 표현이 있게 부르게 해달라고 여러번 간절히 말씀올리었다. 하지만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절대로 그렇게는 못한다고 엄하게 막으시며 끝내 승인하지 않으시었다. 그리하여 노래는 끝내 《**김정일**시대》가 《로동당시대》로 바뀌어져 오늘 우리가 부르는 노래로 불리우게 되었다.

군인작가는 자기의 두번에 걸치는 체험을 통하여 다시금 절감하였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다시금 웨쳤다.

(우리 최고사령관동지처럼 겸손하신분은 이 세상에 더는 없으시다. 어버이수령님 그대로이신 그이께서 지니신 겸손성! 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는 장군님의 위대한 천품이시다. 언제나 자신보다 먼저 군대와 인민을 생각하시는 그이! 사람들이여, 우리 것처럼 위대하신분을 21세기의 태양으로, 위대한 령도자, 장군으로 모신 크나큰 행복 언제나 소리높이 자랑하자!) 라고...

그렇다, 한없이 겸허하신 성품을 지니신 위대한 인간, 그이를 모시였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과 긍지는 끝없이 높은것이며 이처럼 위대한분을 모신 장군복을 안고 우리는 이 땅우에 주체101(2012)년까지 기어이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홍영길

주 체 문 학 의 대 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으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시대의 영웅을 형상하는데서 그들이 처음부터 영웅의 기질을 타고난 기상천외한 인물이 아니라 평범한 출신의 근로자이며 직장과 가정에서 날마다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살고 있는 보통인간이라는것을 잘 보여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누구나 혁명위업에 대한 끝없는 헌신성을 가지고 당과 수령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칠 굳은 각오만 가지면 값높은 위훈을 세울수 있고 영웅이 될수 있다는 사상을 두드러지게 형상하여야 한다. 작가는 소박하고 평범한 보통인간이 어떻게 영웅으로 자라는가 하는것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밝혀내야 한다.》

《문학에서는 우리 시대 인간들이 지니고있는 대중적영웅주의의 본질을 생동하고 깊이있게 밝혀내야 하며 우리 문학에 그려지는 영웅의 성격은 사람들모두가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는 전형적인 환경속에서 형상되어야 한다.》

혁명일화

전선길에 펼쳐진 사랑의 화폭

위대한 장군님께서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선군장정의 갈피마다에는 병사들의 생활을 따듯이 보살펴주신 감동깊은 사실들이 수없이 새겨져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 해군부대를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부대지휘관들과 다정히 인사를 나누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침실, 식당, 세목장을 비롯한 부대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군인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그이께서는 군인들의 량식공급정량을 일일이 따져보기도 하시고 침실의 구조와 세면도구가 해병들의 특성에 맞게 갖추어졌는가에 대하여서까지 헤아려보시면서 군인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사랑으로 따듯이 보살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부대지휘관들에게 해병들은 많은 시간을 파도사나운 바다에서 보내기때문에 침식조건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뜨겁게 당부하시였다.

그날 식당에 들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부대지휘관에게 식당의 난방을 어떻게 보장하는가고 물으시였다.

부대지휘관은 죄송한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부대에서 식당을 다시 지은 후 난방보장대책을 미처 세우지 못하고있었기때문이었다.

부대지휘관의 이러한 자책어린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식당을 다시 건설하였다고 하여 난방도 없이 식당을 리용하고있는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식사는 더운 방에서 하여야 한다고, 자신께서 이미 지적한대로 한 단위들에서는 더운 방에서 밥을 먹기때문에 군인들이 매우 좋아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부대지휘관에게 식당에 개방식보일러를 놓아 밥을 지을 때 나는 열로 식당난방을 보장하여 군인들이 더운 방에서 밥을 먹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따듯이 이르시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군인들의 병실에도 사랑의 자욱을 새기시였다.

군인들의 머리가 창문쪽으로 가게 침대를 놓은것을 보신 그이께서는 부대지휘관에게 침대를 제대로 놓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침대를 지금처럼 머리가 창문쪽으로 가게 놓으면 군인들이 잠을 자고 일어나도 벽을 마주하게 되고 잠을 잘 때 창문에서 들어오는 찬바람도 맞을수 있다고 하시면서 병실침대를 돌려놓아 군인들이 잠을 자고 일어나면 조국의 밝아오는 하늘부터 볼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우리 군인들의 생활에 자그마한 불편이 있을세라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어버이사랑에 부대지휘관들은 가슴뜨거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의 전선시찰의 길은 이렇듯 병사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이어지고있다.

우리 총천 병사들이 보고싶다고 하시며 풍랑사나운 바다길도, 산세험한 칼벼랑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전선길, 그 길우에 펼쳐진 병사들에 대한 사랑의 화폭들은 선군시대와 더불어 천만군민의 가슴속에 길이길이 간직될것이다.

럼 철 호

심장깊이 새겨주신 고귀한 진리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한생은 총대와 더불어 빛나는 위대한 혁명가의 한생이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한평생 억세게 틀어쥐신 총대에 그리도 뜨겁고 열렬하게 깃들어 있는것은 바로 수령결사옹위의 고결한 신념과 의지이다.

항일의 나날에 이어 새 조국 건설의 나날에도 김정숙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과 병사들의 가슴속에 사격술의 참의미를 깨우쳐주시어 그들이 수령결사옹위의 총대를 더욱 억세게 틀어잡도록 이끌어주시었다.

새 조국 건설이 한창이던 어느날이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 바쁜 나날속에서도 평양학원(당시) 학생들의 사격훈련을 친히 지도해주시었다.

사격훈련장을 찾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학생들의 훈련정형을 여러모로 보살펴주시었다. 아직은 총에 익숙되지 못한 학생들이어서 사격동작이 서툴렀다. 그래도 열성만은 대단하였다. 훈련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라도 더 빨리 익숙하려고 애썼다.

훈련에서 땀을 흘리고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미덥게 바라보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손수 수범을 보여주시며 사격동작을 하나하나 익혀주시었다.

어느덧 실참이 되었다.

백두산녀장군의 주위에 모두가 모여들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주위에 빙 둘러앉은 학생들을 사랑넘친 눈길로 바라보시며 동무들은 왜 총쏘는 법을 배우는가고 물으시었다.

학생들이 저마끔 대답을 하였다. 군대가 되기

위해서 배운다고, 왜놈들이 다시 달려들면 싸워야겠는데 총을 쏠줄 모르면 어떻게 하는가고, 반동놈들을 다 쏘아잡자고 배운다고...

밝은 미소를 지으시며 그들의 대답이 옳다고 긍정해주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동무들이 말한것처럼 총쏘는 법을 배워야 군대도 될수 있고 계급적원주들과 싸워 해방된 나라를 지킬수 있다고 하시면서 당면하게 동무들이 장군님께서 맡겨주신 혁명임무를 원만히 수행하자면 한시바삐 총에 익숙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계속하여 김정숙동지께서는 높은 사격술을 소유해야 총을 들고 날치는 반동놈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위대한 장군님을 보위할수 있다고, 사격술은 장군님의 안녕을 위해 필요한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안녕을 위해 필요한 사격술!

참으로 심원한 뜻이 빛발치는 백두산녀장군의 가르치심이였고 또한 태양의 친위전사만이 간직할수 있는 숭고한 뜻이었다.

학생들은 숭엄한 마음으로 김정숙동지를 우러렀다. 그리고 어깨에 멘 총을 더욱 으스러지게 틀어잡았다.

그날 김정숙동지께서는 학생들의 한결같은 요청으로 몸소 싸창을 드시고 시범사격을 하시었다.

목표판의 중심만을 꿰뚫으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우러르며 학생들은 수령결사옹위의 총대를 더욱 억세게 틀어잡을 맹세로 가슴 불태웠다.

강 철 남

가 사

병사의 축복속에 아름다운 고향아

최 성 혁

사랑이 불타는 총잡은 이 가슴에
수호의 숨결인가 추억은 뜨겁네
성스런 군복입고 복무의 길 빛내가는
병사의 축복속에 아름다운 고향아

행복이 커가는 집집의 창문마다
수호의 눈빛인가 내리는 저 별빛

용맹의 나래퍼고 그대 안녕 지켜가는
병사의 축복속에 아름다운 고향아

눈비를 맞으며 전호에 산대도
군공의 위훈은 조국이 안다네
한목숨 바쳐야 할 최후의 순간에도
병사의 축복속에 아름다운 고향아

시 초

울려가라 행복의 노래여

그이께서 오신 날은

리 동 수

그날 아침 구장땅엔
단비가 이윽도록 곱게 내렸다
귀한분 금시 오실듯
곱게 뻗은 길은 차분히 젖고
우거진 버들숲은 초록빛 한껏 뽐었다

한낮무렵 구름은 씻은듯 가셔지는데
꿈결에도 그리면서도
차마 오늘에 오시라 했건만
아, 그이께서 오셨다
해빛처럼 환하게 웃으시며
우리 장군님 양어장에 들어서신다

환희에 설레이는가 버들숲은
실실이 가지 드리우고
그이를 반겨 칠색송어 구름처럼 모여드니
삼시에 양어못은 술렁술렁 끓어번져라

동룡샘 하도 맑아 칠색송어 춤추는가
구장처녀 마음 고와 금송어떼 굶니는가
동룡정, 수정각
그림같은 양어장 못마다에
어버이의 밝은 미소 인민의 기쁨 어우러져
눈부신 행복의 무지개 무지개

시간이 흐를수록
그이의 만족은 더욱 끝없고

해빛같은 사랑은 가슴마다 안겨지고
하냥 벅찬 감격만이 설레여 넘치여
사람들은 잊었는가 이 하루의 의미를

오오 잊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8월 18일, 오늘은 원쑤의 대군단이
침략전쟁연습, 그 검은 날개를 편 다음날
세계의 우려가 조선으로 무겁게 향했거니
그때문에 우리 장군님
차마 오늘에 오시라 했던...

정녕 잊지 않았다
사뭇 즐거우신 평장의 미소앞에서
원쑤의 때무리 한갓 검불처럼 여겨졌을뿐
그이는 산촌의 희한한 이 선경 펼쳐
침략의 군단과 군단을 무찌르고
우리의 가슴은 창조와 번영
그 한생각으로만 불타게 하셨나니

아, 장군님 오신 날
인민은 그이를 높이 받들어
이 땅에 강성대국을 기어이 일떠세울
드림없는 의지를 백배했어라
이날 세계는 확신했어라
해쫄은 아침처럼
조선이 맞이할 빛나는 그날을!

양 어 장 의 담 시

리 신 환

어버이 모신 한없는 기쁨인양
양어못엔 옥계수 흘러들어 늠늠늠
호드러진 칠색송어 금송어떼 술렁술렁
하늘은 씻은듯 맑고 높아

하지만 양어공 정희의 마음
못내 안타까워라
고기떼 먹이 먹는 그 장관을
장군님께 꼭 보여드리고싶건만
오늘은 왜선지 자기를 따르지 않아
먹이를 뿌려도 고기들은 오지를 않아

능금처럼 타는 불
울고싶은 마음
눈길로라도 당겨올듯 고기떼를 바라보니
아이참 이런 일?!...

말 못하는 물고기들이 어이 알가
그이의 따뜻한 음성 환하신 미소
마치 다 듣고 보는듯
떼를 지어 줄지어 그이만을 따르니
하도 놀랍고 희한해
정희 그런듯 보고만 싶는데

꼭같은 마음인듯
지배인 삼가 그이께 아뢰여라
고기들도 장군님을 알아뵈다고
고기들이 모두 장군님만 따른다고

순간
룡문꼴을 흔드는 호탕한 웃음이여
가슴을 울리는 뜻깊은 음성이어
고기가 나를 따라선 뿔하는가고
고기야 인민을 따라야지 하시는...

아, 그 말씀에 몽클 걱정이 복받쳐
지배인도 정희도 목이 짝 메였다
구장땅이 온 나라가 고마움에 울었다
인민위한 헌신으로 태양처럼 불타시는
아버이의 심정이 사무치게 어려와서
장군님의 인민된 행복이 끝없어서

아, 대지도 걱정을 터치는가
물소리 물소리
언제나 인민에게로 달리시는 그이의 마음처럼
못가로 쉽없이 흘러드는 동룡샘물소리
인민의 가슴을 세차게 울리며
인민의 내 나라에 노래처럼 울리네

《 새 집 들 이 》 하 는 날

리 명 옥

이른새벽
못가에 다소곳 홀로 앉은 양어공처녀
웃음만 찰랑이던 예쁜 눈에
오늘은 어이해 가랑가랑 눈물 고였나

발밑엔 잠깐 어린 칠색송어들
엄마품을 따르는 아기마냥
오르르— 모여 어리광치는데
말그레 젖은 눈에 고운 웃음 떠올리며
처녀야 너는 무엇을 속삭이느냐

이제
동룡샘바위우에 아침해 솟아오르면
정들은 이 고기들과 헤어져야 한다지
온 한해 애지중지 품에 안아키운
살불이같은 이 어린 칠색송어들
염지못으로 《새집들이》 보내야 한다지

아쉬워... 보내기 아쉬워...
새끼고기들과 마음의 말 나누며
너는 지금 너의 꿈과 속삭이리라
아름다운 래일과 속삭이리라
웃는 처녀보다 우는 처녀가 이렇게 고운줄
내 미처 몰랐구나

우리 장군님 뜻을 받들어

인민을 따라갈 구장땅의 칠색송어들
그들의 첫 엄마는 바로 너였지
알을세라 하나라도 뒤떨어질세라
수만마리 애지중지 하루같이 정을 고인 네 마음
별들이 알아 산천이 알아...

정이란 참으로 별스러워...
네결을 못 떠나 종내 못 떠나
홍치며 뒤설레며 하야니 물보라 일쿠는 저 송어떼
그것들도 너와의 작별이 아쉬워
이 아침 저렇듯 유별난 풍경 펼치는건 아닌지...

송어떼는 가도 정은 남아
너의 꿈 너의 소원 못가마다 꽃피나리라
이제 너의 사랑동이들 새집에 가거들랑
제일 크고 멋지게 우쑥우쑥 자라
장군님 다시 모시는 영광의 그날
크나큰 기쁨 남먼저 알려드리리

아, 축복의 해님인가
동룡샘바위우에 아침해가 솟는다
《새집들이》 시각이 왔구나
장군님뜻을 따라 인민의 집으로 더 가까이
기쁨과 행복의 《큰집들이》 어서 보내자
강성대국 환희로운 그날을 불러 부르며...

나 는 일 기 를 쓰 는 다

김 춘 길

열일곱 처녀의 부푼 가슴에
첫 로동의 파견장 안고 달려온 일터
동룡샘 출렁이는 고향산촌
구장의 양어못 가꿔갈 마음으로
오늘도 나는 일기장을 펼쳐든다

사시장철 변함없이 솟아나는 맑은 샘에
량심의 자욱 거울로 비춰보며
한자한자 보석을 쪼아새기듯
하이얀 종이우에 적어둔 일기의 구절은
맑은 샘 양어못에 칠색송어떼로 차넘치거니

어제런듯 안겨온다
갓난 어린고기못에서
몇밤을 지새우며 애꿎던 마음

흐르는 달빛아래
온 하루 칠색송어와 나누던 간절한 속삭임을
일기장에 적어가던 그밤이

여기에 있어라
먼곳에 갔다가도 마음먼저 달려오던
내 정든 양어못
잠시도 칠색송어를 못 보면
맘편히 잠들수 없어 달려나오던
눈보라 울부짖던 그 새벽도

한장두장 펼쳐보는 일기장엔
로동의 보람 한껏 어려있어
금시 눈앞에 보이는듯싶어라
못가에 가득차 일렁이는 고기떼 바라보며

환희론 날을 꿈같이 그리던 해쫓는 아침이

정녕 잊을수 없으려
우리 일터 찾아오신 장군님
홍겨운 노래속에 일하는 모습 보아주시며
구장의 양어치녀라고 다정히 불러주실 때
뜨거운 그 사랑에 목이 메어
눈물로 적시인 나의 일기

나는 일기를 쓴다
두툼한 일기장 하이얀 종이우에

또 하루 새겨갈 내 삶의 자욱
층층 펼쳐진 못가마다에
홍하는 내 조국의 기쁨 가득 넘치게
칠색송어를 살지워갈 마음안고

먼 후날 처녀시절 끝난대도
맑은 샘 양어못에 칠색송어 키워가던
청춘의 아름다운 자욱 이 땅에 남아
우리 후대들 거울처럼 펼쳐보게
생의 자욱 뚜렷이 새겨갈 불타는 마음안고
아, 나는 일기를 쓴다

나는야 구장의 무지개 처녀

박 해 출

하늘에만 무지개 곱게 비끼나
구장의 양어장에 무지개 섰네
칠색송어 물이 좋아 떴지어노니
물결우에 황홀한 무지개런가

나는야 구장의 무지개 처녀
녕변의 처녀들아 뽐내지 말아
장군님 양어장에 찾아오시여
온 나라에 내세워준 양어치녀

그 은정 고마워 고기떼들은
자꾸자꾸 장군님만 따라서 돌며
칠색송어 와글와글 춤을 추는듯
아름다운 무지개를 피워올리네

하늘에도 무지개 곱게 비끼고
물우에도 무지개 곱게 웃는 땅
구장이라 물맑은 산천은 좋아
래일 안은 가슴엔 꿈도 많아라

우리 기쁨 담아서 물우에 피나
장군님 은정 안고 무지개 뽐네
녕변의 처녀들은 비단을 짜고
구장의 처녀들은 고기를 푸네

아, 장군님의 높은 뜻 예서 받들며
인민들의 행복속에 기쁨 찾으리
나는야 구장의 무지개 처녀
온 나라가 다 아는 구장의 양어치녀

그 물을 당겨라

리 태 식

어허라 철아 분아
그물을 당겨라
팔뚝같은 칠색송어 아름으로 퍼내는
흐뭇한 양어의 기다리던 가을이다
예헤 그물을 당겨라 우리네 기쁨 당겨라

철아 움쭉 배지기 뜨는 저놈
물박을 홀 날아 뺄소니철라
어여싸 그물을 들어올려라
분아 너도 힘보태거라
저울대가 툭 부러지도록
헤요 못물을 채치듯 후리자꾸나

어쩌면 알겠느냐
묵직한 대가리를 틀어박으며
살진 몸통 디툴디툴 요동쓰는 저놈들
철아 네가 허실없이 깨워낸
그 봄날의 갓난 새끼고기가 아닌지

어쩌면 혹시 알겠느냐 분아
옥실옥실 엉킨 무리 성가신듯 부집으며
꼬리 풀땀 물보라를 튕겨올리는 저기 저놈

네 끝끝내 살려 비육못에 놓아준
얕던 그 고기는 아닌지

끓는 죽가마인듯
그물안은 부글거리고
행복의 두리반 앞인듯 가슴들먹인다
층층 못마다 아버지의 뜻을 꽃피운
우리네 정보다 애모쁜것 그 어디에 있으랴

아, 자랑넘치는 참 좋은 가을이다
깃을 치며 날아예는 물새들
오늘따라 별스레 더 예쁜듯싶은
울담처럼 둘러선 아래마을조무래기들
예없이 더 귀여운듯싶은

어서 당겨라 풍어의 이 가을
어그야 디야 환희의 그물 한껏 끌어라
별써 저기 활 열린 정문어귀엔
언듯만듯 자동차들이 꼬리를 물었다
철아 분아 우리네 희한한 이 산촌
강성대국 만복의 바다 한복판갈구나

울려가라 행복의 노래여

김 남 호

오시여 두고가신 다함없는 정이런가
정말 희한하다고
이제는 구장양어공처녀의
노래가 있어야겠다면
사랑의 그 말씀

그 사랑 노래되어 울린다
산 좋고 물 맑은 이 강산 어디나
우거진 버들가지 살쫓이 제끼며
구장의 양어공처녀 선녀처럼 내리고
웃음 함뿔 드리우며 고기떼를 부르며
먹이를 뿌린다 행복을 살지운다

정갈한 샘물소리 꼬리치는 생선 장단에
그 옛날엔 꿈에조차 못 그려본 칠색송어라
늙은이는 백발이 못내 아쉬워
젊은이는 희열과 랑만으로 가슴높뛰어
강성대국 당겨오는 열정의 발걸음
넘치는 환희로 한층 성수나라

이 아니 흥이런가
온 나라 방방곡곡 어버이 찾으시여
별이면 옥야천리 황금벌의 노래

선경의 도시엔 불야성의 노래
날마다 탄생하는 기쁨의 노래우에
그림같은 산촌엔 풍어의 노래 울리니
창조로 불같은 선군의 우리 세월
마를줄 모르는 행복의 바다런가

이 노래 울려올려
장군님만 따라서 매일 위해 달음쳐온
인생의 참된 멋 후덥게 새겨주고
벽찬 가슴 더욱 벽차게 하여주며
누려살 천만복 선명히 그려주나니

울려가라 행복의 노래여
자랑찬 오늘의 승리 매일에 백배하며
장군님 펼치시는 강성대국 교향악의
더욱 아름다운 행복의 노래를 날으면서—

세월은 흘러가도 노래는 길이 남아
후손들의 마음속에 사진처럼 새겨주리
억만년 번영할 무궁한 미래에
억척같은 만복의 뿌리가 되어준
오, 우리가 산 위대한 선군의 세월을
가장 뜨거운 애국의 **김정일**시대를!

총 번 호 — 1 8 5 7

박 응 전

총번호—1857
이것은 병사시절
조국이 나에게 준
첫 총대 자동보총

지금은 어느 병사가
군복에 쇠진이 배도록
너를 비껴안고 훈련길 달리느냐
어느 사격장에서 명중탄 날리고
무기소제를 하느냐

초소를 떠나 세월은 흘렀어도
젊은 시절의 애인인양
꿈결에도 잡아보는 총
눈 감고 애무해본다
그러면 총가목, 방아쇠, 부혁까지
때묻은 정 뜨겁게 살아난다
분해결합이면 어느새
한손에 감겨드는 격발복좌장치
눈 깜박할새 총창 꽃고 끝!

나의 총—1857

너는 나에게 총대의 사명을
당과 조국과 나 자신의 생명으로
새겨주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정신력
총대정신을 안겨주고
원췌에겐 추호의 자비도 모르는
멸적의 의지를 키워주었다

나의 총—1857
너로 하여 나에게
수령결사옹위전위투사의 징표가 있고
너로 하여 나에게
김일성민족의 존엄의 증서
공민증번호가 있다

오, 총대
너로 하여 우리는
조국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호의 가치를 알았다!
너로 하여 인민은
강성대국의 영원한 주소를 가졌다!



봄향기

박혜란

1

석두산샘물이 줄어든 원인이 지각의 변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지질탐사대장의 말을 듣고 김웅범 부부장은 자못 신중해졌다.

(그렇다면 원인이 어디 있을까?)

바로 이틀전이었다.

인민군군부대의 어느 한 여성중대를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녀병사들에게 공급되는 크림의 질을 보아주시다가 화장품공장에서 쓰고 있는 샘플량에 대하여 친히 알아보시었다.

석두산샘물로 말하면 7년전 남신의주에 새로 건설한 화장품공장의 조업식을 앞두고 장군님께서 몸소 찾아주신 지하샘줄기의 원수였다.

도당책임일군으로부터 샘플의 시간당 흐름량이 종전보다 조금 줄어 들었다는 보고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김웅범을 전화로 찾으시어 현지에 나가 원인을 알아볼데 대한 과업을 주시었다.

하여 김웅범은 송수화기를 내려놓자마자 이곳 석두산지구로 내려왔던 것이다.

도지질탐사대성원들을 돌려보낸 후 료해사업을 계속하던 그는 뜻밖의 사실에 부닥쳤다. 석두산지구에서 약효가 높은 샘물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된 어느 한 회사가 대외시장에 샘물을 내다 팔 목적으로 그 물을 뽑아쓰고 있었던 것이다. 김웅범의 앞에 불리워온 회사의 일군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이런 말로 반죽을 치는 것이었다.

《부부장동지, 석두산은 남신의주역을 가까이하고 있어서 백마산까지 갔다오는데 드는 휘발유를 절약할뿐 아니라 대외시장에 상품을 내가기도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실리가 있는 외화원천대상이지요. 물론 저희들이 물을 뽑아쓴 건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대외

시장에서 번 돈으로 꼭 보상하겠습니다. 그러니 국규제정을 받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석두산샘물을 탐내고 있는 것은 그 회사만이 아니었다.

현지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처리하고난 김웅범은 서둘러 차에 올랐다. 전선길에서 돌아오신 장군님께서 이 시각 자기를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마음을 조급하게 했던 것이다. 차안에서 그는 자기를 질책하였다. 병사들을 찾아 전선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속에서도 화장품생산에 필요한 물문제를 두고 마음쓰시는 장군님의 의도를 제때에 받들지 못한 괴로움이 마음을 무겁게 했다. 7년전 리정임이 자기한테 사업을 인계하면서 절절히 부탁한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니었던가. ...

그때가 바로 20세기의 마지막해가 12월의 석양 속에 저물어가던 무렵이었다. 젊은 시절부터 경공업부문의 여러 직책에서 사업해온 고향의 녀투사는 오래동안 함께 일해온 김웅범에게 매 공장을 일일이 동행하면서 사업을 인계하였다. 신의주에 자리잡은 경공업공장들을 찾았을 때에도 그는 백두산장군들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공장들을 새 세기의 맛이 나게 더 잘 꾸려줄 것을 김웅범에게 부탁했다.

그날 리정임은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말했었다.

《부부장동무에게 한가지 당부할 말이 있어요. 며칠전에 우린 경애하는 장군님께 새로 건설한 화장품공장을 조업하려 한다는 보고를 드렸었어요.

저의 보고를 기쁘게 들어주시던 장군님께서 문득 물문제를 어떻게 풀었는가고 물으시는 것이었어요. 수도공사를 잘해서 깨끗이 정제한 물을 생산에 리용하도록 했다고 말씀 올리자 그이께서는 〈정제한 물이란 말이지요.〉 라고 되뇌이시더니 영문을 몰라하는 우리들을 보시며 화장품생산에서는 자연수를 쓰는 것이 원칙이라고, 그러니 조업식

을 미루더라도 물문제부터 해결하자고 간곡히 말씀하시었어요. 이렇게 해서 신의주화장품공장이 아직 조업식을 못하고있어요. 장군님의 의도를 잘 받들지 못한 내 잘못이 커요.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을 부부장동무가 꼭 수행해주길 바랍니다.》

그로부터 며칠후 조국은 새 세기를 맞이했다. 동토대의 날씨를 편상케 하는 혹한의 소한절기를 외국방문의 길에서 보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보름이 지나 조국으로 돌아오시었다.

이른 새벽 열차에서 내리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과 함께 축원의 인사를 올리는데 김웅범을 띄어보시고 밝은 안색을 지으시었다.

《웅범동무, 잘 있었소?》

《장군님, 장군님의 건강한 모습을 뵈옵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고맙소. 동무들의 념려덕분으로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이께서는 조국에 돌아오신 기쁨이 정녕 크신 듯 환히 웃으시었다.

일군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차있는데로 가시던 장군님께서서는 김웅범을 부르시었다.

《웅범동무는 나와 함께 새벽산보나 합시다.》

《예? 이 추위에 말입니까. 장군님, 오늘은 대한날입니다.》

그이께서는 사뭇 놀라와하는 웅범을 바라보시며 빙그레 웃음을 지으시었다.

《대한이라... 조국을 떠나있을 때는 그곳 소한 추위가 정말 심했소. 그 추위에 비하면 오늘은 한결 따스한것 같구만.》

(...)

새벽바람은 살을 에일듯 차거웠으나 장군님께서서는 성큼성큼 차걸로 다가가시었다. 그리고 한자리에 못박힌듯 서있는 웅범을 향하여 어서 차에 오르라고 손짓해주시었다. 그이를 모신 승용차는 역구내를 벗어나자 속도를 높였다. 이따금씩 눈에 익은 공장건물들이 전조등빛에 형체를 드러냈다가 어둠속으로 사라지곤 하였다. 시내중심도로를 따라 한참 달리던 승용차가 교외로 뻗은 길에 들어서자 김웅범은 의아함을 감출수가 없었다.

승용차는 산소분리기공장 정문을 눈앞에 두고 왼쪽으로 갑자기 방향을 꺾었다.

포장을 입히지 않은 흙길이 시작되었다.

고르롭지 않은 길이 이따금 차를 들추어놓았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시는듯 침묵을 지키시었다.

(혹시 쪽잡에 드신건 아닐가?)

바람이 앙상한 나무가지들을 후려치는 소리만이 우-우 차안으로 실려들어왔다. 길 우측으로는 설한에 얼어붙은 석하천이 떠를 드리운듯 길게 누워있었고 그 너머로 키낮은 산들이 밋밋한 기복을 이루며 줄레줄레 서있었다.

새벽길을 꽤 오래동안 달렸을 때 장군님의 음성이 차안에 울렸다.

《운전사동무, 온 길로 되돌아갑시다.》

(?)

차는 오던 길을 되돌아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웅범은 그 까닭을 알지 못했다.

그이께서 무엇때문에 오신 길을 되돌아달리시는지 그리고 미명속에 어슴푸레 보이는 산발들에서 왜 줄곧 시선을 떼지 못하시는지 가늠을 할수 없었다.

차는 여전히 왕복길을 달리고있었다.

두번째, 세번째...

차가 석두산을 가까이했을 때 장군님께서서는 차를 세우시었다. 손수 차문을 열어제끼신 그이께서는 세팔개 붙어치는 찬바람을 마주하시며 석하천제방쪽우에 올라서시었다. 바람이 그이의 솜옷자락을 기폭처럼 날리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광풍을 맞바아서시여 두손을 허리에 대신채 백마산줄기를 타고 연연히 뻗어 내려온 산발들을 이윽히 바라보시었다.

한초, 또 한초... 멈춤을 모르고 흘러가는 그 순간이 몇초를 이루었던지, 아니면 몇분을 이루었던지 김웅범은 알지 못했다. 그 시각 그의 뇌리에서는 시간이라는 존재가 의미를 잃었던것이다.

먼 산발우로 불덩이같은 해가 솟구쳐올랐다. 두손을 허리에 얹으시고 금빛으로 물드는 산정에 시선을 맡기시였던 장군님께서서는 차안에서 수지물병을 꺼내드시었다. 황치령샘물병이었다.

《부부장동무, 나는 조국으로 오는 열차안에서 이 물맛을 보면서 백마산과 한지맥을 이은 석두산에도 황치령샘물 못지 않는 좋은 물이 꼭 있을거라고 생각했소. 그래서 오늘 석두산지구를 돌아보았습니다.》

《!...》

따스한 해빛은 석두산마루에 아낌없는 광채를 뿜어주고있었다. 그이께서 들고계시는 수지물병의 맑은 샘물도 그 눈부신 광채에 령롱한 빛을 뿌리고있었다. ...

7년전 그날의 감회에서 깨어난 김웅범은 얼핏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사람들이 아직 단잠에 들고 있을 시각이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운전사를 재촉했다.

《속도를 더 놓소.》

2

누가 말했던가, 겨울이 옴은 봄을 마중하기 위해서라고.

세계기상일보사의 한페이지에 동토대의 수은주와 거의 평행선을 그은 섭씨온도로 기록된 새세기 첫해의 겨울로부터 세월은 년년이 봄을 마중하

였다.

이 새벽 집무실에서 한밤을 새우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석두산지구에서 방금 돌아온 김웅범을 만나주시었다. 그의 보고는 오늘의 실정에서 볼 때 무심히 대할 문제가 아니었다.

《부부장동무, 나도 부부장동무와 같은 견해입니다. 동무도 알다시피 황치령샘물공장은 나라의 중요한 음료생산기지로서 인민들에게 넉넉히 공급되고있을뿐아니라 대외시장에서도 호평을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에서 새로운 상표를 단 샘물이 무엇때문에 또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석두산샘물은 고급화장품생산에 절실히 필요한 진귀한 샘물입니다. 그러니 그 물을 다른데 쓰게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아침해별이 창문안으로 열게 비쳐들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잠시 말씀을 끊으시고 창가로 다가가시었다. 잎 떨어진 정원수가 가지를 총총히 세우고 그린듯이 서있는것이 내다보였다.

무성히 드리웠던 잎새는 자취를 감추어버린지 오랬건만 눈서리를 곳곳이 이겨낸 나무는 자기의 존재를 시위하듯 가지마다에 파릇한 움을 틔우고 있었다. 정원수까지꼭대기에 빈 새둥지 하나가 걸려있는것이 눈에 띄우셨다. 아직 잎이 돌지 않아서인지 새둥지는 엄청나게 커보였다. 파스한 고장을 찾아 멀리로 날아간 옛 주인을 기다리며 묵묵히 었혀있는 새둥지를 바라보시느라니 문득 전선길에서 보신적 있는 병사들이 가꾼 숲이 눈앞에 떠오르시었다. 자기들이 가꾼 푸른 숲에 새들이 날아들라고 나무들마다에 새둥지를 만들어준 병사들이었다.

불시에 병사들에 대한 애뜻한 그리움이 갈마드 시었다.

차디찬 전호가에 배를 대고 억척스럽게 군무생활을 해나가는 그들에게 새봄이 찾아온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제 봄기운이 완연해지면 그 병사들이 가꾼 숲에도 새들이 날아와 지저귀리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심호흡을 하고나시여 집무탁으로 오시었다. 그러시고 일력의 새 장을 번 지시었다.

새날의 아침을 반기듯 파란빛글자들이 일력장우에 또렷한 자태를 드러냈다. 그이께서는 그 글자들에 눈길을 떼지 않으신채 나직이 말씀하시었다.

《벌써 3월이요.》

느닷없이 하시는 말씀에 김웅범이 미처 생각을 고르지 못하고있는데 장군님께서 또다시 조용히 위우시었다.

《3.8절이 가까와오는구만.》

그이의 말씀에 김웅범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전선길을 이어가시느라 언제한번 편히 쉬실새가 없고 겹쌓이는 일들을 처리하시느라 항상 바쁘신 시간을 보내시는 장군님께서 범상하게 찾아오는

국제부녀절까지 잊지 않고계시다니.

(혹시 3.8절과 관련하여 무슨 과업을 주시려고 그러시는건 아닐까?)

불쑥 중대한 과업을 받아안게 되리라는 예감으로 웅범은 온몸이 긴장되었다. 그러는 그를 다정하게 바라보시던 장군님께서 밝은 안색을 지으며 물으시었다.

《부부장동무, 부인과 극장관람이랑 더러 하군 합니까?》

너무도 뜻밖의 물으심이어서 김웅범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솔직한 대답을 드리지 않을수 없었다.

《저... 일도 바쁘고 안해가 손자애시중을 드느라 짬을 내지 못하다나니 사실 산보나 극장관람 같은건 생각지 못하고있습니다.》

《허허, 그러니 부부장동무도 벌써 할아버지 흉내를 내고있구만.》

그이께서 웃으시며 하시는 말씀에 김웅범은 얼굴을 붉혔다.

장군님께서 그의 생각을 깨우쳐주시듯 말씀을 이으시었다.

《혁명을 하는 사람일수록 나이는 늙어가도 마음만은 절대로 늙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바로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서요.》

그이께서는 의자에서 일어나시었다. 그러시고는 마음을 숙연히 가다듬고 서있는 김웅범의 곁으로 다가가시었다.

《웅범동무, 안해를 아껴주시오. 그리고 더욱 사랑해주시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김웅범을 바래주고나시였을 때 창가를 어루만지던 옅은 해살은 집무실바닥으로 발범발범 내려앉고있었다. 기다리던 봄이어서인지 방안에 흘러드는 해별이 류달리 파스하게 느껴지시었다.

《3월이라...》

그이께서는 다시금 조용히 되뇌이시었다.

그러자 몸매 작은 백발의 녀인이 눈앞에 언뜻 밝혀오시었다. 로년의 나이에 자기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금은 꽃과 함께 여생을 보내는 리정임의 단아한 모습이었다. 그의 생일이 바로 어제였다.

장군님께서 전선시찰의 길에서 아흔번째로 맞이하는 그의 생일을 축하하시여 친히 생일상을 보내주시였었다.

그의 모습을 그러보시느라니 어제날의 팔팔하던 녀성일군을 백발할머니로 만든 세월이 야속하게 생각되시었다.

항일의 나날 어머니와 함께 눈비를 헤치며 고락을 나뉘온 리정임을 대하실적이면 어린시절추억의 갈피속에 고이 묻어두시였던 그 잊을수 없는 겨울날이 삼삼히 떠오르곤 하시었다.

...그날은 해방된 이듬해 어머니의 생신날이

였다.

밤이 깊어 댁으로 돌아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진지상을 차려드리느 어머니앞에 자그마한 크림파한개를 꺼내놓으시었다.

《정숙동무, 이걸 받소. 어려서 부모형제를 다 잃고 총을 메고 싸우느라 갖은 고생을 해온 동무에게 해방이 되면 좋은 선물을 마련해주자고 생각했었는데 이것밖에 주지 못하는구만.》

통안에는 눈처럼 하얀 크림이 담겨있었다.

순간 어머니의 눈가에는 눈물이 샘마냥 고여올랐다. 산에서 작식대일을 하실 때 동상을 입은 손으로 댁을 찾는 손님들의 끼니를 보장하고 원아들의 옷을 빠느라 젖은 손 말리울새가 없는 자신을 위하여 고르고 고르시었을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니 그 작은 물건이 더없이 소중한게 여겨지시는것이였다.

《장군님, 고맙습니다. 저에겐 이 크림이 정말 귀한 선물입니다.》

그날부터 어머니께서 사용하시는 작은 거울앞에는 크림단지 한개가 정히 놓여있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어머니께서는 한번도 크림단지에 손을 대지 않으시었다. 그것을 의아하게 생각하신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어느날 젖은 손을 감싸며 방안으로 들어서시는 어머니앞에 크림단지를 내미시었다. 그러는 아드님을 품에 꼭 껴안아주시며 미소를 함뱍 지으시던 어머니께서는 그것을 다시금 거울앞에 소중히 놓아두시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며칠후에야 그 사연을 알게 되시었다.

어느날 밤, 현지지도의 길에서 돌아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 한자리에 그대로 놓여있는 크림단지를 보시고 어머니께 그 이유를 물으시었다.

그때 어머니께서 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귀전에 들려오는듯싶다.

《장군님, 저야 손이 늘 젖어있는데 뭐랍니다. 정임동무가 산에서 입은 동상때문에 얼굴색이 좋지 못하는데 이걸 바르면 그의 얼굴이 한결 환해보일것 같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아무 말씀도 않으신채 어머니를 정겹게 바라보시었다. 자신에게 좋은것이 차례지면 언제나 고스란히 동지들에게 양보하시던 그 비단결같은 마음이 지금도 여전하다고 생각하시니 가슴이 뜨거워지시었다.

후날 리정임은 크림에 갖은 사연을 알았으나 어머니께 고마움의 절을 드릴수 없었다.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신 뒤였던것이다. 모란봉기슭의 이슬들은 잔디에 엎드려 목놓아울던 그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그 때 로부터 세월은 많 이 도 흘렀다. 백두산은인들의 각별한 사랑을 받아온 그를 장군님께서도 오랜 세월을 두고 남다른 정을 기울여주시었다.

바로 어제 또 그이께서는 전선길에서 녀투사에게 90돛생일상을 마련해주시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그의 생일을 축하해주시기를 진정으로 바라시었다.

자신께서도 어제 평양에 계셨더라면 그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녀투사의 한생을 더듬어도 주시고 혁명의 계승에 대해서도 그의 후손들에게 이야기해주셨을것이였다. 그러면 그가 얼마나 기뻐하였겠는가.

불쑥 리정임이 보고싶으셨다. 그리고 북판탈투가 섞인 그의 목소리를 듣고싶으셨다.

그이께서는 시계를 보시었다. 새벽잠이 없는 그가 인제는 마당산보를 끝냈을 시간이였다.

장군님께서는 집무탁 맨끝에 놓인 하얀 송수화기를 들고 그를 찾으시었다.

세월의 흐름속에 녀성일군의 옛모습은 사라져버렸어도 뚱뚱한 목소리만은 그대로 간직하고있는 정임의 얼굴을 그려보시는 그이의 눈빛에 부드러움이 흘러넘치시었다.

한동안이 지났을 때 귀에 익은 목소리가 수화기의 진동판을 울렸다.

《리정임이 전화받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김정일입니다.》

《장군님, 옥체건강하십니까? 장군님께서 고목이다 된 이 늙은이에게 생일상을 보내주신것이 너무 고마워 온밤 장군님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화까지 걸어주시니 그저 꿈만같습니다.》

환희를 터치는 녀투사앞에 그이께서는 따듯이 말씀하시었다.

《어머니, 앞으로는 자식들과 손자손녀들의 축하를 받으며 오래오래 앉아계십시오.》

《장군님...》

녀인은 우는지 말을 잊지 못한다.

그이께서는 다심한 어조로 정임에게 물으셨다.

《어제 사단장을 하는 아들내이가 올라왔겠습니까?》

장군님의 다심한 물음속에 녀인은 활기를 띠었다.

《장군님, 그 애들이야 나라에 바친 몸들이 아닙니까. 그 애들이 제 생일을 앞두고 전화를 걸어왔을 때 말을 좀 해주었습니다.》

《너희들은 제 말은 일들이나 잘해라. 그것이 어머니를 기쁘게 해주는 일이다.》 하고 말입니다.》

그이께서는 빙그레 웃으시었다.

《그러니 사단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장군님, 그 애가 하는 말이 사실은 〈오중흠 7련대〉 판정이 있어서 갈 형편이 못되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리해하여주니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중흠 7련대〉 판정에서 우를 맞는 것으로써 어머니의 생일을 축하하겠습니다 하는것이였습니다.》

나이에 비해 젊음이 느껴지는 뚱뚱한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울렸으나 장군님께서서는 웃음으로 화답하실수가 없었다. 한생을 혁명에 헌신해온 녀투사가 고향의 나이에도 자식들에게 한가정의 일보다 나라일을 먼저 생각하도록 떠밀어주는 그 마음이 눈물겹게 안겨왔다. 그럴수록 사단장이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에게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것 같아 못내 서운하시였다.

사단장의 눈으로 볼 때 정임은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이기 전에 혁명의 먼길을 변함없이 걸어온 로세대였다. 그런 어머니앞에 로세대의 한생을 추억하며 추배잔을 부어드릴 시간적여유가 그렇게도 없단 말인가.

그이께서는 정임에게 다른 말씀을 더 하시려다가 그의 건강만을 당부하신 후 송수화기를 내려놓으시였다. 리정임과의 대화는 그것으로 끝내셨지만 사단장에게는 자신의 심정을 터놓고싶으시였다.

그이께서는 그가 앞에 있더라도 한듯 심중에 고이는 생각을 이어나가시였다.

사단장은 전사들을 책임진 지휘관이다. 전사들이 지휘관의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라도 그대로 본받고 따르려 한다는것을 그가 모른단 말인가. 그래서 더욱 그를 긍정할수가 없으시였다.

하늘의 행성들이 자전하면서 자기의 궤도를 따라 태양의 주위를 돌듯이 인간도 가정이라는 생활의 궤도를 타고 시대와 혁명을 전진시켜나가는것이다. 그것이 혁명가의 인생이다.

그이께서는 사단장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싶으시였다.

어제 밤 전선에서 돌아오신 장군님이시였지만 그를 생각하자 마음은 또다시 전선으로 달리시였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한시도 떠난적 없는 전선이였고 사랑하는 병사들이였다.

그이께서는 시계를 보시였다. 지금 이 시각도 그들은 최고사령관을 기다리며 훈련을 다그치고있을것이다.

그이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였다.

야전차는 안개가 활짝 걷힌 거리를 따라 조용히 미끄러지기 시작하였다. 그이의 전선길을 축복하듯 태양이 아낌없는 해살을 뿌리고있었다.

3

집안식구들이 직장에 출근하느라 저저마다 바빠대문을 나서자 2층 집은 금시 고요해졌다. 집에 혼자 남은 정임은 습관대로 물뿔개를 찾아들었다.

정원에 나가 꽃모들에 물을 주고난 그는 의자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리였다. 그러나 마음은 좀체로 진정되지 않는다. 아침에 장군님께서 걸어주신 전화를 받은 일이 그저 꿈같기만 하였다.

정임은 아기손가락만 하게 자란 꽃모들을 정겹

게 바라보았다. 꽃들과 인연을 맺은지도 십년세월이 되여온다. 인제는 뽕족뽕족 돌아나는 어린 싹을 보고서도 이건 무슨 꽃 또 저건 무슨 꽃 하고 이름을 알아맞힐수가 있다.

녀인들은 젊음과 사랑을 위해서 꽃을 가꾼다지만 인생의 분수령을 넘어선 자기의 경우에는 여생을 가꾸기 위해서라고 할수 있었다. 꽃이야말로 정임에게는 여생의 락이요, 기쁨이였다.

그런데 그 꽃이 정임을 목놓아울게 한적도 있었다.

온 나라가 눈물의 바다에 잠겼던 7월의 비오는 저녁 만수대언덕에 갔다온 그밤 뜻밖에도 장군님께서 그에게 전화를 걸어주시줄이야.

억수로 쏟아지는 소나비를 고스란히 맞으시며 만수대언덕우에 오르신 장군님께서서는 흰 꽃송이로 엮은 화환에 눈길이가시였다. 땀의 글에서 리정임의 이름을 보시는 장군님의 가슴은 에이는듯 아프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의 향기를 풍겨드리려고 정성껏 키운 꽃이 비애의 언덕에 놓이게 될줄을 그가 상상이나 했으랴. 그리하여 대리석층계를 내리시자 정임에게 전화를 걸어주신 장군님이시였다. 그러나 정임은 크나큰 상실의 아픔을 당하신 장군님께 위로의 말씀 한마디 드리지도 못하고 그저 흐느껴울기만 하였었다.

장군님께서도 그의 흐느낌소리를 들으시다가 송수화기를 도로 놓으시였었다.

정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안해준것은 술재령의 처녀병사들이였다. 해마다 7월이 오면 평양으로 오는 차들에 들꽃뭉음을 실어보내준 하는 그들에게 정임은 지난해 가을에도 고운 꽃씨를 받아 보내주었다.

술재령으로 생각이 가닿자 정임은 그리움이 북받쳐올랐다.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였다.

전선길에서 보내주신 생일상 그리고 아침녘에 걸어주신 사랑의 전화...

인정이 넘치신 그이의 모습이 가슴을 파고든다. (장군님께선 지금 어디에 계실가?)

인민의 행복을 위함이라면 천리길도 만리길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장군님이시다. 신문과 텔레비죤화면에서 그분의 모습을 뵈올 때면 정임의 눈앞에는 저도 모르게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이 어려와 눈시울을 적시군 했다.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뵈올 때면 아버지를 그리던 어린 소녀들마냥 기쁨에 울고 웃던 녀투사들이 아니였던가.

지금도 그때 일이 눈에 선하다.

...전후복구건설이 끝나고 사회주의기초건설이 한창이던 어느해 여름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녀투사들을 몸가까이 불러주시였다. 상봉의 기쁨에 휩싸여 눈시울을 적시는 녀투사들을 다정히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뜻밖에도 이런 말씀을 하시느것이었다.

《나는 동무들을 대할 때마다 속에서 내려가지

않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산에서 싸울 때
령하 40도를 오르내리는 추위와 강설속에서 빨래
를 하고 마른 풀뿌리를 캐느라 동무들이 손을 얼
구던 일 그리고 살을 에이는 만주바람에 꽃같은
얼굴이 터갈라지던 일들이었습니다. …》

녀투사들은 눈가에 웃고름을 가져갔다. 항일
의 나날 어느 전투에선가 남대원들이 쌀 한집이라
도 더 지고오려고 크림과 분이 들어있는 로획품상
자를 버리고 온것을 못내 아쉬워하시던 수령님의
모습이 어려왔던것이다. 얼마나 가슴에 맺히시
였으면 그 수많은 사연들중에서 그 일을 잊지 못
하고계시는걸가?

사실 그때 전장에서 싸우던 녀투사들치고 크림
이나 분을 얼굴에 대어본 녀대원들이 있었던가.

수령님께서서는 그후 전투를 조직할 때마다 지휘
관들에게 특별과업을 주곤 하시였다. 화장품이 들
어있는 로획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고올데 대한
과업이었다. 그래서 언젠가는 녀대원들에게도 크
림이나 분이 한가지씩 차례졌던적이 있었다.

세월은 멀리 흘러왔어도 그날의 옛 추억을 어찌
지워버릴수가 있랴.

…조국으로 진군하던 길에서 하루밤을 묵었던
신사동목재소 로동자의 집.

그때 김정숙어머님께서서는 정임과 함께 그 집에
드시였다. 다 찌그러져가는 추녀낫은 오막살이
에는 늙은 로동자와 그의 어린 딸이 살고있었다.
쪼들린 살림을 말해주듯 땀질투성이의 쌀독에는
거미줄이 끌어있었고 일에 시달린 처녀애의 마디
진 손은 거북등마냥 터갈라져있었다. 아프신 마음
으로 집안살림도 돌아보시고 처녀애의 험한 손도
쓰다듬어주시던 어머님께서서는 배낭끈을 푸시고 배
낭속에 깊이 간수해넣으시였던 크림팩을 꺼내여
그의 손에 꼭 쥐여주시였다. 정임의 눈에 익은 그
크림팩은 어머님의 배낭안에서 그중 값진 소지품
이었다.

《정숙동지, 그것만은…》

눈물이 가장가랑 맺혀 만류하는 정임에게 미소
를 지으시며 어머님께서서는 말씀하시였다.

《정임동무, 걱정말아요. 이제 나라를 찾으면
우리도 이런 크림을 짹짹 만들어내게 될거예요.
그때 우리 오늘을 추억하며 마음껏 써보지요.》…

흘러간 세월이 남겨놓은 추억에 마음을 적시고
있을 때 수령님의 감회에 젖은 음성이 정임의 귀
전에 울려왔다.

《동무들은 녀성의 몸으로 제 얼굴의 아름다움
을 가꾸기에 앞서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하여
온갖 고생도 달게 여기며 싸워온 조선의 훌륭한
딸들입니다. 이런 동무들을 곱게 단장시켜 내세워
주지 못한것이 늘 내 가슴에 맺혀있었습니다. …》

녀투사들은 소리내여 흐느껴울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손수건을 눈물로 적시는 녀

전우들을 미더운 눈길로 한사람한사람 둘러보시다
가 그들의 손에 작은 유리단지 한개씩을 쥐여주시
였다. 연분홍비닐뚜껑을 씌운 유리단지에는 《인
삼크림》이라고 쓴 상표가 붙어있었다.

《울지들 마오. 비누밖에 만들지 못하던 우리
나라에서 이렇게 좋은 화장품이 나왔는데 얼마나
기쁜 일이요. 세계에는 몇백년의 화장품생산력
사를 가진 나라들도 있지만 귀한 약재로 소문난
인삼을 가지고 크림을 만든 나라는 아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화장품생산의 첫걸음을 내디
딘 우리 로동계급이 이처럼 훌륭한 인삼크림을 만
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함께 나누자고 동무
들을 불렀소.》

정임은 《인삼크림》이라는 네글자가 또렷이 새
겨진 유리단지를 품에 꼭 껴안았다. 그리고는
항일의 녀장군을 목매여 불렀다.

(정숙동지, 기뻐하세요. 수령님께서 정숙동지가
바라던 그 소원을 풀어주셨어요.)…

세월이란 참 빠르기도 하다.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경공업부문사업의 중임
을 맡아안고 일해오던 시절이 인제는 옛일로 되
었다.

넓은 집에서 손자손녀들의 응석을 받아주는 재
미와 꽃 키우는 재미로 늙어가는 자신이였다. 몸
은 늙어도 정신만은 늙지 말자고 했던만 텔레비존
방송기자인 손녀딸에게서 가끔 락후하다는 말을
들을 때도 있었다.

류달리 신식차림을 좋아하고 화장품에 대한 기
호가 높아 늘 정임의 불만을 사곤 하는 손녀딸은
어느날 텔레비존방송에 내보낼 자기의 기사를 할
머니에게 들고왔었다. 거기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바다가초소의 녀성중대를 찾으시고 사
랑의 약크림을 보내주신 전설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었다.

《애야, 장군님께서 정말 총잡은 처녀군인들의
얼굴까지 근심하셨단 말이지?》

《그뿐이 아니예요. 화장품공장을 찾으셨던
장군님께서서는 화장품의 질을 더욱 높이는것은 오
늘 우리 시대 녀성들의 문화적인 요구라고 하시면
서 입술연지도 그들의 나이와 얼굴색 그리고 기호
에 따라 고를수 있게 여러가지 색깔로 만들어주라
고 말씀하셨대요.》

정임은 장군님의 사랑이 자기 몸에도 와닿은듯
가슴이 훈훈해왔다.

손녀딸은 그의 목에 두팔을 감고 속삭였다.

《할머니, 그러니 인젠 할머니의 꾸중을 안 들
어도 되지요?》

응석기쉬인 손녀딸의 말에 정임은 자기의 《락
후성》을 인정하지 않을수가 없었다.

《그래그래, 다시는 널 탓하지 않으마.》

그날 밤 정임은 잠들지 못했다. 처녀병사들과

약크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을 아름답게
내세워주시려는 그이의 불같은 사랑...

나이가 든것이 한스러웠다. 젊은 시절로 되돌아
갈수만 있다면 다시 군복을 입어보는건데 하는 이
룰수 없는 미련에 사로잡히기까지 했었다.

여생은 추억의 샘이라고 누가 말했던가. 정임에
게는 추억이 여생의 일파이기도 했다. 젊었을적에
는 해야 할 일이 많기도 쌓여 추억에 잠길 시간
적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나이가 많아지면서 추억
은 그에게 생활의 돌도 없는 벗으로 되었다.

세월의 이끼속에 갈피갈피 묻혀있던 그 추억의
화폭들은 때없이 깃을 털고 빛 한점 바래지 않은
자기의 모습을 정임의 눈앞에 펼쳐보이곤 하였다.

지금도 꽃모판앞에서 여생의 《일과》에 시간을
뺏기고있을 때 대문밖에서 승용차가 벗어나는 소
리가 들려왔다. 문이 열리더니 김웅범의 우람한
자태가 나타났다. 실눈을 짓고 대문밖을 바라보던
정임의 눈가에 반가움이 확 비졌다.

《부부장동무, 이게 얼마만이에요. 그러지 않아
도 방금 부부장동무와 함께 일하던 시절을 돌이켜
보던 참이었어요.》

김웅범은 상봉의 기쁨으로 어쩔줄 몰라하는 정
임의 작은 몸을 부축하며 의자에 앉히고 자기도
그결에 나란히 앉았다.

《정임동지, 저도 정임동지가 보고싶었습니다.》

정임은 머리칼이 희숙한 녀전우의 아들을 새삼
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의 어머니와는 해방
후 보통강개수공사장에서 첫 인연을 맺었었다.

김정숙어머님을 모시고 공사장에 나갔을 때 어
린애를 등에 업은채 감탕버치를 머리에 이고 뛰어
다니던 녀인...

세월은 그 녀인의 아들인 김웅범의 머리에 흰서
리를 다복다복 얹어놓았다.

《정임동지.》

김웅범의 목소리에 정임은 상념에서 깨어났다.

《정임동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일이 있어서 찾
아왔습니다.》

예돌줄 모르는 성미그대로 김웅범은 장군님의
의도를 헤아리지 못하여 석두산지구로 반복걸음을
하게 된 사연이며 바로 오늘 아침 장군님의 집무
실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장군님께서 3.8절에 대하여 외우셨단 말이
지요?》

《예.》

정임의 물음에 김웅범은 머리를 끄덕이였다.

따스한 봄별이 박막을 벗겨놓은 꽃모판에 아지
랑이를 피워올리고있었다. 정임은 봄별아래서 키
솟음을 하고있는 어린 꽃모들에 유정한 눈길을 보
내며 생각을 모았다. 그러나 짐작이 가지 않았다.
안타까운 생각은 사업을 마무리짓던 시절에 주
역의 노를 저어주었다.

《부부장동무, 장군님을 모시고 동행하던 때
에도 난 장군님의 의도를 헤아리지 못하여 걱정을
드린 일이 있었어요.》

...정임은 새 세기를 맞는 조국에 화장품공장을
멋쟁이로 일신시켜 내놓으려고 결심하였다. 그
리하여 년로한 몸이었지만 공장의 현대화에 시간
과 정열을 쏟아부었다. 그는 그것이 자기 사업의
보람찬 총화로 될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공장
을 현대적으로 꾸려놓은 후 장군님을 공장에 모
시였었다.

그런데 무척 기뻐하실줄 알았던 그이께서는 내내
신중한 표정을 지으신채 공장을 돌아보실뿐이였다.

(무엇때문에 그러실가?)

정임은 혹시 놓친것이 없는가 하여 공장안팎을
다시금 둘러보았다. 눈처럼 하얀 건물벽체며 색고
운 타일을 붙인 알뜰한 작업장들, 윤기나게 닦아
놓은 설비들...

장군님께서 공장을 떠나실 립박에야 정임은 사
연을 알게 되었다. 번잡한 도시의 한가운데에 자
리잡고있는 공장의 위치때문이었다.

여성들에게 아름다움을 보태주는 화장품이 티끌
만 한 환경오염이라도 받을세라 마음쓰시는
장군님의 다심하고도 웅심깊은 해아림에 눈곱이
젖어들었다. 정임은 비로소 자기의 실책을 깨달았
다. 도시에 자리잡은 공장으로서 도시의 얼굴답게
꾸리려고만 했던 자기가 아니었던가. ...

물기를 함뱉 머금은 꽃모들은 여전히 그들의 발
치에서 한가로이 해목욕을 하고있었다.

《정임동지, 언젠가면 우리가 장군님의 그 웅심
깊은 마음을 따르게 될가요?》

김웅범은 오늘 아침 장군님께서 3.8절이 다
가온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리정임이 알고있기
나 한듯 간절한 눈빛을 녀투사에게 보냈다.

정임은 지그시 눈을 감았다.

(그이께서 녀성들의 명절을 기억하고계신다.)

정임은 김웅범에게 도움이 될만 한 생각을 골라
보려고 애를 썼으나 끝내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의 이마언저리에서 하얀 머리칼 몇오리가 해
빛에 반짝이였다.

《정임동지야 장군님께서 3.8절에 대하여 말씀
하신 뜻을 짐작이라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임은 자기에게 녀성임을 강조하며 안타까이
묻는 김웅범의 심정을 알고도 남음이 있었지만 시
원한 대답을 찾을수가 없었다.

혹시 장군님께서 3.8절을 녀성들의 명절답게 잘
쇠게 해주시려고 그런 말씀을 하신건 아닐가.

정임이 자기의 속생각을 터놓자 김웅범은 그에
게로 바싹 다가갔으며 성급히 물었다.

《정임동지의 생각엔 3.8절날 녀성들에게 어떻
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정임은 얼굴에 홍조를 띠웠다.

《글쎄, 뜻밖의 질문을 받고보니 뭐라고 대답했으면 좋을지 모르겠군요. 예로부터 우리 여인들은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일신을 바치면서도 그것을 고생으로 생각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수고에 대해 아무런 보수도 바라지 않았구요. 집안사람들이나 함께 일하는 동무들로부터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만 들어도 거기에서 큰 힘을 얻고 보람을 찾는 우리 여인들이랍니다. 그러니 그들이 큰것을 바라겠나요? 내 생각엔 그날을 여성들의 휴식일로 정해준다면 그들이 좋아할것 같군요.》

《명절휴식 말이지요?》

김웅범의 눈가에는 회심의 표정이 어렸다.

《그게 좋을것 같습니다. 휴식을 줄바에는 이왕 통이 크게 명절을 축하해주도록 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통이 크게요?》

미소를 띤 정임의 눈에 호기심이 비끼는것을 보면서 김웅범은 머리를 끄덕이였다.

《평양시와 지방의 식당망들에서 그날 여성들에게 푸짐한 음식상을 차려주면 그들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김웅범의 제의에 정임은 마음이 흐뭇해졌다.

《아유, 그럼 부엌일을 맡아안고있는 우리 여인들이 그날 〈왕후〉가 되겠군요. 〈여봐라, 어서 진지상을 들어오너라.〉 하고 호기를 부려보게 될테니 말이에요.》

정임의 우스개소리에 김웅범은 껄껄 웃었다. 제 말이 우스워 정임도 따라웃었다.

《정임동지가 좋아하시는걸 보니 저도 마음이 놓입니다.》

《부부장동문 우리 여인들을 호사시킬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날 찾아오셨군요. 정말 고마워요.》

정임의 진심에 넘친 말에 김웅범은 머리를 흔들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절 도와준 정임동지가 고맙습니다.》

작별인사를 나눈 후 김웅범은 차에 올랐다.

4

아직은 동이 트지 않은 새벽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여러날에 걸치는 전시찰을 마치시고 집무실에 들어서시였다.

집무탁우에 쌓인 문건들이 밤길을 달려오신 그이께 피로를 덧쌓아놓는다. 하지만 시간을 분파초로 쪼개가며 일하셔야 함을 자신의 요구로 여기시는 그이이시기에 눈을 붙일수가 없으시였다.

하루의 첫 사업을 시작하시려고 집무탁을 마주하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맨우에 놓여있는 문건을 손에 드시였다.

최근 세계통신자료였다.

각국 여성들에 대한 소식이 여느때없이 많이 실린것이 그이의 눈길을 끌었다. 최하층의 생활난에 허덕이는 여성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국제적회의, 초보적인 인권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항의시위, 여성범죄, 자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전인류적과제들 가운데서 여성해방문제는 결코 무시할수 없는 역사적과제로 남아있다.

한세기전 여성들은 자기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사회적불평등에 항거하여 투쟁의 불을 지펴올렸다.

그것은 인간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여성들의 첫 투쟁이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투쟁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제연단에서 이날을 《국제부녀절》이라 명명하였다.

그때로부터 인류는 자기의 창조물인 력서에 3월 8일을 전세계 여성들을 위한 날로 정하고 년년이 기념해오고있다. 피복공장 여성로동자들이 웨친 그 피의 절규가 이제는 한세기를 가까이 하고있지만 오늘도 의연히 여성들의 운명문제는 인간생활의 구석구석에 어두운 그늘을 던지고있다.

글은 이런 문구로 종지부를 찍었다.

—인권문제의 초점을 모으고있는 여성문제가 과연 어느 세기에 가서야 해결을 선포하게 될 것인가?

인류여, 세계여, 우리의 연약한 천사들—여성들을 가없이 여기시라 그리고 동정하시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자료를 다 읽고나시였을 때 김웅범이 집무실에 들어섰다. 그이께서는 새벽인사를 올리는 김웅범을 반가이 맞아주시며 자리를 권하시였다.

《기다렸소. 방금 올라온 텔레비죤편집물을 함께 보자고 불렀습니다.》

김웅범은 호기심을 누르며 자리에 앉았다.

(어떤 편집물이길래 부르시였을가?)

화면이 펼쳐지자 그의 호기심은 의아함으로 바뀌었다. 그 편집물은 경공업부문사업을 취급한 내용이 아니라 여성들의 투쟁과 위훈을 보여주는 내용의 소개편집물이였다. 자기 사업분야를 벗어난 편집물이여서 그는 판중의 한사람으로서 편집물을 감상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복을 누려온 우리 여성들이 오늘 선군시대의 당당한 창조자가 되여 인생을 보람차게 가꾸가는 내용을 담은 편집물은 감동적인 장면들로 엮여져있었다.

그중에서도 제일 인상에 남는 장면은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가정과 나라앞에 놓인 무거운 짐을 그 작은 어깨우에 스스로 걸머지고 무릉도원을 일떠세운 자강도녀인들의 투쟁모습이였다. 이른새벽 진거름을 실은 밭구를 끌고 눈덮인 농장포전으로 나가던 가두의 녀맹원들 그리고 불리한 산골기후조건에서도 기어이 세뼉농사를 성공

시킨 여성관리위원장...

그들은 장군님께서 잊지 못해하시는 자강도의 여성들이었다.

《부부장동무, 어떻습니까?》

그이께서는 방영이 끝나자 웅범에게 이렇게 물으시었다. 김웅범은 자기가 받아안은 감동을 사실대로 말씀드렸다. 그의 대답을 긍정해주시듯 장군님께서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시었다.

《저 편집물은 텔레비존방송의 촉망되는 녀기가 만들었습니다. 그 동무는 내가 잘 아는 사단장의 딸입니다.》

김웅범도 그를 알고있었다. 이정임의 손녀인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기자로 활동한지 얼마 되지 않지만 벌써 여러건의 쟁쟁한 기사를 써내어 실력자로 인정받고있었다.

《보시오. 오늘 우리 여성들은 아무곳에 세워놓아도 남자들 못지 않게 자기의 몫을 해나가고있습니다. 우리 선군시대는 바로 이런 여성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투쟁으로 힘차게 전진해가고있습니다. 얼마나 기특한 여성들이니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잠시 말씀을 끊으시었다.

현지지도의 길에서 만나보신 유명무명의 여성들 중에서 한 처녀선반공의 모습이 눈앞에 선히 떠오르신다. 깡장머루마냥 유난히도 눈이 검은 선반공 처녀...

《나는 방금 저 편집물을 보면서 강계의 처녀선반공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

...그날 처녀는 뜻밖에도 경애하는 장군님을 뵈어선 기대앞에서 맞이했다. 고장난 기대를 그이께 보여드리게 된것이 너무도 안타까와 처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랑가랑 맺혀있었다.

그러는 처녀를 한동안 바라보시던 장군님께서 기대결을 떠나시었다. 그의 등을 다정히 두드리주며 힘을 주고싶으셨지만 그가 울가봐 그냥 떠나오신것이였다.

며칠후 평양으로 돌아오신 장군님께서 공장지배인을 전화로 찾으시었다.

《지배인동무, 고장난 기대를 고치느라 애를 쓰던 처녀선반공의 모습이 속에서 내려가지 않아 전화를 걸었소. 그는 나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였는데 그때 그의 입술은 부르터있었고 얼굴은 까실까실해보였습니다. ...》

장군님께서 그때의 광경이 눈앞에 어려오자 말씀을 더 이을수 없으시었다.

《장군님, 그 동무의 어머니는 공장을 찾으시였던 어버이수령님께 꽃다발을 드린 녀인이였습니다. 고급기능공이던 어머니가 기대앞에서 순직하자 그 동문 어머니를 대신하여 그 기대를 맡아안았습니다. 그가 아직 기능은 어리지만 어머니의 넋이 스민 선반을 훌륭히 다루겠다는 결심만은 확고한 동무입니다. ...》

지배인은 장군님께 그날에 있는 일을 그대로 말 씀올렸다.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그날 처녀는 자기 기대를 찾아주신 장군님께 꽃다발을 드리지 못한것이 너무도 서운하여 온밤 흐느껴울었다. 그러는 그를 달래며 지배인은 처녀와 이런 약속을 하였다.

《순금아, 아버지장군님께서 우리 공장을 다시 찾아주실 때 어머니처럼 훌륭한 기대공이 된 너의 작업모습을 보여드리자꾸나. 그때 네 손으로 엮은 꽃다발을 아버지장군님께 드려라.》

...

심중에 고이 간직하셨던 소중한 추억을 김웅범에게 터놓으신 장군님께서 두손을 한데 모아 집 무탁우에 올려놓으시었다.

《부부장동무, 순결하고 강의한 우리 여성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압니까? 그들에게 안겨줄 가장 값높은 표창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전선길을 달리는 차안에서 밤하늘에 무수히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볼 때면 만일 그 별이 우리 여성들을 아름답게 가꿔주는 진주보석이라면 그 별들을 모조리 따다가 그들의 가슴에 듬뿍 안겨주고싶었습니다. 공장과 농장벌을 찾아가는 길에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한적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복을 안아오는 금방석이 있다면 나는 온 세상을 뒤져서라도 꼭 찾아내어 시련을 헤쳐오느라 고생을 많이 해온 우리 여성들을 그 금방석우에 얹혀주고싶습니다.

소박하고 근면하고 사심을 모르는 그들은 나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집 재산이 늘어나는데서 행복을 찾은 것이 아니라 나라가 허리를 펴고 흥해가는데서 자기들의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이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었다. 무게가 실린 걸음으로 창결에 다가서신 그이께서는 두손을 허리에 얹으시었다.

멀리 하늘끝에서 노을이 피어오르고있었다.

연분홍빛으로 타오르는 노을을 감개에 젖어 바라보시던 장군님께서 담담한 어조로 말씀을 계속하시었다.

《드디어 봄이 왔구만. 새봄이 말이요. 이 봄을 여성들이 제일 기다리곤 하지.》

불현듯 한쪽의 명화가 시야에 안겨들었다.

...진달래가 만발한 압록강기슭, 그 봄밤 청봉의 우등불가에서 조국의 진달래를 한아름 안으신 어머니께서 녀대원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신다.

...

칼바람 추운 겨울 물러갈 때에
꽃피워줄 붉은 바람 일어났도다

...

꽃다운 청춘을 바쳐 해방의 봄을 안아온 항일의
녀투사들...

봄의 서정에 잠기신 장군님의 눈빛에 부드러움
이 흘러넘치었다.

《이제는 누구도 우리 여성들한테서 봄을 앗아
내지 못할거요.》

멀리 지평선에서 려명이 밝아오고있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문득 김웅범을 향하여 몸을
돌리시었다.

《부부장동무, 나는 깨끗하고 열렬한 헌신으로
이 땅에 새봄을 안아온 그들에게 3.8절을 기념하여 뜻이 깊은 선물을 안겨주자고 합니다. 여성들이 제일 좋아할 그런 선물이 무엇이겠는지 부부장동무가 생각해둔 안은 없습니까?》

장군님께서 그의 대답을 기다리시듯 김웅범을
응시하시었다.

봄, 그 봄을 맞으며 여성들에게 안겨줄 선물, 그
선물의 의미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김웅범은 한
순간에 다 음미할수가 없었다. 그이의 따스한 눈
빛에 이끌리어 리정임과 이미 토론해두었던 안을
보고드리었다.

《그러니 그날 여성들에게 휴식도 시키고 푸짐
한 점심상도 차려주잔 말이지요.》

혼자말씀처럼 조용히 되뇌이신 장군님께서 천
천히 집무실을 거닐기 시작하시었다. 한자국 또
한자국... 사색속에 걸음을 옮기시던 그이께서는
온화한 표정을 지으신채 말씀을 이으시었다.

《부부장동무도 알다싶이 3.8절에는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남동무들이 녀동무들을 축하하여
꽃송이도 안겨주고 점심때에는 식당에 함께 가서
국수도 대접해주고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녀동무
들은 자기들의 수고를 헤아려주는 남동무들의 성
의가 고마와 일을 더 많이 할 결의도 가다듬군 한
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지요. 휴식문제
도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명절휴식을 준다고 해도
남편과 자식들이 직장과 학교로 가고나면 집이 비
어있겠는데 그들이 빈집에서 휴식할 맛이 있겠습
니까. 그들은 휴식을 하라고 해도 밀린 가정일을
하느라 편히 쉬지도 못할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장동무?》

그이의 물으심에 웅범은 솔직히 고백하였다.

《장군님, 전 미처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장군님께서 그의 마음을 헤아려주시듯 고개를
끄덕이시다가 다시금 물으시었다.

《3.8절을 맞는 여성들을 더 기쁘게 해줄 좋은
안이 또 없겠소?》

그이의 진지한 물으심에 김웅범은 더 좋은 안을
생각해두지 못한 자신을 끝없이 후회하였다.

이 세상의 가장 좋은것을 고르고골라 봄을 맞는
여성들에게 안겨주고싶어하시는 장군님의 한량
없는 사랑의 세계에 자기의 생각을 따라세우지 못

하는것이 송구스럽기만 하였다.

《부부장동무.》

장군님께서 우렁우렁하신 음성으로 김웅범
을 찾으시었다.

《방금전 동무도 텔레비죤편집물을 보았지만 우리
조선여성들이야말로 그 어느 나라의 여성들보다
순결무구하고 아름다운 정신의 소유자들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할수 있습니다. 수령님의 품에 안긴
그날부터 그들은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힘있게
떠밀어왔으며 우리 조국을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
세우는데서 자기 몫을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우리
수령님께서 것처럼 아끼시고 보살펴주시던 이런
여성들을 어떻게 하나 아름답게 가꾸어주고싶은것
이 오래전부터 품어온 나의 소원이었습니다.

나는 3.8절을 맞으며 그들에게 〈봄향기〉를 선
물하려고 합니다.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 나오는
최고급화장품을 말입니다.》

쿵!

어디선가 봄우뢰가 울었다. 봄의 태동을 알리는
그 우뢰소리는 하늘땅이 맞붙은 지평선으로 끝없이
메아리쳐갔다.

이 시각 **김정일** 동지께서는 백두의 령봉에 서계
시듯 거연히 서시어 열정이 빛발치는 시선을 봄
하늘가에 보내고계시었다.

무아경에 빠진 사람마냥 그이를 우리르는 김웅
범의 뇌리에는 불시에 7년전의 그 해쓷은 아침이
떠올랐다.

석하천제방쪽우에서 야전복자락을 기폭처럼 날
리시던 그이께서 어찌하여 그 걸음으로 화장품공
장을 찾아주시였는지 그리고 공장에서 생산한 첫
화장품에 왜 《봄향기》라는 이름을 친히 달아주
셨는지 비로소 깨달아지는듯싶었다.

김웅범은 아직 그 시간과 날들에 바쳐진 이 나
라 아버지의 사랑의 세계를 다는 알지 못했다. 이
땅의 평범한 녀인들, 어머니들과 안해들이 받아안
게 될 그 사랑의 시각은 한초한초 밀물처럼 조용
히 다가오고있었다. 그날은 3월 8일을 며칠 앞둔
평범한 날이었다.

동평양대극장의 지붕너머로 울려퍼지던 감격
의 환호성이 밤의 고요속에 잦아들고 또다시 새
날이 밝아올무렵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방
금 신의주에서 돌아온 김웅범을 반갑게 맞아주시
였다.

《갔던 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이의 물으심에 김웅범은 자초지종을 말씀
드렸다.

《장군님, 신의주화장품공장동무들은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화장품값을 받는것은 아버지
한테서 값을 받아내는 불효자식과 같은 행동이라
면서 자기들의 심정을 편지에 담아 장군님께 올

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군님께서 그 돈을 다시 공장에 내려보내주셨으니 이런 송구스러운 일이 어데 있겠느냐며 어쩔줄 몰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겨우 설복시키고 돌아왔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들이 많은 량의 화장품을 하루 이틀사이에 만드느라고 수고가 많았는데 화장품값을 물어주는것은 응당한 도리입니다.》

그이께서는 마음이 놓이신듯 김웅범을 향하여 환한 미소를 보내시며 그의 앞에 문건을 내놓으시였다. 3월 8일 저녁 조선중앙텔레비죤방송 안테나에 초점을 맞추었던 위성통신들의 자료였다. 거기에는 이런 글들이 써여있었다.

...

—2008년 3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령도자께서 3.8 국제부녀절을 맞는 조선녀성들을 축하하시여 동평양대극장에서 성대한 공연무대를 마련하시고 공연이 끝난 후 전체 관람자들과 출연자들에게 최고급 화장품인 《봄향기》를 선물하시였다.

—이틀전 이 나라의 신의주—평양행 철길로는 최고사령관의 명령으로 화장품을 실은 특수열차가 질주.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는 남들이 다 자는 새벽 3시 특수열차를 기다리시고 평양에 도착한 즉시 친히 그 견본품을 보아주시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는 《봄향기》화장품을 생산한 공장로동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고 녀성들에게 선물하신 화장품값을 자신의 돈으로 물어주시는 사랑을 창조하시였다.

김웅범은 다음장을 번지였다. 낮익은 통신기자의 이름을 보는 순간 그는 7년전에 보았던 이런 글이 머리에 되새겨졌다.

—남신의주에 신의주화장품공장을 새로 건설한것은 철저한 위장이다.

화장품공장이 아니라 미싸일공장과 같은 중요군수공장이 비밀리에 건설되었을것이다.

그때 세계는 조업을 선포하지 않은 신의주화장품공장을 두고 이렇게 억측했었다.

김웅범은 호기심을 가지고 글줄에 눈길을 모았다.

—7년전 우리의 주의를 끌었던 조선 남신의주에서 《봄향기》화장품이 쏟아져나온 현실앞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제력을 잃었다.

확실히 우리는 억측했었다. 하지만 우리는 억측하지 않았다.

조선은 분명 우주의 대공에 《봄향기》의 미싸일을 쏘올렸다.

김웅범은 달아오르는 가슴을 애써 진정하며 자기가 들고온 문건을 장군님께 드렸다. 여러 나라 대사관들에서 《봄향기》화장품을 자기들에게 팔아줄것을 요구하여 보내온 각서들이였다.

《장군님, 그리고 프랑스의 〈에리곤〉 회사가 〈봄향기〉 상표화장품을 세계시장에 내다줄것을 요구하는 확스를 보내여왔습니다. 비싼 값을 치르고서라도 상품전부를 다 사들이겠다고 합니다.》

김웅범의 보고를 들으시며 사색의 깃을 펼쳐가시던 장군님께서는 팔걸이에 앉으시였던 두손을 조용히 집무탁우에 올려놓으시였다. 못 잇을 그리움이 또다시 그의 심중에 추억의 문을 두드린다.

《부부장동무, 신의주화장품공장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쟁의 불길속에서 세워주신 공장입니다. 전쟁의 포화로 모든것이 폐허로 되였던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 그 공장을 찾으시였습니다. 그날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나도 그곳을 찾았던 일이 기억됩니다. 그때 공장이라는데 자그마한 단층집 몇채가 전부였는데 차광막을 씌운 건물안에서는 전선과 후방에 보낼 〈승리〉 표세수비누를 만들고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반세기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부부장동무도 알다싶이 오늘 우리의 화장품공업은 세계적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봄향기〉 화장품이 세계적인 상품으로 인정받게 된것은 전적으로 우리 수령님 덕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숫구쳐오르는 충동을 가라앉히시려는듯 잠시 말쑼을 꾸으시였던 그이께서는 심중에 물어두시였던 사연을 김웅범에게 들려주시였다.

《...언젠가 우리 수령님께서 개성인삼에 대해 말씀하신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령님께서 개성인삼이야말로 조선사람의 체질에 꼭 맞는 약초라고 하시면서 개성에서 재배하는 인삼을 화장품생산에 돌리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습니다.

우리 수령님은 바로 이런분이십니다.

부부장동무, 그 누가 우리에게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봄향기〉는 조선의 녀성들을 위하여 품기에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결심입니다.》

《!》

창밖너머에서는 해빛이 실실이 흘러내리고있었다.

김웅범은 아지랑이마냥 퍼져내리는 해살을 바라보며 무한한 격동에 휩싸였다.

《승리》표화장품과 《봄향기》화장품!

교향악의 첫 악장을 펼치는 북소리인양 《승리》라는 그 위대한 단어가 그의 심장을 세차게 박동시켜주는것이였다.

승리한 조국! 승리한 사회주의! 그 푸른 하늘가로 봄향기가 그윽히 풍겨가고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김웅범의 앞에 편지 묶음을 내놓으시었다. 거기에는 리정임의 편지도 들어 있었다.

웅범은 그의 편지를 읽어내려갔다.

《…

장군님, 저는 방금 아들이 부어주는 술잔을 받고 이 편지를 씹니다. 장군님께서 그 바쁘신 전선 길에서 저의 아들을 만나주시고 이 어미앞에 자식 된 도리를 지키라고 당부하신 이야기며 3.8절을 맞는 저를 축하해주라고 아들을 평양에 불러주신 사연을 전해들으며 백두산위인들의 품에 안겨 보내온 저의 한생을 돌이켜보았습니다. 태양처럼 따사로운 그 품이 아니었다면 해방전 고아소녀의 설움을 안고 동북땅의 정처없는 길을 방황하던 이 천덕꾸러기가 이처럼 세상복을 다 누리며 사는 행복을 받아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장군님께서는 이 봄날에 또다시 저에게 손녀딸과 똑같이 봄향기를 맡으며 살라고 사랑이 깃든 화장품을 안겨주셨으니 그저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

김웅범은 그들먹이 차오르는 걱정예 몸을 맡긴 채 다음편지를 집어들었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여성기자 일동》이라고 또박또박 박아쓴 편지였다.

그는 다시금 글줄에 눈길을 박았다.

《꿈결에도 뵈고싶은 아버지장군님.

…

우리는 기자이기 전에 여성입니다. 여성이기에 몸단장에 각별히 마음을 쓰며 여성의 아름다움을 돌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장군님께서 이어가시는 선군령도의 자욱을 따라 취재의 붓을 달리고 촬영기의 렌즈를 맞추는 나날에 여성의 몸치장에 앞서 자기 사는 고장과 일터를 더욱 아름답게 꾸려가는 훌륭한 여성들을 보면서 자신의 얼굴보다 마음을 더 깨끗이 닦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장군님께서는 우리들의 속마음까지 헤아리신듯 이렇듯 최고급의 화장품품을 선물로 안겨주셨으니 저희들과 우리 남편들은 장군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 남편들은 〈봄향기〉화장품을 보고 또 보면

서 자기들도 아직 안해의 생일날에 이런 최고급화장품을 쥐여준적이 없는데 아버지장군님께서 안해들의 명절을 축복해주셨다고, 자기들도 장군님의 축복을 받는 녀자로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보았으면 좋겠다고 부러워하고있습니다.

장군님, 이제는 우리 조선여성들이 세상에서 으뜸가는 녀성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을 행복의 절정에 올려세워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장군님은 진정 우리 조선여성들에게 영원한 봄을 안겨주신 태양이십니다.》

김웅범은 눈앞이 뿌옇게 흐려왔다.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에 잠 못이루며 고마움의 눈물로 붓을 적시었을 그들의 모습이 흐려진 망막사이로 어려왔다.

봄은 기다림의 계절이요, 희망의 상징이라고 누가 말했던가.

김웅범은 자기도 모르게 눈굽을 적시었다.

장군님께서 그 봄을 이 땅에 안아오신것이였다.

꽃을 피우고 향기를 풍기는 봄, 봄은 푸른 하늘 밑에서만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그윽한 향기를 풍긴다.

태양이 없이 어찌 푸른 하늘을 노래할수 있으랴.

김웅범은 문득 리정임을 생각했다. 꽃을 가꾸며 여생을 보내고있는 그가 한생의 총화에서 얻은 답이 이것이 아니였을가.

그의 이런 생각에 화답이라도 하듯 하늘에서는 태양이 밝게 웃고있었다. 그 하늘 아래에서 봄의 상징인양 아름다운 모습을 한 여성대오가 군상을 이루고있었다.

선군령장의 위대한 손길에 떠받들려 더욱 억세고 아름다워진 여성들이 대오를 지어 강성대국의 문을 향해 봄마중을 가고있는 모습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시었다.

3월의 산뜻한 바람이 집무실안으로 봄의 훈향을 실어왔다. 태양이 높이 자란 정원수의 가지들에 새움을 띄우고있었다.

가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 밑에서 봄이 무르익고 있었다.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

경 구, 격 언

- 같은 떡도 만며느리 주는것이 더 크다
- 며느리 미우면 발뒤축이 닭알같다고 나무란다
- 며느리가 미우면 손자까지 밟다
- 시어머니한테 팔세를 받아본 며느리라야 후에 며느리를 삼아도 팔세하지 않는다
- 얹힌한 며느리 시아버지밥상에 마주앉는다

- 무던한 며느리 아들맞잡이
- 열 시아우 밟지 않고 한 시누이 밟다
- 열집 사위, 열집 며느리 안되어본 사람 없다
- 미운 열 사위 없고 고운 외며느리 없다
- 며느리노릇 잘하는 녀인은 두 집 일에 눈을 감고 며느리노릇 할줄 모르는 녀인은 두 사이에서 말만 옮긴다

회령의 아 들 외 1편

리 호

군복을 입고 초소로 떠나는 이 아침
회령의 아들 이 신입병사
김정숙어머님을 우러러
첫 거수경례를 드리노라

유치원시절 선생님을 따라
오산덕에 올랐던 그날
어머님의 허리춤에 유난히 빛나는
백두의 권총을 오래도록 바라보며
춤에 첫질을 둔 이 아들

그리도 오고싶던 고향에
어이하여 항일의 군복 입고 서계시는지
그때는 내 미처 다 몰랐어도
어머님 유년시절의 설음과
눈물진 그 자옥우에
성장의 내 자옥을 새기며
마음도 키도 자란 나는 회령의 아들

물결 정다운 두만강 저너머
못 잊어 바라보시는 그 눈빛 따라
백두광야 혈전만리를 마음속에 걸어보며
참다운 애국
인생의 넋을 간직했기에

기뻐더라
《붉은청년근위대》의 제복입고

어머님의 사열속에 행진해갈 때
나도 그 품에서 어느덧
빨찌산 꼬마대원이 된듯싶어

기뻐더라
희망의 지평선에
인민군대라는 그 이름 뿔뿔이 새겨넣을 때
교정의 하늘에 가득히 비껴오던
따뜻한 그 미소 그 축복이
이 몸을 휩싸아주었기에

어머님 안겨주신
장군복 누리며 어엿하게 자란 몸
어머님 새겨주신
태양옹위 그 넋으로
청춘의 이 심장 만장약했기에
어머님 물려주신 백두의 총대는
내 손에서 불발을 모르리라

오 북무의 긴긴세월
마음은 언제나 오산덕에 세우고
장군님을 결사옹위할
선군병사의 숭고한 맹세도
값높은 위훈의 한생도
어머님의 뜻대로만 빛내여갈
아 나는 영원한 회령의 아들이여라

땅 우 의 나 루 배

(망 양 나 루 터 에 서)

빼앗긴 고향
빼앗긴 조국을 되돌아보는
류량민들 웅기종기 떠시고
눈물을 저어 설음을 저어
두만강을 헤쳐가던
망양나루터의 그 옛날 쪽배 한척

언제부터였거나
배사공의 탄식에 젖은 노대
건듯 배우에 들어올리고
여기 땅우에
사연깊은 유물로 떠있게 된것은...

몰랐더라 수난의 그 세월
어리신 우리 어머님
고향떠나 네우에 작은 몸 실었을제
고향 떠나는 비분과 함께
얼마나 큰 증오가 끓고있었는지

다는 몰랐더라
김장군 빨찌산 그 소식에
응어리진 가슴마다 희망에 넘칠 때
백두의 녀장군 이야기도 가득 싣고
나루배 흥겨이 떠가고 떠왔건만

아 해방의 그 감격
뜻깊은 회령땅을 진감하던 그 나날
어머님 생각으로 불타던 마음들이
이 땅우에 들어올리였나니
력사의 증견자로
영원히 두만강을 굽어보는 나루배여

그리움에 넘쳐
끝없이 물결쳐오는 가슴가슴마다에
나루배는 오늘도 떠가고있다
어머님의 그 사연 못 잊어 새겨주며
위대한 혁명가의 한생을 전해주며...

끝나지 않는 이야기

류 춘 선

한대 또 한대
강편을 밀어내며
압연장에 흐르는 시간을 재여볼 때면

들려와라
반세기전 압연장에 흐르던 이야기
못 잊을 그날의 수령님이야기

...

1만톤 강재증산의 무게가
이 땅에 무거웁게 실려오던 시련의 그날
강선땅 찾아오신 우리 수령님
공장일군들의 협의회는 끝났건만
여전히 사색의 굴줄을 달리시었네

나라의 외아들
강선의 분피압연기 공칭능력을 두고
거듭되던 토의와 열기띤 론쟁
누구도 넘어설수 없는 이 계선을 두고

나라가 허리를 펴는 이 계선
기어이 넘어서자면
압연기 가동일수를 늘이는 길
그러면 줄어드는 보수기일은?
오직 시간만이 결정할수 있었네

일군들도 몰랐네
누구도 몰랐네
수령님 깊어가는 사색속에 흘러가는
기적의 시간을

듣고계셨네

가 사

자신의 숨결속에 높뛰는
로동자들의 심장의 박동을
수령님은 이미 듣고계셨네

그날에
우리들과 무릎 마주하신 수령님
어려운 나라사정 터놓으시며
동무들만 믿는다고
손수 펼쳐드신 수첩속에서
하나하나 찾아내신
증산의 시간을 가르쳐주실 때
우리 가슴엔 불같은 맹세가 끓어올랐네

수령님 정해주신
그날의 시간속에
우리 삶의 모든것이 고동쳤고
그 시간속에
강선의 천리마가
천년 미래를 앞당기며 내려쳐올랐네

...

한대 또 한대
강편을 밀어내며
압연장에 흐르는 시간을 재여볼 때면
들려와라 반세기전 못 잊을 이야기

그날의 수령님 시간으로
강선의 봉화를 지펴주시어
강성대국승리의 날을 정해주신
우리 장군님 이야기로
영원히 끝나지 않을 강선땅의 이야기

선 군 과 평 화

김 석 천

평화란 환희로운 그 말을
우리는 힘겹게 외우노라
거리에 새 창문을 달 때도
마음의 총곤을 틀어잡네
포성없는 결전속에 행복을 가꿔가며
선군으로 지켜가는 이 땅의 평화여

귀여운 아이들의 눈빛에
푸르른 하늘만 비껴지라
사시절 이 나라의 방선엔

강철의 포신들 솟아있네
총대없는 우리 생활 생각지 못하기에
선군으로 지켜가는 이 땅의 평화여

이 땅에 상처입힌 전쟁은
아득한 옛말이 아니여라
침략의 원썩들이 있는 한
총대는 영원한 우리 생명
사회주의승리자로 값높이 살기 위해
선군으로 지켜가는 이 땅의 평화여

시인의 남다른 얼굴이 엿보이는 독특한 시형상

— 서정시 《총대레찬》에 대하여 —

장 소 영

서정시 《총대레찬》 [김형준 작, 《조선문학》 잡지 주체98(2009)년 5호]은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을 시적대상으로 선정하고 총대와 함께 승리의 한길로 전진해온 선군조선의 어제와 오늘그리고 래일을 격조높이 노래한 비교적 특색있는 작품이라고 본다.

주체28(1939)년 4월 북대정자에서 열린 역사적인 조선인민혁명군간부회의에서 제시된 조국진출방침에 따라 그해 5월에 진행된 무산지구전투.

그 위대한 승리를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해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총대로 탑신을 높이 일떠세우도록 세심한 지도를 주신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

시에서는 무산지구전투승리가 가지는 역사적의의며 그 구체적인 사실들을 친절히 《소개》하고있지 않고 오늘의 시점에서 총대로 탑신을 세우고 탑아래 무성한 총대숲을 이루도록 형상한 《세상에 오직 하나인 승리의 탑》—《선군조선의 총대탑》을 두고 시공간에 구애됨이 없이 총대철학의 심오한 의미를 뜨겁게 노래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에서는 서정적주인공의 모습이 뚜렷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대신할수 없는 독특한 정서세계가 펼쳐져야 한다.》

그러면 이 시에서 시인의 남다른 얼굴, 독특한 정서세계가 어떻게 나타나고있는가.

그것은 우선 이 시가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을 시적대상으로 하고있지만 선군시대의 주도적인 감정에 기초하여 총대철학을 뜨겁게 시화하고있으며 그 어떤 《설명》이나 《서술》의 라렬이 아니라 고도로 양양된 시인자신의 정서를 시전반에서 직접 표현하고있다는데 있다.

지금까지 적지 않은 시인들이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을 시적대상으로 하여 시를 썼지만 서정시 《총대레찬》처럼 총대의 넓과 진리를, 그가 혁명과 건설에서 노는 역할과 의의를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하여 철학적내용을 구체적인 생활정서로 훌륭히 노래한 작품은 찾아보기 힘들다.

보통 무산지구전투승리가 가지는 의의를 강조하고 그날의 그 총대가 오늘은 선군조선의 기치로 되고있다는 식의 론조가 강한 시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는 이 승리기념탑의 외형이

나 《소개》하고 그 승리가 있어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완성에 이어 오늘은 우리 혁명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초석으로 되고있다는 론리성이 강한 시들이 눈에 띄이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 시에서는 첫번부터 이미 알려진 역사적사실에 대한 《서술》은 피하고 오직 탑신을 이룬 총대를 두고 시인—서정적주인공의 정서를 직접 펴나가고있다.

아침이면...

백두산정에 솟아오른 태양이
수령님을 보위하여 한밤 지새 총에게
감사의 첫 해발 비쳐주면
수령님의 모습 그 해발에 실어
강토삼천리 끝까지 비쳐주는 총

저녁이면...

백두산정의 찬란한 별들이
수령님 옷자락에 어리광치며
새날이 밝을 때까지
조국의 안녕을 위해
순간의 안식도 모르던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 총대여

낮이나 밤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순간 한치도
수령님결을 떠남이 없이
백두대지를 초석으로 삼고
번개와 우뢰를 벗삼아
만리창공에 우뚝 솟은
총, 너는 선군조선의 모습
...

보는바와 같이 시인—서정적주인공은 오늘의 시점에서 수령결사옹위정신에 기초하여 총과 총대를 선군조선의 모습으로 노래하고있다.

그 다음부분에서 시인—서정적주인공은 총대를 이루는 총가목이며 총창에 대하여 그리고 그 총대가 울리는 총성에 대하여 강한 랑만주의적창작기법으로 노래하고나서 고도로 양양된 정서적체험세계를 통하여 총대의 의미를 한껏 가슴 후련히 터치고있다.

...

총대여
 너의 넓은 선군
 너의 성격은 진리
 불의에는 죽음을
 정의에는 사랑을
 세계에는 평화를
 인류에는 자유를
 때문에 이 나라의 천만군민은
 너를 배반을 모르는 혁명동지로 사랑하거니

...

너는 평화수호의 상징
 너의 총창의 끝은 예리하지만
 그우에 반석으로 받들리어
 우리 조국은 영원토록 무궁번영하고
 총대를 굳게 틀어진 우리 혁명은
 혁명의 길에서 탈선을 모르리

...

얼마나 총대철학의 심오한 의미가 선군조선의
 주도적인 감정에 맞게 훌륭히 노래되고있는가.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완성을 위한 투쟁의 길에
 서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과 봉쇄를 짓부시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대고조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는 오늘
 선군으로써만 조국을 수호하고 세계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는 심오한 철의 진리가 얼마나 뜨겁게 절
 절히 표현되고있는가.

이것이야말로 하나를 통하여 열, 백을 헤아릴수
 있는 주옥같은 시구들이다.

여기에 바로 강한 철학성으로 일관된 이 시의
 높은 사상예술성이 있고 시인의 남다른 얼굴이 엿
 보이는 특색있는 시형상기교가 있는것이다.

이 시는 또한 시의 정서세계가 뜻이 깊은 철학
 적내용과 구체적이며 섬세한 생활정서와 결합되어
 있는것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생활정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 선군령도로 하여 이 땅에서 일어나고있
 는 세기적전변의 력사와 사람들의 사상의식에서의
 놀라운 전변의 경이로운 사변들을 강한 시적정서
 로 노래하고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

너는 만능창조의 상징
 너를 떠난 창조물
 너를 떠난 행복과 미래는 없다
 총대바람 산기슭다락발에 불면
 대평야가 펼쳐져 오향은 설레고
 총대를 강기슭 천막가에 세우면

그 총대 사납던 강에 빗장을 질러
 언제라는 산악아래 바다를 펼친다

...

때문에 때문에 이 나라 젊은이들
 사랑의 첫 인연 너와 맺는다
 그러면 남녀청춘들의 사랑은
 행복의 천만년으로 이어지고
 총대가 보증한 그들의 사랑은
 총대마냥 끝아 꼭절을 모르고
 총알같은 날과 달로
 생활의 목표에 행복의 《우》를 새긴다

...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구상에 의하여 온 나
 라 농촌폐기밭들이 구역포전으로 정리된 대규모로
 지정리사업의 서사시적화풍, 나라의 크고작은 강
 을 막아 일떠세운 수력발전소들...

여기에는 인민군병사들이 앞장에 서있었다.

시인은 이 경이적인 자랑스런 현실을 놓고 선군령
 도의 위대한 생활력을 깊은 체험세계를 통하여 뜨
 겁게 노래하고있다. 그리고 총대를 존중시하는 기
 풍을 청춘남녀들의 사랑과 리상을 통하여 오늘 우
 리 인민들의 사상의식에서 일어난 변혁을 두고 격
 조높이 노래하고있다.

이러한 절절한 체험을 뜨겁게 노래한 시의 장면
 장면은 참으로 이채롭게 형상되고있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다.

《아이들은.../잠잘 때에도 장난감총을 쥐고자
 면/하늘의 별도 플라깁는 꿈만을 꾸고/아름다움의
 절정도/끝모를 힘의 원천도 총 너에게 있어/총메
 고 배낭진 이 나라 병사들모두 선남선녀》, 《애
 젊은이 어깨에 총을 얹으면/현헌장부로 존경받
 고/로병의 어깨에 총대가 얹어지면/애젊은 병사가
 되여/장령도 병사도 지배인도 노동자도/한전호
 속 동지가 되는 총》, 《비단치녀의 섬약한 손도
 총대를 들면/힘한 산벼랑도 복나들듯 하고/원췌의
 숨통 실끓듯 하는 총대》...

시인-서정적주인공은 총대를 두고 《사랑과 힘
 과 아름다움의 모든것》이라고 노래하면서 《총대
 로 열어간 혁명의 길엔/삶은 꽃피여... 행복은 무
 르늬고/총대로 지켜가는 내 나라의 하늘은/해도
 달도 별도 지지 않는/영원한 맑은 하늘》이라고
 뜨겁게 노래한다.

참으로 총대철학을 생활적으로 구체적인 생활정
 서와 결합시켜 노래함으로써 이 시는 철학이 있으
 면서도 생활적으로 공감되게 하여 총대로 열어간
 혁명의 길엔 삶은 꽃피여... 행복은 무르늬는다는
 그 시구절이 감동깊이 사람들의 가슴을 울려준다.

총대를 폐찬한 시는 적지 않아도 총대철학을 독

특한 시형상세계를 통하여 노래한 이런 작품은 보기 드물다.

이런 의미에서 시인은 총대에 대한 새로운 하나의 시형상세계를 창조하였다고 말할수 있다.

시에서는 우리 나라 선군혁명의 력사에 대해서도 노래하고있지만 그것은 집약과 함축, 고도로 양양된 정서를 시인—서정적주인공의 독특한 시형상세계를 통하여 표현하고있음으로 하여 한편의 노래가락을 읊는듯 가슴뜨겁게 울린다.

...

너의 생명은 영원무궁
네가 안겨자란 품은
만경대의 총대가문
총대, 너의 진정한 첫 주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총대, 너를 가장 사랑하는 영원한 주인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

항일혁명의 그날부터 시작된
선군혁명의 천만리에
수령님과 장군님을 위하여
흔들림 모르는 총대여!
세월의 눈비에 더 억세여지고
세기의 광풍에 더 세련된 총대여!

...

이 시에 시인의 독특한 얼굴이 엿보이게 하는 특징은 또한 시형상수법에서 랑만주의적시창작 기법을 합리적으로 잘 적용한것을 들수 있다.

일반적으로 랑만주의적시형상기법의 특성은 고도의 확대과장과 격조높은 강조의 수법을 들수 있다.

...

너의 총창은
순간에 만리를 달는

백두의 번개에 달구고
백두의 눈보라에 버리어
백두의 천지에 썩 씻어 추켜든
멸적의 푸른 번개

(확대, 과장의 수법)

세기의 언덕에 우뚝 솟은
선군조선의 총대탑이여
백두령장의 슬기로
너의 총창은 서슬푸르고
백두령장의 담력으로
너의 총탄은 만장탄되고
백두령장의 숨결로
세계를 호홉하며 세계를 굽어보는
세상에 오직 하나인 승리의 탑

(확대, 강조의 수법)

...

시에 쓰인 이러한 확대과장의 수법이나 강조의 수법은 비록 새롭게 생겨난 형상수법이 아니지만 오늘의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받아들여 사상을 강조함으로써 시인의 독특한 시형상세계를 창조하게 하고있다.

이처럼 서정시 《총대레찬》은 시인—서정적주인공의 주정을 잘 펴나감으로써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을 《세계를 호홉하며 세계를 굽어보는/세상에 오직 하나인 승리의 탑》으로, 《조선은 총대와 함께/이 행성의 북반구에 우뚝 솟아있도다!》라는 자랑찬 현실을 시인—서정적주인공의 강한 주정으로 승화시킴으로 하여 독자들을 감동시키는 《시다운 시》인 자기의 뜻을 당당히 가지고있다고 말할수 있다.

이러한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시인의 정서적체험이 뜨겁고 시의 정서적내용이 고도로 양양된 상태에서 시를 창작해낸데 있다고 본다.

조선속담

- 가루 팔러 가니 바람이 불고 소금 팔러 가니 이슬비 온다
- 가마목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 들중은 소금을 먹고 산중은 물을 먹는다
- 말 잡는 집에 소금이 헤프다
- 번개불에 소금 구워먹겠다
- 사람을 알자면 소금 한말을 같이 먹어야 한다
- 살을 찌고 소금을 치는 사람이다
- 소금도 곱팡이 난다

- 소금도 썰 때가 있다
- 소금 먹은 놈이 물로 간다
- 소금에 안 전것이 (안 전놈이) 장에 절가
- 쥐 소금 나르듯(하다)
- 콩으로 메주를 쑼고 소금으로 장을 담근다 해도 곰이 들리지 않는다
- 하루밤사이에 소금 석섬을 먹어도 짜다는 소리가 없다
- 여울로 소금섬을 끌래도 끌겠다

집에 대한 생각 외 1편

리 광 선

내 군복입고 떠나던 그날
집 생각하면 군대구실 못한다고
아버지 당부하시던 그런 집 생각이 아니여라
이밤 저 멀리 북두칠성 바라보며
저도 몰래 가슴젖는 집에 대한 생각은

울담가에 구기자 둘레둘레 빨강던
정든 고향집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여라
해지는줄 모르고 장난에 빠져있는
이 아들 찾아 저녁마다 나오시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도 아니여라

흘러간 복무의 나날에
병사의 가슴에 소중히 자리잡은 추억이여
안개 자욱한 날벼랑길 넘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우리들 찾아주신것은
이슬이 흘러내리는 새벽이었지

그렇게 오시고도 도리어
식당천정에 맺힌 뜬김방울을 보시고
우리들의 건강을 넘려해주실 때
이 마음에 서려돌던 그 새벽안개
이 가슴에 젖어들던 그 새벽이여

어느 추운 겨울날엔 병실의 온도가
이만하면 나보다 더 덥게 산다고
그이 기쁘시여 호탕하게 웃으셨어도
야전차의 차창에 하얗게 서린
차디찬 성애가 마음에 맺혀와
저도 몰래 숫구쳐 흐르던 뜨거운 눈물
그 눈물도 그 성애 녹이지 못하였지

아 고향집 부모의 사랑앞에서
그 언제 눈물을 흘린적 있었던가
하늘같은 그 사랑에 눈물 흘리며
마음속에 스스로 우러나온 그 말은
아버지장군님!
그 한마디뿐

진정 어버이 그 품에서
성스런 복무의 나날을 보내며
나날이 마음속에 깊이깊이 뿌리내린것은
우리 삶, 우리 운명 다 안고계시는
위대한 아버지를 모신 내 조국
그 《집》에 대한 생각

만일 이 땅에 폭풍이 몰아친다면
그 폭풍 다 막아 옹위할
이 땅에 불바람 몰아친다면
그 불바람 다 막아 지켜낼 생각

순간이라도 그 생각을 안한다면
나는 부모도 잃고 고향도 잃고
손에는 총대가 아니라
류량의 막대기를 짊고 다니는
교아가 되고말려니

나는 병사 장군님의 아들
한생 이어갈 복무의 길에서
내 심장처럼 간직하고 살리라
아 귀중한 아버지 생각
위대한 아버지를 높이 모신
크나큰 집에 대한 생각

군복은 보증한다

해빛밝은 우리 집
하얀 벽에
오늘도 붉은 령장 그대로
소중히 걸려있는 나의 군복

이웃들과 벗들
찾아오는 사람들 그 모두에게
너는 다만 흘러간 청춘시절
내가 병사였음을
말없이 보증해주는것인가

바라보면
그 군복에선 지금도 풍겨오는듯싶구나

정든 초소의 푸른 솔향기...
무거운 장구류를 메고 달리던
강행군길의 그 땀내...

귀전엔 금시 들려오는듯싶어라
온 산밭이 찢찢 울리도록
힘차게 부르던 군가의 메아리가
기동전투훈련의 나날
매없이 비물과 함께 넘기던
주먹밥의 진맛도 다시 새겨주는 군복

그리운 병사시절이여
이 군복을 입고 몸에 땀 자세는

내 한생 조국앞에 지켜야 할 자세
이 군복을 입고 익혀온 걸음새는
내 한생 조국의 보폭에 맞춰갈 걸음새

내 진정 위대한 평장의 슬하에서
복무의 나날에 편마해온
그 슬기, 그 담력, 그 정신을
삶의 가장 귀중한 재부로 삼고
한생을 구보로 달리며 살려니

군복이여 나를 채찍질해다오
선군의 이 시대 성스런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포부는 더 활짝 나래를 펼치라고
열정은 더 세차게 타오르라고
인생은 끝까지 안식을 모르라고

오, 군복은 다만
한시절의 위훈을 보증하는
전시품이 아니거니
언제나 마음속에 입고사는 인생에만
그가 선군시대와 숨결을 같이하였음을
어머니조국은 보증하리라
그 믿음직한 어깨들에 받들려있어
우리의 사회주의가 끄떡없음을

내 앞 에 녀 인 들 이 간 다

심 재 훈

내리는 눈발을 활기있게 걷어차며
또다시 맞이하는 12월의 이 아침
녀인들이 간다
어깨에는 북을 메고
량손에는 붉은기와 꽃다발을 들고
내앞에 녀인들이 간다

이 아침 철의 도시에
화려한 꽃바다가 펼쳐졌는가
바람결에 꽃물결이 설레이는가
오색단장 차려입고 달려가는 강선녀인들
공장정문 좌우로 아득히 줄지어섰구나

보란듯이 기세충천하여
출근길에 들어서서 용해공들
발걸음도 힘차게 로장이 앞장섰는데
어느새 달려와 꽃목걸이 걸어주는 그의 안해
어깨 나란히 걸어가며 속삭이네
—오늘 계획 넘쳐하세요
—걱정말라구

종구나
강선의 출근길이어
오늘의 쇠물량 더 많이 끊이라고
150일전투에서처럼
100일전투에서도 승리자가 되라고
목청껏 노래를 불러주고
어깨 등실 춤도 추며
꽃다발을 흔들어 축하를 보내는 강선녀인들

강선의 사나이들이여
아름다운 녀인들의 축하를 받는
그대들이 부럽구나
그보다도 한마음
쇠물을 위해 둔 그 정이 더 돋보이누나

약속과 맹세
신심에 넘쳐 끝없이 이어지는 이런 출근길이 있어
강선의 봉화는 더더욱 불타오르는것 아니냐

아버이장군님
전선길에서 기쁘시여 바라보시는
저 쇠물빛 붉게 타는 강선의 노을
어찌 사나이들만이 피워간다 하랴
그대들의 심장속에
정을 주고 사랑을 주고 불길을 달아주는 녀인들
그 정성에 받들려 쇠물은 더 끓고
노을은 더 붉게 타거니

오늘 저녁 명배우들의 축하공연 맨 앞자리에
강선의 녀인들 앉혀주고싶구나
평양의 대극장 공연에도
맨 선참 보내주고싶구나

이른새벽 밥을 짓다가도
용해장에서 전기로의 동음소리 울려오고
하늘가에 쇠물빛노을이 펼쳐질 때면
문득 아버지장군님 또다시 오실것만 같아
조용히 오시어서 용해장에 들어서실것만 같아
서둘러 고운 옷 차려입고 달려가는 강선의 녀인들

아, 이 아침 철의 도시에
화려한 꽃바다 펼쳐졌는가
눈발속에서 꽃물결이 설레이누나
강성대국평마루에 남먼저 올라
붉은기 날리며
꽃다발 흔들며
복소리 울리며
아버이장군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내앞에 녀인들이 간다
강선의 녀인들이 간다

병사의 어머니

리 승 두

얼마전 나는 출장길에서 한 병사를 알게 되었다. 역으로 가는 길에서 역수로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걷고있는 병사에게 우산을 씌워준것이 인연으로 되어 서로 알게 되었다. 알고보니 그는 내가 살고있는 도시에서 입대한 병사였다. 그런데다 우연이랄가 병사가 나를 보고 반색을 지었다. 한것은 교육부문에서 일하면서 시내의 학교들에 종종 나가군 해서인지 나를 제격 알아보았던것이다.

헤어질 때 병사는 품속에 소중히 간직했던 사진을 꺼내여 나에게 주면서 자기 어머니에게 전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그후 나는 병사와의 약속을 지켜 퇴근길에 그의 어머니가 근무하는 직장을 찾았다. 해안공원옆에 자리잡고있는 시유원지관리소였다.

병사의 어머니가 일하고있는 원림작업반에 찾아가니 작업반실에서 십여명의 녀인들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다.

나는 그중 한 아주머니에게 병사의 어머니인 옥녀아주머니를 만나러 왔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 옥녀아주머니가 작업반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양묘장에 나무를 뿌러갔는데 자기들도 기다리는중이라고 알려주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였다. 병사의 소중한 사진을 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고갈수도 없고 언제 도착할지 모를 그를 무작정 기다릴수도 없어 참 딱한 일이었다.

내가 난감한 표정을 짓고 바재이는것을 본 그 녀인은 <친척인가요?... 집은 예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하며 동정을 표시했다.

<아, 아닙니다. 사실은 그 아주머니의 아들한테서 사진을...>

나는 용건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수 없었다. <사진을요?... 명철이한테서 사진을 가져왔다고요?>

그 녀인뿐아니라 그때까지 방심한 표정으로 앉아있던 녀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나에게 시선을 모았다.

<예, 어머니에게 사진을...>

<아이... 그럼 진작 그 이야기부터 했어야지요. 점잖은분이 어쩌면... 자, 어서 사진부터 내놓으세요.>

뒤에 앉았던 몸이 뚱뚱하고 허우대가 큰 중년의 녀인이 년장자의 자격으로 나에게 바투 다가서며 <명령>했다.

나는 병사의 사진을 한시바빠 보고싶어하는 그 절절한 심정과 눈빛을 외면할수 없었다. 그래서 품속에 간직하고온 병사의 사진을 여러 아주머니들의 기쁨과 기대가 어린 눈빛을 받으며 조심스럽

게 꺼냈다.

순간 내앞에 섰던 그 녀인이 사진을 나눠채더니 눈가로 가져갔다.

<아유, 이게 명철이가 옳으냐?...>

함경도지방특유의 억양이 느껴지는 말소리로 그 녀인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기쁨과 환희가 가득 담긴 그의 눈가엔 눈물이 핑- 어리는듯싶었다. 뒤에 섰던 녀인들이 그를 둘러쌌다.

<야... 어쩌면 1년사이에 이렇게 림름하게 변했담!>

<요 깜찍한 피쟁이가 장부가 됐구나.>

<군기앞에서 표창사진을 찍은걸 보니 모범군인인게지.>

이구동성으로 터져나오는 말마디들에 실려 사진은 이 손에서 저 손으로 옮겨졌다.

모두가 친아들이나 혈육의 사진을 받아든것처럼 기쁨과 희열을 터친다.

그러더니 질문소나기가 쏟아졌다. 중대장과 정치지도원은 어떤 사람인가, 명철이는 두발집승은 입에 대지 않는데 중대장이 그걸 아는가 등 별의별 질문을 다했다. 그러나 나는 이들에게 그 어떤 대답도 줄수 없었다. 길가에서 잠깐 만났다 헤어진 병사에 대하여 도대체 무슨 말을 해줄수 있단 말인가. ... 이런 정황을 예견했다라면 병사의 생활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있어야 했으리라는 후회가 들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의혹도 품게 되었다. 이들이 어떻게 되어 그 병사에 대하여 그토록 관심을 가지며 친혈육과 같은 정을 품고있단 말인가? 물론 그 병사의 어머니와 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녀인들이라고 하여도 그 눈빛과 품고있는 절절한 마음은 류다른것이였다.

그래서 물었다.

<아주머니들은 명철이에 대하여 어떻게 것처럼 관심이 큼니까?>

<어떻게라니?...>

몸매가 뚱뚱한 아주머니가 불깃해진 눈언저리를 닦으며 입을 열었다.

<명철인 내 아들이나 갈소. 탁아소, 유치원 때부터 우리 집 애들과 함께 자랐지요. 그 애 어머니가 늦어지면 내나 여기 어머니들이 가 업어오고 여기 있는 어머니들손에서 자랐거든요. ... 여기 있는 우리들이 다 명철이의 큰어머니, 작은어머니들이라우. 명철이는 우리들 자식이나 같아요.>

<!...>

나는 가슴이 뭉클하였다.

(그러니 이들이 모두 병사의 어머니란 말인가?!) 나는 녀인들의 눈빛과 그들의 행동에서 이 녀인

의 말이 진실이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았다.

《아, 그랬군요.》

나는 생각깊은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되새겨보았다.

병사들의 어머니!

부모와 자식간의 정이란 꾸밀수도 지어낼수도 없는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신 인민군대에 생명과 행복, 그 모든것을 의탁하고 사는 선군의 시대에 우리 인민은 인민군대와 혈연적으로 련결되어있다. 부모와 자식, 형님, 누이와 동생, 친척, 친우들...

생활이 즐거우게 흐르는 매일, 매 시각, 인민군대에 내보낸 혈불이들을 그리는 마음이 그리고 《인민을 돕자!》라는 구호밑에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지켜 낮과 밤을 보내는 인민군군인들의 마음이 선군의 세월이 흐르는 이 땅에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그 나날에 무슨 이야긴들 없으랴.

나는 흥분된 마음을 안고 발걸음을 옮기였다.

내가 사는 거리가 전에없이 정답게 느껴졌다.

오가는 사람들이 친근하게 안겨왔다. 나는 내가 사는 거리, 내가 사는 내 나라의 생활률이, 삶

의 의미가 새삼스럽게 되새겨지는듯싶었다.

어찌 이 어머니들뿐이라. ... 그 병사결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켜주고있는가.

병사는 하나여도 수백수천의 정겨운 마음들이 그를 생각하고있으며 병사 또한 그들을 가슴에 안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위한, 인민을 위한 복무의 길을 걷는것이다.

그렇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를 최고사령관으로 모시고사는 우리 나라에서 군대와 인민이 친형제, 친혈육으로, 한식술로 뭉쳐졌으니 우리 인민의 일심단결된 힘을 당할자 세상에 없다.

나의 눈앞에는 그 병사의 모습이 방불히 안겨왔다. 쏘아지는 폭우에도 아랑곳없이 걸어가던 병사의 모습이...

나는 병사의 앞길에 칼벼랑과 날바다가 가로놓인다 해도 병사는 드팀없이 그 길을 걸어가리라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는다. 그리고 준엄한 시각이 닥쳐온다면 서슴없이 자기 한몸을 내대어 어머니조국과 자기의 귀중한 모든것을 지켜내리라는것을...

이 땅의 수많은 병사들의 어머니들의 눈빛을 마음속에 절절히 느끼며...

해 병 과 바 다

전 성 심

노호하며 치솟아
휩 갈기 추켜들고 삼킬듯이
절벽을 들때리는 파도여
때없이 갈개는 네 성미
오히려 나에겐 좋구나

늪설 몸을 뒤채기며
나를 흠뻑보는듯 하더니
다시금 물머리 높이 들고
무섭게 달음쳐오는 그 기상
이 해병의 마음에 드는구나

내 처음 너를 길들일적엔
두려움도 없지 않았노라
호수같이 잔잔한 물결이라면
어찌 해병이 타고았을 바다라
불파도 밀려와도 맞받아나갈
나는 장군님의 해병

하늘과 땅
이 나라의 그 어디나
조국수호에 한몸내댄 병사가 있어
나는 바다에 전호를 정하고
바다를 타고았은 해병일진대

한가슴에 너를 안지 않고
그 어이 조국의 바다를 지키라
너의 드세찬 성격
오히려 내 마음에 정들어
해병의 기질을 네가 닮은듯

한번 추켜들면 숙일줄 모르는
파도의 그 성미
절벽도 들이치며 산산이 부서져도
또다시 솟구치는 파도여
굴할줄 모르는 그 기상을 나는 사랑해

조국의 바다를 지켜
백두령장이 안겨준 담력과 배짱으로
너를 타고았은 오늘
마치도 내 어릴적 물장구치던
고향의 시내물처럼 정답기만 하구나

오 장엄하고 드세차게
꾸준하고 열정적인 나의 바다
해병의 전호여
너를 지켜 용맹할 해병의 한가슴에
네가 다 안겨있구나



내 고향은 아름답다

김 홍 군

1

밤사이에 눈이 내렸다. 밤새 내린 눈이 아침에 보니 발목을 덮게 쌓였다. 아침녘엔 벌써 대기가 씻은듯 말쑥해져 집집의 굴뚝들에서 밀려나온 흰 연기가 파랗게 들린 하늘로 곧추 떠올랐다.

눈 온 날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법이다.

로키남이네 집 대문앞에는 벌써 꼭두새벽에 달려나온 조무래기 몇이서 두개의 눈사람을 빚어놓았다. 아이들 손으로 서툴게 빚은 눈사람이라 곱지는 않았지만 입이며 눈이며는 그래도 큼직큼직하게 웃는 모양을 해놓아서 그앞에 서면 절로 웃음이 나온다.

금방 집을 나서던 귀남이와 누이동생 귀향은 대문밖에서 동네아이들이 빚어놓은 눈사람을 띄어보았다. 가슴팍에 껌질벚긴 하얀 나무꼬챙이에 수채화를 먹여 《축》자를 만들어붙인 두개의 눈사람을 본 오누이는 서로 마주보며 웃음을 지었다. 잠깐 눈사람을 지켜보던 귀남이 다가들어 왼쪽 눈사람의 양입귀를 좀 크게 그리고 귀쪽으로 올리잡아 당겨놓았다. 오른쪽의것은 입을 작게 그리고 아래선을 반달모양이 되게 턱쪽으로 깊이 파주었다. 그랬더니 위불없이 왼쪽은 환하게 웃는 사내요 오른쪽은 수줍게 웃는 처녀애모양이 되었다.

《히야!》

호기심에 차서 지켜보던 아이들의 입에서 환성이 터져올랐다.

《신랑! 신부!》

아이들이 눈사람과 귀향을 번갈아 쳐다보며 웃어댔다. 좀해 소리내어 웃을줄 모르는 귀향이라도 그만 웃음을 터뜨렸다.

《호호... 애들두 참!》

옆에서 귀남이 싱글거렸다.

《이렇게 엉터리로 빚어놓고 신부가 뭐냐? 이진 신랑신부가 아니라 신랑신부를 따라선 둘러리란다.》 하고 고쳐주었다.

그때 마당에서 어머니가 담너머로 오누이를 보고 잔소리를 했다.

《원 너희들 노는걸 보면 알다가도 모르겠다. 그렇게 철이 없어가지구 시집을 가 체구실이나 하겠는지... 당장 큰 상을 받을 새색시가 아침부터 어델 싸다닌다는거냐?》

《잠깐 가서 은실이를 데려와요.》

《화장을 하구 새색시차림을 하는데두 시간이 걸리니 늦지 않도록 해라.》

귀향이 솜옷에 머리수건까지 뽁뽁 두르고나서고도 잠간이라는게 미덥지 않아보이는지 어머니는 다짐을 두었다.

《알겠어요.》

오누이는 어머니의 지청구를 들으며 서둘러 대문가를 떠났다.

귀남이 골목길을 빠져나와 헤어져가려다가 동생이 어깨에 멘 삽을 여겨보며 물었다.

《너 정말 일하러 나가는데 아니냐?》

《아니, 잠깐 가보고 와요. 작업조직만 하구.》

귀남이는 물론 누이동생의 말을 믿지 않았다. 작업조직은 이미 어제 저녁에 했다. 그저 분조장인 누이동생이 책임성이 높아 한두시간 여유에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해 그러는것이였다. 니탄을 캐는 막개필이 좀 먼데다 동생이 삽까지 들고나서는데 은근히 마음이 쓰인다. 일손을 잡으면 언제나 시간가는줄 모르는 동생이다.

농장적인 휴식일이지만 니탄캐는 막개필이 협소하여 작업반에서는 캐놓은것을 제때제때 뽑아낼셈으로 대후제작업조직을 했다. 작업반에 배속된 트랙토르를 분조마다 돌려가며 리용했는데 공교롭게도 귀향이네 분조가 오늘 차례였다. 분조원들이 결혼식을 못 보게 됐다고, 하필이면 분조장의 결혼식날에 차례가 올건 뭐냐고 서운해했다.

귀남은 서운해하는 동생네 분조원들을 생각해서 다른 분조와 바꾸는게 좋지 않느냐 했더니 누이동생이 펄쩍 뛰었다. 자기 결혼식보다 분조농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말이 적고 마음씨가 고운 동생인데 일에 들어서서는 얼마나 이악한지...

그때 분조원들이 분조장의 일육십에 맞춰 새벽 일찍 작업에 진입했다. 오전중에 무조건 하루계획을 다 하고 분조장의 결혼식에도 참가한다는 것이었다. 그러자면 하루밤사이 깊이 얼어든 니탄더미의 결층을 미리 까놓아야 했다.

《어머니가 걱정하시지 않게 늦지 말아. 결혼식이 아이들놀음이 아니라 인륜대사야, 대사.》

《걱정마세요, 오빠.》

귀향은 생글 웃음을 지어보이고는 하얀 입김을 날리며 걸음을 다우쳤다.

귀남은 아래쪽으로 종종걸음을 놓는 동생을 정겨운 눈으로 바라보다 완만한 경사를 이룬 웃쪽으로 향했다.

옆골목에서 불쑥 뺨여져나온 로인분조장 오로인이 귀남일 띄어보고 머리를 끄덕거렸다.

《날이 참 좋거던. 옛날부터 눈 온 날 잔치를 하면 복이 있다구 했는데 우리 귀향이 복을 받았단 말이야.》

오늘 동생과 결혼하게 되는 신랑 오철윤과 촌수를 따지면 먼 친척벌인데 관심이 여간 아니다. 하긴 촌수를 따질 것도 없다. 고향사람들모두가 그렇게 극성이니 말이다. 최전연초소에서 군사복무를 하던 오철윤은 원쑤들의 도발을 분쇄하는 접전 중 부상을 당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영예군인이다. 그때문에 당자는 물론이고 그와 일생을 함께 할 귀향이까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길을 가던 오로인이 그만 눈판우에 어쩔사이없이 궁둥방아를 찼었다.

《어이쿠!》

엇앵이를 되게 찼은 모양 눈판에 주저앉아 죽겠노라 어부작을 쳤다.

오로인과 자치동갑되는 라로인네 집 대문이 찌쿵— 열리더니 그 집 손자녀석이 내다보고 키득거렸다. 이제 보니 재미나게 치쳐볼셈으로 그녀석이 한짓이다. 벌써 첫새벽에 소랭이로 물을 내다부어 열구어놓고는 그우에 슬쩍 눈을 덮어놓았던 것이다.

《예끼, 고현놈같으니라구. 눈은 왜 덮어놓았느냐?》

《할아버지가 보든 옥해서...》

아이의 뒤에 썰매가 보였다. 금방 재미를 보자구 나오는 길인데 로인이 떠들썩 업살을 부리는통에 판이 글렀던 것이다.

무슨 일인가 하여 대문가로 나오던 라로인이 가쪽이나 큰 눈을 뒤집을듯 하고 커다란 주먹으로 손자의 뒤통수를 가볍게 쥐어박았다.

《이런, 옥을 봤구만. 이녀석, 그저 못된짓만 골라가며 한다니까. 내 당장 재를 뿌리리다.》

금시 아이의 얼굴이 울가망이 되었다. 그러자

반대로 급해난것은 오로인이다.

《그러지 말라구. 애들이 그렇지. 나이를 먹어보라구. 시킨다구 이런 일을 할텐가?》

언제 그랬더냐싶게 엉금엉금 일어나 엇앵이를 털었다.

《밤새 수고했겠네.》

오로인이 집주인을 대문안으로 밀고들어가며 하는 말이다. 간밤으로 마무리된 침대제작을 놓고 하는 말이다.

로인분조에서는 온 동리의 경사인 오철윤이와 로귀향의 결혼식에 두루 의논끝에 침대를 만들어주기로 했다. 원래 목수재간이 있는 라로인을 믿고 모아진 의견이라 그가 모든것을 떠안았던 것이다.

집안으로 두 늙은이가 사라지자 심드렁한 모양이었던 사내아이가 언제 옥을 봤더냐싶게 벌쭉거리며 자랑했다.

《삼촌, 우리두 오늘 잔치보러 간다.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다같이.》

《너같은 말썽꾸러길 할아버지가 데려가자구 하시겠니?》

《해해, 그래두 할아버진 날 제일 고와하는데 뭐.》

귀남은 느닷없이 치미는 정을 못이겨 아이를 덤석 안아 썰매에 앉혔다. 끄— 힘을 주어 등을 떠미니 썰매가 얼음판우로 미끄러져갔다. 제대되어 1년남짓해오지만 때없이 느끼는것이 고향사람들의 후더운 정이었다.

그사이에 몰라보게 변한 향촌이다. 인봉재의 양지바른 기슭에 터를 닦고 준비하게 늘어세운 새마을이 고향을 아예 판 고장처럼 만들어놓았다.

사람들의 변모 역시 놀라웠다. 좋은 일, 궂은 일 따로없이 한본새로 소리가 높아 반장이라는 부름보다도 《오우뢰》로 통하던 50대 중반의 필필하던 사람이 어느덧 년로보장나이가 되자 스스로 늙은이들로 부업분조를 조직하고 로인분조장이 되었다. 그 나이벌의 많은 사람들이 저들이 없으면 농사가 당장 죽을 썰것 같다고 했던만 웬걸 예나제나 작황은 짝이 기울지 않을뿐더러 좋은 종자에 앞선 재배기술까지 받아들여 오히려 수확고가 해마다 늘어나는 형편이다. 그걸 보며 오로인을 위시한 늙은족들은 역시 젊은이들이 다르긴 다르다며 혀를 찼다. 정말 모든것이 눈이 번쩍 뜨이게 달라졌다. 산천도 사람들도...

이런저런 변화중에도 옛그제까지 단발머리 계집애였던것 같았던 누이동생 귀향이 금방 떠오르는 보름달같이 피어나고 성숙한 처녀로 변모하여 그앞에 나선것은 정말 믿어지지 않았다. 미모도 미모지만 정신적인 성장은 모두를 놀래웠다.

누이동생이 조국보위초소에서 부상을 입고 돌아온 영예군인 오철윤과 일생을 함께 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 못했다.

인물이 곱고 마음이 비단같은 귀향을 두고 아
들가진 인봉리의 어느 집에선들 욕심을 가져보지
않았을가. 그 시절에 열집머느리, 열집사위 안되
여본이 없다고들 하지만 귀향의 경우는 열도 적어
둘째귀에 불 날 지경으로 혼처가 줄을 섰었다. 하
도 좋은 혼처를 다 마다하니 벌써 도시의 멋있는
총각과 어찌됐노라는 엉터리소문까지 나돌았었
다. 그런 구구한 억측과 나름의 견해를 뒤집어엿
었으니 사람들의 놀람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처
녀의 아름다운 소행은 모두의 가슴마다에 뜨거움
을 안겨주었다.

고향으로 돌아온 후 오철윤은 삼륜차를 몰아 남
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호젓한 인봉천기슭 황철나
무숲으로 자주 나가곤 했다.

원래부터 다정다감한 편이었던 그는 강기슭에
앉아 무슨 시행을 끄적거리거나 피리를 불었다.
그러는 철윤을 보며 사람들은 마음속 고충을 달래
는거라고 생각하였지만 결코 그쯤한 일로 꿈을 포
기할 그가 아니었다. 그는 병사시절처럼 시를 썼
고 노래를 불렀다. 그의 구성진 피리소리에는 애
당초 비관이나 서글픔 같은것이 비끼지 않았다. 철
윤의 삶은 시처럼 쟁쟁했고 노래처럼 아름다웠다.

그렇다해도 그의 배우자문제를 두고서는 누구나
마음이 무거워했다. 귀남이도 동무생각으로 적
잖게 속을 썩었다. 하지만 동무에게 맞춤형 처녀
를 찾아본다고 하면서도 제결의 누이동생을 생각
해본적은 한번도 없었다. 어떻게 되어 그런 생각
을 못했던지 지금까지도 귀남에겐 그것이 아리송
했다. 사실 따져놓고보면 귀남이 오철윤의 곁에
동생을 세워볼 공리를 못한것은 귀향의 됃됨을 잘
몰라서였기때문이었다.

약혼식을 앞두고 귀남은 누이동생에게 영예군인
과 일생을 함께 한다는것이 어떤것인가를 생각
해보았는가고, 혹 동정때문이 아니냐고 물은적
이 있었다. 그때 귀향은 동정이란 불행한 사람
에게 품게 되는 마음인데 그래 그가 불행하다고 생
각하느냐 되물었다. 우리 인봉땅에 그처럼 떼떽하
고 행복한 사람이 어데 있는가, 그는 누구보다
도 훌륭하다, 나는 그가 훌륭하기때문에 사랑한
다! 고 했다.

누이동생의 대답앞에서 귀남은 대뜸 자신의 물
음이 동생은 물론 동무 오철윤에 대한 모욕으로
된다는것을 깨달았다.

이미 오철윤은 고향에 돌아온 초기에 떼떽이 말
했었다. 나를 동정하려 하지 말라, 도대체 조국을
위해 바친 삶이 불행하다는게 말이 되느냐, 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더욱 훌륭한 오철윤이였고 그래서 더욱
돋보이는 누이동생이었다.

귀남은 오철윤이네 집가까이에 이르러서야 생각
에서 깨어났다. 그 집앞에 세운 안테나대우에 살

진 가치가 앉아 건반을 두드리듯 그루를 박아 짝
짝거렸다.

《저놈두 뭘 좀 아는게지.》

자기의 말을 못 알아듣는게 안타깝다는듯 야
단스레 짝짝거리는 까치의 울음소리가 별스레
유난스러워 그의 얼굴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그
러지었다.

2

오철윤이네 대문 양옆에는 누가 그랬는지 활짝
피여난 백일홍화분을 가져다놓았는데 꼭 눈속에서
꽃이 핀것 같았다.

아마 누군가 이날을 위해 집에서 정성담아 키운
것일것이다.

그 집 대문에서 나온 사람이 꽃앞에 다가가 흐
트러진 가지를 바로잡아놓고 가는게 보였다. 귀남
이 못지 않게 그 집 걸음이 잦은 리인민병원 원
장이었다. 나이지숙한 원장은 수십년 림상경험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타고난 성격이 그렇게 돼먹
었는지 배포가 유하기가 벼락이 내려도 꿈쩍않는
사람이었다. 놀라운것은 그것이 환자들의 심리
에 더 좋은 영향을 준다는것이였다. 어떤 환자는
태연자약한 그앞에 서면 《급한 병이 아닌걸 괜히
놀랐군.》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다는것이다. 그
래서인지 위생가방을 한쪽어깨에 메고 저쪽으로
걸어가는 그의 걸음걸이조차 편안해보였다.

담너머로 오철윤이네 집 부엌문이 열리고 뽀얀
김이 밀려나오는 속에 천학술이네 부부가 나오는
것이 보였다. 마침이다. 귀남은 지금 누이동생네
를 도와주는 일에 학술이를 휘동할 생각으로 그를
찾아가던 길이었다.

귀남이와 함께 학술이도 철윤이와 뽀수 없는 짝
패였다. 셋은 성격도 생김도 판판 달랐지만 한가
마뻐으로 자란 형제처럼 의가 좋았다.

천학술이 신랑 오철윤과 송아지동무라면 그의
안해 마은실은 신부 로귀향이와 둘도 없는 사이였
다. 처녀시절 서로 떨어지는게 싫어 고향마을에서
대상자를 선택한다고 입버릇처럼 외운것이 그들이
였다.

지금껏 마은실이 귀향의 곁에서 선협자답게 결
혼 첫날 겪어야 할 조례를 강의하는것으로부터 시
작하여 화장이 진하다거니 연하다거니 잔소리를
하거나 저고리맵시를 봐주는 등 자별한 동무구실
을 하는게 당연하겠지만 학술이 우격다짐으로 여
기에 끌고왔던것이다.

《누군 아이낳는 법 배워가지고 시집왔다. 별걱
정 다한다...》

마은실은 할수없이 녀자손이 귀한 오철윤이네
집일을 도와준 뒤에 시간을 맞춰 귀향이한테 가기
로 했다.

마은실이 천학술의 잔등을 털어주며 다짐을 둔다.
《늦지 마세요. 대사가 튀지 않게 시간전에 꼭
와야 해요.》

《걱정 말라는데.》

《오늘은 정말 피해주세요.》

술을 마시지 말라는 소리일것이다. 술때문에 드
물게나마 실수가 있는 남편이니 마음이 놓이지 않
아 그러는것이였다.

《차 이런, 누굴 어떻게 보구 그래. 내가 아무
러면...》

목청을 높이며 흰소리를 치던 학술이 안해의 안
타까운 얼굴을 보자 대뜸 목소리를 누그러뜨린다.

《중임을 잊지 않고있어.》

자전거를 밀고 대문밖에 나서던 학술이 귀남일
떠어보고는 못난 꼴을 보인게 쑥스러운듯 아래입
술을 삐죽 내밀고 우습강스레 눈을 찌긔했다.

《오늘은 나도 둘러리답게 넥타이를 척 매고 신
랑결에 붙어있을가 했더니 안되겠어. 무책임하단
말이야. 온 리가 다 보겠는데 신랑신부가 들 생
화를 마련 못했다는게 말이 되나. 지금은 생화가
귀하다? 흥, 더워서 못 먹고 식어서 못 먹고, 구
실은 쟤장. 흔한 꽃을 가져오는것두 일일가, 그래
서 내 제격 읍에 갔다오자는거야.》

자전거에 오르기 바쁘게 발디디개를 뽀다 밟아
댔다. 내닫는 자전거뒤로 하얀 입김이 모락모
락 뿜겨져나와 훑날렸다. 언제 봐야 남을 위한 일
에 자기를 아끼지 않는 썩썩이였다.

둘관계에서 규정위반은 좀 있었지만 마을쳐녀들
속에서 똑똑하기로 소문났던 마은실이 천학술
이한테 엮어진것도 사내의 저런 헌신적인 측면을
크게 샅을것이였다.

학술이 신수가 멀쩡하긴 해도 선천적인 근시안
이여서 군대에 가지 못한것이 흠이 되어 은실
의 부모들은 딸의 여사여사한 설명을 들어보려고
도 하지 않고 도리질부터 해댔었다. 등실한 얼굴
에 이마가 높고 이목구비가 큼직큼직한 그에게 흠
이라 할것이 바로 눈이였다. 그래서 그들의 사랑
이 열매를 맺기까지에는 고충이 좀 있었다.

이러니저러니해도 성격이 좋은 천학술이다. 뽀
뽀하던 장모를 어떻게 주물러왔는지 《죽어도 안
된다》던 마은실의 어머니가 이제는 한동네에
서 코맛대고 사는 사위가 며칠전너로 오는데도 올
적마다 맨발로 달려나올 정도가 되었고 사위자랑
을 못해 몸살을 앓는다. 때로는 저로서도 사위자
랑이 지나치게 알리는지 《글쎄 술에 찹찹해서 더
러 실수가 있긴 하지만.》 하고 이도저도 아닌 소
리를 해서 사람들을 웃긴다. 하기는 학술이 애주
가인것만은 사실이고 또 그것이 지나쳐 몇번 뒤
를 뺏지 못한 일도 있어 비판을 받고 그제 속상
해 마은실이 운 때도 없지 않았으니 한동네에 딸
을 주고 무턱 감쌀수 없는노릇이기도 했다.

하긴 그쯤한 흠은 학술에게 있어 찔섬에 낫었
다. 그는 갈데없는 팔방미인이였다. 누군가 그가
술을 천병쯤 마셨을거라고 과장된 소리를 한것이
그대로 이름에까지 끼여 《천병술》이로 불리
워지고 그때문에 그에게 친구가 많다는 말들도 없
지는 않았지만 실은 어데 가나 친구가 많은것
은 인간됨이 좋고 불임성이 좋아서였다.

옛날부터 둘러리는 금술이 좋고 자식낳이 잘하
는 부부로 하는 풍습에 따라 오늘 천학술이네 부
부가 뽀했다. 신랑신부와 의 관계가 여간이 아
니고 또 떡돌같은 아들을 둘씩이나 낳고 재미
있게 사는 가정인데다 그들부부와 신랑신부사
이의 관계를 봐도 그래 그들만한 책임자가 없
기도 했다.

마은실이 함께 들어가자고 했으나 귀남은 들어
가기를 단념했다. 이제껏 제 집처럼 드나든 집이
니 주저할 까닭은 없으나 오늘은 매부된 오철
윤이를 만나는걸 서두르고싶지 않았다. 누이동생
과 나란히 선 그때 밤새 곱씹어외워둔 말을 의의
깊게 해주고싶었다.

걸음을 다우쳐가던 귀남은 리발소며 목욕탕이
잇달린 종합편의봉사건물을 지나쳐 상점앞에서
대형거울을 안고 조심스럽게 나서는 판매원녀
인과 마주쳤다.

《귀향이 오빠구만. 좀 도와주구려.》 하고 급한
소리를 했다. 무겁기도 하거니와 눈길에 지쳐 꺾
가봐 걱정했다. 누이동생네가 살 새집으로 가
져간단다. 거울을 맞들어주니 씨암답걸음이던 녀
인이 한결 가볍게 움직였다.

《어쩔 그리 홀룡할가!》

녀인이 누이동생의 소행을 놓고 감심한 소리를
했다.

《사실 아들이 오면 내 며느리 삼을 욕심이였는
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 내 며느리된것보다 더
기쁘구만.》

머지않아 제대되여올 아들이 있는 녀인의 솔직
한 심정이였다. 상점에 좋은 화장품이 들어오
면 따로 건사했다 귀향이에게 들려주던 판매원이
다. 그러고보면 그 호의와 관심이 괜한것이 아니
였는가보다. 하긴 그런 욕심으로 넘본게 한둘
이 아니었으니 놀랄것도 없다.

누군가 모로 세워든 거울을 맞들어주며 다정히
말했다.

《어서 가봐요. 그러지 않아도 바쁠텐데...》

돌아보니 리사무장의 안해였다. 제대군관인 남
편을 따라 이 고장에 온 녀인인데 여느때엔 얼굴
이나 알고지내는 정도였다. 옆에 따라선 중학
교졸업학년의 아들이 꾸벅 인사를 했다. 손에
는 윤기 자르르한 새 기타를 총가목부여잡듯 쥐
고섰다.

《우리도 새집구경을 가요.》

그들도 누이동생네 집으로 간다.
리에서는 영예군인 새 가정을 위해 새 마을의
제일 좋은 집을 배정해주었다.

《이 애 아버지가 기념품, 기념품하는데 뭐 마
땅한게 있어야지요. 생각다못해 이걸...》

녀인의 눈길이 아들의 손에 들린 기타를 더듬었다.
준비한 기념품도 의의있지만 그렇게 생각해
주는 마음이 더 고맙다. 귀남은 고마움의 인사를
좀더 살갑게 하고싶었으나 제 마음을 대신할 적
중한 인사말이 얼른 떠오르지 않아 그저 고맙
다고 외쳤다.

《고맙긴요. 인사루 말하면 우리가 해야지.》

《그렇잖구. 그래서 나도...》

판매원이 깨끼었다. 무슨 말인가 또 이어덜 잡
도리다. 무슨 말거리가 없어 더 말을 못하는게 아
낙네들인가싶다.

누이동생의 소행을 두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를 붙잡고 이러니 귀가 솔갑다. 꼭 하늘이 준 비
를 두고 인사는 부처가 받는 격이어서 웅색하기가
이룰데 없었다.

귀남은 쫓기듯 녀인들결을 떠났다. 몇집 들려
누이동생네 분조를 돕는 문제를 토론했다. 그런
뒤 돌아서 막개펄로 향하던 귀남은 누이동생이 살
새집앞을 지나려다 그저 지나칠수 없어 담너머를
기웃했다.

한마당 복잡했다. 엇그제 실어다놓은 한차분
의 화목이 거의 절반이나 토막쳐져 쌓여져있고 그
옆에 패놓은 장작이 더미를 이루었다. 마을의 젊
은축들이 새벽에 몰려와 자르고 패고 한 모양이었
다. 거기에 동네 조무래기들이 달라붙어 톱질을
한다, 나무를 켜다 심갱이질하고있었다.

한걸음 먼저 와서 집안팎을 돌아보고 나오던 리
당비서와 관리위원장이 발을 탕 굴렀다.

《그만큼 일했는데두 이녀석들 무슨 재구를 칠
려구. 저런, 석대포네 둘째, 네 녀석은 아무래도
붙잡아 종아리를 쳐야 할가보다.》

조금도 악의없는 그 소리에 아이들이 와— 달아
나면서도 좋아라 웃는 모습을 보며 두사람은 허허
거렸다.

어데선가 꾸꾸— 거리는 닭울음소리가 들렸다.

리당비서가 사위를 두릿거리다 짐작이 가는게
있어 마당 한구석의 새 닭장으로 다가갔다. 장문
을 열자 꼬꼬댁!— 하는 급한 소리와 함께 두마리
의 닭이 화를 치며 날아나왔다.

《에쿠!》

한발 뒤로 물러서면서도 자못 즐거워 싱글거렸다.

《벌써 새 주인이 입사하셨구만.》

그옆 토끼우리앞에 다가선 관리위원장도 우리안
의 실한 엄지토끼를 보며 웃었다.

이번엔 오철윤이네 집으로 가보자며 대문밖을
나서는 그들의 발치에 목사리를 한 하얀 강아지가

깡깡 감겨들었다.

엇저녁까지도 없던것들이었는데 누가 첫새
벽에 안아다놓은것 같다. 정말 고마운 이웃들이
였다. 영예군인을 위해, 그와 한생의 길동무가 되
고저 나선 누이동생을 위해 한가지라도 더 보태주
고싶어하는 마음들이 벌써 새집 구석구석에 깃
들었다.

전실에 들어서니 병곳이 열린 사이문으로 녀인
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사내처럼 결절한 목
소리가 뒤따랐다.

《웃긴, 두고보지. 내 딸이 틀리나. 치마폭에
들지 않는 사내가 어디 있어. 괜히 사내라구 우쭐
해서 그렇지 내용은 없어.》

작업반 기술원의 처 장안순의 목소리다. 도소재
지 가까운 어느 채석장에서 기증기운전공을 했다
는 녀인은 입이 걸어 웬만한 사내들도 낫을 찡그
린다. 성격이 개방적인데다 청이 굵고 행동이 성
큼성큼해서 남자로 태여날걸 잘못했다는 말들을
했다. 눈썰미가 빠르데다 무슨 일에서나 막히는데
가 없다. 일에 들어서면 녀자일, 남자일 따로 없
어 한것새 혼자손으로 돼지우리를 짓는가 하면 때
로는 남편이 망가뜨린 자전거까지 제손으로 손질
하는 녀인이었다.

며칠전부터 도시가까이에서 살아본 제가 적임자
라며 현대적인 본보기집을 꾸린다고 장담해나섰
다. 정말 처녀 몇을 데리고 며칠밤을 바르고 불이
고 옮기고 하더니 구경은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해놓았다. 어제 벌써 제 입으로 《완료》
라고 장담해놓고도 아직도 뭐가 모자라 그러는지
모를 일이다. 결혼식전까지 그저 웃고 떠들어보느
라 그러는지도 모른다. 그가 따리를 트는 곳이면
어데나 웃음판이었다.

귀남은 슬며시 문을 닫고 나오고말았다. 입심이
센 장안순이 보면 단박에 웃음집을 내흔들며 허파
가 녹아들 때까지 이리 굴리고 저리 번지고 할것
이었다.

퇴마루아래에 내려서니 대문가에서 강아지가 목
사리를 뺨뺨히 쾅기워가지고 이쪽으로 오지 못해
바등대고있었다. 귀남은 그놈의 앞다리를 잡아 허
궁 들어올렸다.

《어미결을 떠나왔으니 그럴수도 있겠지만 괜찮
아, 너도 새살림에 정을 들여봐라. 재미있을거
다. ... 이 집 세대주말이나. 훌륭한 사람이다. 또
주부 로귀향으로 말하면 내 누이동생인데 마음이
곱단다. 그래 그건 이 오빠가 장담하지.》

문득 담너머에서 차경적소리가 울렸다. 멈춰
선 승용차에서 군당책임비서가 내리더니 곧장 대
문을 밀고 들어섰다. 마당을 휘 둘러보고는 《벌
써 새살림을 시작한것 같구만.》 하고 흐뭇해했다.
농장에 다녀갈적마다 오철윤의 생활에 대해 관심
해주는 일군이였다.

책임비서가 퇴마루에 올라 출입문을 열었다. 그때 방 안에서 장안순이 또 무슨 소리를 했는지 녀자들이 일시에 웃음소리를 뿜어올렸다. 책임비서는 한동안 방안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서서 조용히 웃었다.

《이제 두고보라니. 우리 귀향분조장이 떡돌 같은 아들을 낳지 않나. 신랑얼굴을 보지. 혈색이 불길불길한게 용을 쓰게 생기지 않았나. … 얼굴이 희멀끔해서 도무지 감정이 있어보질 않는 우리 서방님두 구실을 했는데… 영 피가 뛰는 사람같지 않아 일찍 내쫓아버리는게 옳지 않을까 생각중이지만 차마 아이들을 봐서 못 그런다니…》

옆에서 또 깔깔 웃어댔다.

군당책임비서도 껄껄거렸다. 문을 밀고들어가며 한마디 했다.

《너자가 소박맞았다는 소린 들었어도 사내가 쫓긴다는 소린 침 듣는다?》

녀자들 몇이 상점에서 금방 가져다 걸어놓은 거울에 꽃장식을 하다 이쪽을 돌아보고 애고고— 숨넘어가는 소리를 냈다.

보다 우스운건 장안순의 남편이 건너방에서 누가 왔나 하여 얼굴을 내민것이다. 그도 오늘 막개펄의 니탄상차때문에 몸을 빼지 못하는 양반장대신 여기에 붙어 도와주게 되었다. 그는 사내처럼 큼직큼직한 안해대신 손끝이 여물고 섬세해서 기술원일은 물론 이런 일에도 적임자였다. 옷방에서 팔랭이같은 안해의 이죽거림을 듣고도 귀면 뉘처럼 나죽었소다 하더니 이제야 반응을 보였다. 책임비서에게 인사를 하고는 안해를 흘렸다.

《무슨 놈의 망신 고볼통이 시킨다더니… 괜히 속은 없는게 입만 살아 저립니다.》

책임비서가 누구에게라없이 한눈을 찌긔했다.

《아무래도 세대주가 사내구실을 잘못하는것 같애. 차라리 쫓겨나기 전에 스스로 자리를 내는게 낫지 않을까?》

기술원은 씨물씨물 웃기만 했다.

책임비서가 능청스러운 눈으로 장안순을 보고 말했다.

《안되겠구만. 사내결함들중에 그 결함이 제일 큰거 아니요. 녀자가 그런 생각을 할 때쯤이야 오죽했겠소?》

장안순이 우습강스럽게 펄쩍 뛰는 시늉을 하며 팔을 내저었다.

《책임비서동지, 진작 내 남편만 한게 있으면 당장이라두 결심하겠는데 암만 둘러봐야 없습시다. 그래서 이젠 단념하구 잘났던 못났던 내 남편밖에 없다 하구 삽니다.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제일주의> 말입니다. 그렇게 살면 실지 내 남편만 한게 없어됩니다.》

모두들 한바탕 웃었다.

《어이구, 부부사랑에도 <주의>가 다 있구.

이제 보니 기술원동무의 안해가 요란한 철학가구만.》

한동안 이야기가 씨실날실 엮여지듯 웃음속에 꽃을 그리고 나비를 수놓았다.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리당비서가 들어왔다. 군에서 책임비서가 왔다는 소식을 받고 달려온게라고 생각했더니 그것만이 아닌것 같았다. 수인사끝에 바짝 다가들어 뭐라 가만히 이르는데 책임비서의 얼굴이 긴장해지는데 보니 뭔가 긴급한 문제가 생긴듯 했다.

군당책임비서는 맹랑한 낯빛으로 《오늘 오동무 결혼식을 보자 했더니…》 하며 서운해했다.

벌써 담너머에서는 승용차가 부릉거리고있었다.

귀남이네는 차가 떠난 뒤에야 군에서 새로 일떠세우는 중소형발전소에 들어앉힐 발전설비를 실은 자동차가 급인돌이에서 눈에 덮인 길옆 수렁에 미끄러져들어갔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차가 깊숙이 빠진데다 한쪽으로 기울어져 발전설비가 위험하다고 했다. 주변에서 목격한 몇사람이 얼음이 버석이는 수렁판에 뛰어들어 사생결단으로 기울어져가는 차를 벌치고 고이고혔으니 망정이지 큰일 날번 했단다. 그래 급히 구조대책을 세워야 했다.

귀남이와 함께 행길에 나와선 사람들모두가 걱정과 서운함이 엉켜 침침해진 눈빛으로 눈을 휘감아뿌리며 질주해가는 승용차를 바라왔다.

3

행길을 사이 두고 오른쪽은 새로 지은 새 마을이요. 왼쪽엔 인봉천기슭에 돌서덜을 번듯하게 닦아 일떠세운 작업반선전실과 탈곡장이 잇달렸다.

이전 반장인 오로인대에 터를 닦았다면 후임인 양반장대에는 그 터우에 현대감나는 새 건물들을 일떠세우고 주변에 흔한 석비레로 블록을 찍어 네모반듯하게 담장까지 둘러놓았다. 오로인이 반장사업을 할 당시 땅이 귀한 인봉에서 경지를 탈곡장으로 쓰는건 옳은 일이 못된다고 하며 이 인봉천기슭에 석축을 하고 지대를 높이는 방법으로 터를 닦았다. 그러느라니 술한 품을 들였다. 때문에 탈곡장이니 선전실이니 이야기될 때면 오로인의 수고도 함께 얘기되곤 했다. 사람들의 아름다운 추억속에 사는것도 인간의 락인것이다.

작업반선전실앞에서 양반장이 프락포르의 발동을 거느라 땀을 흘리며 애쓰고있었다. 벌써 퍼그나 씨름질했는지 숨이 차 헐떡거리며 시동돌리개를 련속 돌려댔다.

타—타—탕!

하지만 프락포르는 급한 음식에 개킨 뉘처럼 재채기소리를 연발하더니 걸린듯싶던 발동이 맥없이 꺼져버렸다. 찬 날씨때문인지 아니면 프락포르가 낮가림을 하는지 한참 신고를 하는데도 그 모

양 그 꼴이다.

반장은 그만에야 앞바퀴에 털썩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씩씩거렸다.

50고개밀인 양반장은 농사물계가 환한데다 조직자적수완이 있어 평이 좋았다. 이신작직도 잘했지만 사람들을 불러일으킬줄도 알았다. 매사에 치밀하고 타산이 정확해 하는 일이나 조직하는 일이 실수가 없었다. 그런 반장이 직접 트랙포르에 매달려 씨름하는걸 보니 사정이 있는것 같다.

귀남은 말없이 트랙포르에 다가가 이것저것 살펴보고는 필요한 손질을 했다. 자신있게 시동돌리개를 잡았다.

드디어 발동이 걸렸다. 재채기소리가 점차 고르로와졌다.

양반장이 감탄했다.

《그것 참! 역시 땅크병출신이 다르구만.》

《어떻게 된겁니까?》

《나도 모르겠소. 에- 하필이면 오늘같은 날...》

반장이 볼부는 소리를 했다.

공교롭게도 운전수가 발목을 곱질렀단다. 그래도 책임성은 있어 제가 차를 끈다고 우둘렁거리는걸 양반장이 무조건 안정해야 한다고 막 밀어보냈단다.

《제가 마침 왔군요.》

귀남이 제잡담 차에 오르려니 반장이 야단을 하며 붙잡았다.

《이 사람 정신이 나갔구만. 동생이 당장 큰상을 받겠는데 오빠란 사람이 운전대를 잡아?》

무작정 귀남일 끌어내리자고 했다.

《걱정마십시오. 당사자도 분조농사때문에 니탄 생산현장에 나갔는데...》

《뭐요?》

처음엔 그 무슨 도깨비감투끈이나 하더니 그것이 죄다 사실임을 확인하고는 어처구니가 없어 허허거렸다.

《그래 신부가 막개펄에 가있으면 큰상은 신랑이 혼자서 받는다오?》

《그럴리가 있습니까. 그 시간전에 상차를 제격 끝내자는거지요.》

《원, 알다가도 모르겠소. 좌우간 그렇다면 시간전까지 귀남동무신세를 지도록 하지요. 아무래도 난 연하덕쪽에 올라가야 할가 보오.》

마감차에 진흙을 한차 실어야겠는데 그러자면 미리 그것을 파놓아야겠다는것이다.

《어떡하겠소. 오반장(양반장은 지금도 오로인을 옛 직무대로 부르곤 했다.)네 로인분조에서 흙구이를 하겠다는데... 자 그건 그렇구, 말씨름할새가 없지. 빨리 떠나오. 상차조에서 시간을 당기겠다는데 손발을 맞춰줘야지.》

양반장은 트랙포르옆에 놓여있던 삽과 곡괭이를 찾아들며 걱정어린 어조로 말했다.

《연하덕 진흙상차로력이 없는데 야단은 야단이요. 그렇다구 늙은이들을 불러낼수는 없구.》

막차를 부리고 진흙을 신자면 상차로력이 움직여가는 시간과 맞지 않는다고 걱정했다. 귀남이 생각컨대 반장 혼자서 언 진흙을 까는것부터가 조련치 않을것이다.

《걱정마십시오, 반장동지. 우리 제대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장에게 자기와 약속한 동무들이 인차 나오테니 그들을 데리고 가라고 일렀다.

귀남은 막개펄을 향해 냅다 트랙포르를 몰아갔다. 병사시절 무쇠철갑속에 틀고앉아 조종간을 잡았을 때 느꼈던것과 비슷한 흥분이 다시금 살아올랐다. 그러나 싱거운감도 없지 않다. 그땐 공격화살표가 그어지면 산도 강도 서슴없이 단숨에 넘었다. 한데 지금은 번듯한 행길로 흥얼흥얼 코노래를 부르며 너무 순조롭게 달린다. 하지만 병사시절의 그 정신, 그 기백이야 어디에 가랴. 그는 새로운 힘이 온몸에 뿔쳐오르는것을 느끼며 변속단수를 더욱 높였다.

귀남이 트랙포르를 몰아 막개펄에 당도하니 떠들썩 반겼다.

모두들 사기가 났다. 운전수가 발목을 접질러 오전중에 상차를 끝내기 코집이 글렀다고 손맥을 놓았던 그들이였다. 그러지 않아도 부모 없는 자식들처럼 분조장없이 저희들끼리 작업장에 진출해서 서운했는데 문득 분조장이 나타나 작업장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그런데다 이번엔 분조장의 오빠까지 저희들을 돕자고 트랙포르를 몰고나온것이다.

일손들에 성수가 났다. 와-와- 소리치고 웃고 떠들고... 망돌같은 니탄덩어리가 적재함으로 썩썩 날아올랐다. 한차를 싣는데 눈깜짝할새다.

《아유, 세상에 재미 재미해두 오늘처럼 일이 재미있는 때가 생전 있어본것 같지 않아요.》

《결혼식날에 신부와 함께 일한다는게 바이 견줄데 없는 멋이니 당연한결세.》

트랙포르를 몰고 연하덕을 돌아온 귀남은 깜짝 놀랐다. 작업장에 사람들이 차고넘쳐던것이다. 척 보기에온 온 작업반사람들이 모두 떨쳐나선것 같았다. 귀남은 눈썹이 핑그르르해났다. 고마운 사람들, 인정이 많고 마음씨 고운 우리 고향사람들...

모두들 트랙포르가 다녀오는 사이에도 욕심을 부려 니탄을 캐느라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다. 그것도 일욕심 많은 누이동생이 술선 말없이 이끌었을것이였다.

귀남이 자꾸 캐내면 상차가 늦어지지 않느냐 웃었더니 어느 아낙네가 《우리 분조장에겐 결혼식 시간보다 이 니탄캐기가 더 중요하다우.》 했다.

누군가 또 알은체 했다.
 《우리 분조장이 걱정 안하게 됐나. 분조에 식구가 한명 더 늘어나는데.》
 《신랑 말인가, 한명쯤을 놓고 걱정할 우리 분조장일가.》
 《그렇잖구. 걱정말아요, 분조장. … 오늘 실어내는건 다 신랑신부몹이요.》
 《그것 좋구만. 자, 그럼 또 시작해봅세. 신랑 몹이요— 하나!》
 《이건 신부몹이다. 두—울!》
 이번에도 신랑신부이름을 엇갈아부르며 셈을 잇는 사이 니란이 적재함에 가득 채워졌다.
 어느 싱검등이가 가락맞게 이어지는 셈세기에 끼여들어 《아들몹이요. 삼—백!》 하고 소리쳐 룰동적인 흐름이 그만 깨졌다.
 《이건 또 뭐야?》
 《아— 래년엔 우리 분조장네 식구가 더 늘것이 아니요.》
 《하하—》
 《식구가 느는게 걱정일가. 이제 연하덕까지 꺼져내리게 농사가 되면 별방이 부러울소냐. 뒤주도 늘이구 창자도 더 만들구. … 아마 입이 모자라 자랑을 다 못할걸.》
 《아파, 자랑일랑 작작 해야지. 그러다 몽땅 우리 인봉에 몰려오면 큰 야단 아닌가.》
 《걱정두 팔자다. 오는이마다 우리 인봉을 따라 배우라 일깨워 돌려보내면 되지.》
 《너무 야박하다 하지 않을가.》
 《한끼 배불리 먹여보내면 되지. 그렇다구 우리 인봉만 따로 들어앉을수야 없지 않나.》
 《그건 또 무슨 소리요?》
 《강성대국대문안에 우리 인봉이 제일먼저 들어선다 그 말이지.》
 《그렇듯해.》
 《하하하.》
 《호호호.》
 귀남이 연하덕에 갈 때마다 양반장은 놀라와했다.
 《벌써?! … 땅크병의 운전숨씨가 역시 다르군 그대.》
 《프락또르속도야 어데 가겠습니까. 상차성원들이 불이 번쩍나게 실어주니 말이지요.》
 《그참!》
 마감무렵엔 장안순이까지 상차현장에 나타났다. 세판기도 했다. 사내들이나 들 큼직한 니탄덩어리를 혼자서 히히 들어던지면서도 혈색이는 기미가 없다. 일은 일대로 하면서 성격 그대로 입심을 부려 일판을 늦췄다당겼다 조화를 부렸다.
 귀남이 들으려니 군당책임비서가 왔다면 이야기를 하는데 청중을 끌어당기느라 한절반은 꾸며낸 소리를 했다.
 《책임비서동지가 새집을 보고 너무 희한해서

〈이런 집은 나도 첩 보우.〉 하면서 누가 꾸렸나 물으시두만. 이 장안순이 척 나서서 〈소인이 말아했습니다.〉 했지. 그랬더니 책임비서동지가 〈우리 집두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겠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쁜 일이나 제껴놓고 가서 해드리리다 했어요.》
 이야기가 과장된것임에도 사람들은 별로 의심하지 않고 재미있게 들었다. 장안순이 어떤 연고로 이미 책임비서를 잘 알고있다는 점에서였다.
 첫 해산때 장안순이 속에 태아가 잘못 놓였다는 소리에 놀라 읍에 가겠다고 나섰다. 사실은 리병원에서 안심을 시키는데도 시어머니가 큰 병원에 가는게 등탈이 없다고 우겨 떠나지 않을수 없었던 것이다. 한창 바쁜 모내기철이라 따라서는 식구들을 만류하고 혼자 나섰다. 읍까지 30리길이라 걷기가 벅찼지만 멀미때문에 차를 피했다. 몸이 무거워 슬금슬금 걷는데 얼마 못가 진통이 오기 시작했다. 허리를 꼬부리고 진통을 참다가는 다시 걸었다. 그러다 종내 길녘에 몰았아버렸다. 그때 차소리를 들었다. 다짜고짜 길을 막았다. 당장 해산이 급박해온것만 같아 멀미따위를 걱정할새 없었다. 그것도 한가할 때 하는 투정이였다. 그렇게 멈춰세운 차가 군당책임비서차였다. 그때 책임비서가 《간호원》 노릇을 하느라 땀깨나 뿜었다고 했다. …
 어쨌든 장안순이 나타남으로 해서 작업장이 한결 더 흥그러워진것만은 사실이였다.
 …12시를 가까이해서 양반장은 귀남을 억지로 끌어내렸다.
 《아직도 신부가 막개펄에 있으면 어떡한다는데요. 물론 분조장이야 함께 있자구 하겠지. 아무리 그래두 나살이나 건사한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서 일처리를 그렇게 해야 웬소? 노루쫓지만 한 겨울 해를 놓고 한다는 짓거리들을 보면 내 원참.》
 양반장은 정말 성이 독같이 났다.
 《모두 온전한 정신들이 아닌것 같단 말이요. 하긴 나부터 잘못했지. 신부가 작업장에 나간걸 알면서도 내버려두었으니… 군말 말고 먼저 내려가 사정을 좀 잘 얘기해주요. 사람들이 우릴 얼마나 욕하겠소. 막개펄엔 내가 가서 대책하겠으니.》
 누구를 욕할것도 없다.
 큰상을 받을 본인이 마지막차까지 실어보내고 모두 함께 내려가자고 우기는데야… 일에 들어서서는 이악하기로 소문난 처녀분조장 귀향의 고집을 누가 꺾으랴. 아마 반장도 두손을 들고 나앉았을것이다. 게다가 분조장을 지지해나서는 장안순의 말주변에 모두가 웃고말았다.
 《아무렴, 분조장의 생각이 옳구말구. 한집안식솔이나 같은 분조원들없이야 무슨 재미에 큰상을 받겠소. 그거야 부모형제들없이 잔치를 하는거나 같지. 이제 일을 끝내구 다같이 내려가서 큰상

을 받는게 더 좋지. ...

차라리 잘됐어요. 꺾어보니 큰상을 받아놓은 뒤가 더 고달프더라니까요. 난 큰상을 빨리 받고 싶어 일찍 시작했다 혼났어요. 저녁 신방에 들 때까지 포개고 곱게 앉아 참한 새각시흉내를 낼려니 허리가 아프지, 다리가 저리지, 너무 급해 가만히 달아나 발을 열구며 뒤울안에 서있기까지 했더니 까요.》

장안순의 말에 아낙네들이 옳다고 맞장구를 치며 나섰고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다. ...

귀남은 덕을 내리며 대사를 망친다고 푸락거리던 반장을 생각하며 혼자 웃었다. 이제 시작을 해도 주례가 순서를 번지지 않고 얼마든지 갑자지를 꼭꼭히 엮을수 있겠는데 공연한 걱정이다. 얼마나 좋은가, 일도 제끼고 결혼식상도 받고. ...

4

원래 결혼식은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상을 받고 색시를 제집에 데려다 식을 하는게 상례였지만 이번엔 좀 다르게 하기로 했다. 신랑신부가 오가며 랑견 부모님들께 인사만 올리고는 모두 새집에 와서 상을 받기로 했다.

식을 올리기로 계획한 시간도 되기 전에 벌써 신랑의 집앞에, 신부의 집앞에 그리고 새집앞에 사람들이 모여와 술렁거렸다. 코를 훌쩍거리는 개구쟁이로부터 머리가 모시바구니가 된 늙은이들에 이르기까지 남녀로소모두가 펼쳐나선것 같았다.

귀남이 돌아오니 그새 집에서는 소동이 일어났다. 잠깐 돌아온다며 아침에 나간 딸이 아직까지도 나타나지 않았기때문이었다.

당장 신랑이 오겠는데 큰일났다. 온 집안이 사방 펼쳐나서 있을만 한데는 다 가보았으나 누구도 보았다는 사람이 없었다. 함께 나간 오빠까지 없으니 무슨 감투끈인지 알수 없어 속이 새까매 돌아쳤다.

부모들은 마은실이까지 와서 못 보았다고 도리질하자 뭔가 일이 잘못된게라고 속단했다. 사색이된 어머니는 방구석에서 낮빛이 컴컴해 한숨을 쉬고 아버지는 맨발바람으로 퇴마루에 우두커니 서서 담배만 피우고있었다.

집안분위기가 어수선했다 모두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공연히 안절부절 못하고있을 때 오빠가 나타나고 뒤이어 귀향이 분조원들속에 싸여 나타났다.

어머니는 눈물이 찔끔해 딸에게 결혼식날이 돼서 참는다면서도 맺힌 속이 풀리지 않아 한참 사설을 했다.

《어머니, 딸때문에 마음쓰는 어머니의 그 마음을 우린들 왜 모르겠나요. 하지만 우리 장군님을

만드는 길에서 자기 한몸을 바친 영예군인 새신랑의 뒤편까지 합쳐 더 많은 일을 해서 농사를 잘 지으려는 우리 분조장의 마음이야 어머니가 더 잘 알지 않나요. 까짓, 잔치에 미진된 일이 있으면 우리 분조원들이 있지 않나요. 와다닥 달라붙어 단숨에 해제끼지 않을라구요.》

장안순이 제 분조장편역을 들며 어머니마음을 가라앉혔다.

귀남이 미안한대로 출발을 늦춰달라는 어머니의 전갈을 가지고 오철윤이네 집으로 가니 신랑측 사정도 매일반이었다. 둘러리 천학술이 오지 않은 때문이었다.

오철윤이네 집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처음엔 초조해하는 눈빛이더니 종내 참지 못하고 수군거렸다. 대사를 망친다고 분개해하는 축들도 있었다.

《그 버릇 개를 때줄라구. 소귀에 경 읽기. 지. 읍에 가면 점심은 건네도 술 건넨 때가 없다는 <천병술> 이 오늘이라구 목구멍에 썩기를 쳤을텐가.》

누군가 안타까운 나머지 소경 점치듯 하는 소리를 모두가 그럴상싶게 들었다. 말이란 원래 보태지는 법인데다 꼭해서 하는 말이니 더욱 곱지 않아 학술이 읍에만 가면 술을 마시고 오는것처럼 돼버렸다.

아무래도 미타해서 짬을 내어 신랑집에 왔던 마은실이 그 소리를 듣고 새파래서 내쫓았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무렇게나 막 지어서 말하는건 못된 술버릇보다도 더 고약한거예요..》

하면서도 불안을 못 참아 안절부절했다.

오로인이 쓰거워난 입을 다시며 푸락푸락했다.

《탐타치 않다 했더니... 내 이녀석을 그저, 그저...》

한쪽에서는 이제라도 다른 대상을 준비시켜 시작하는게 옳지 않겠는가 하는 말이 나왔다. 그런데 신랑이 반대했다. 동무를 믿어야 한다는것이였다. 시간을 못 지키는건 모르긴 해도 불가피한 다른 사정이 있기때문일것이라 했다.

돌아갈념을 못하고 마당에 박혀서서 행길쪽을 살피던 마은실이 환성을 내질렀다.

《와요! 저기 와요!》

파연 백양나무숲아래 동구길에 자전거를 탄 사람이 보였다. 아직은 거리가 멀어 사람의 모습이 어렴풋해 마당에서는 학술이 옳다거니 아니라거니 입씨름을 했다. 점차 마을길에 가까이 다가와서야 함께 사는 안해의 눈이 다르다고 감탄했다.

그런데 자전거로 달려온 학술의 행색에 사람들은 입을 딱 벌렸다. 개울창에 처박히기라도 했는지 아래도리가 화락하니 젖었는데 꾸덕꾸덕한 바지에 온통 흙이 게발렸다. 아래모양은 어데 빠졌다 해서 리해를 한다치고 우정 매닥질한

것 같은 솜옷주제는 아무리해도 리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다. 비맞은 장닭모양 꼴불견이 되어 미안하다고 퍼렇게 얼어든 입술을 겨우 놀리는 그를 보고 모두들 고개를 외로 틀고 쓴입을 다셨다. 그래도 생화는 어디서 구했는지 싱싱하고 탐스러운 꽃송이들이 한아름 잘피었다. 아무튼 그 모든게 술때문에 빚어진 사달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눈길도 끄지 않아 비뚤어진 소리를 했다.

《이제는 마신 술량이 천병은 훨씬 넘었을거야.》

《천병술이란 이름두 틀렸지. 만병술이라는데 옳을것 같애.》

오로인이 학술의 앞을 막고 눈을 찔 흘렸다.

《한뼉을 그렇게 살텐가? 그놈의 도깨비장물 이 그렇게두 소중하던가? 음음—》

작업반장을 하던 때부터 드문히 애를 먹이던 학술이니 그저 미운털이 박혀 그런다.

《두고보자.》

로인이 푸르락거리며 버르는데도 학술이쪽에서는 아무 변명도 못했다. 결혼식에 지장을 준 잘못때문인지 그저 곱상스럽기만 했다.

시간이 급했으므로 학술이 늦은 문제를 두고 시야비하할새가 없었다. 마은실이 새옷을 가져다주며 등을 떠밀어 딱한 자리를 모면할수 있었다.

천학술이 신랑을 찜찜먹을 미끈한 모습으로 나섰다. 퍼렇게 얼어든걸 가리느라 입술에 빨간 연지까지 발라 사람들이 킁킁거렸다.

그때 한대의 승용차가 질주해와 대문앞에 멈춰섰다. 아침에 바빠 떠나갔던 군당책임비서가 차에서 내려섰다. 이번엔 군인민위원회 위원장도 함께 왔다.

《마침이구만. 자, 오철운동무, 이 차를 타고 가시오. 위원장동무, 우린 걸어서 갑시다.》

옆에서 학술이 신랑을 부축하느라 헤덕비는걸 보며 책임비서가 《오, 발전기를 살려낸 동무구만. 글썄 내 꽃에 무슨 사연이 있는것 같다 했더니... 그래그래, 정말 괜찮아. 이런 중요한 대사에 늦으면서까지... 음.》하고 고개를 끄덕끄덕했다.

천학술이 쑥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책임비서동지, 그런 말씀 마십시오. 누구도 그런 경우에 닥치면... 책임비서동지도 얼음구덩이에 뛰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때야야 귀남은 모든것을 가늠할수 있었다.

현장에서 발전설비를 실은 자동차의 사고를 제일먼저 목격한게 천학술이었다. 앞뒤를 생각할새없이 수렁에 뛰어들었다. 정신없이 돌아치며 기울어지는 자동차의 첫 위험을 막아냈다.

사연을 안 사람들은 그제서야 밝아진 기색으로 떠들었다.

《글썄 그러면 그렇겠지.》

《아무렴, 우리 천학술이가 누구라구.》

옆에서 마은실이 눈을 꼭게 흘렸다.

뛰니뛰니해도 제일 바빠난것은 오로인이었다. 가래날같이 넘적한 손바닥으로 학술의 잔등을 찰썩 갈겼다.

《이녀석, 그럼 그렇다구 진작 말을 못해?!》

학술은 먼구스려운듯 그저 얼굴만 붉혔다.

누군가가 옆에서 시까스른다.

《보세요, 아바이. 무슨 사연이 있을거라구 내 말했지요.》

오로인이 말하는 사람을 돌아보고는 눈판에 발을 굴렀다.

《예끼 녀석, 천병술이란 말을 제일먼저 지어내게 네녀석이.》

와— 웃음판이 터졌다.

드디어 신랑을 태운 승용차가 신부집을 향해 천천히 미끄러져가고 그뒤에 책임비서와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따라섰다. 사람들이 그뒤를 좇으며 좋아라 웃고 떠들었다.

《글썄 그렇겠지. 세상에 좋은 대사가 되는 법 없다했거늘!》

《차라리 학술이 늦은게 다행이니 칭찬을 해야겠수다.》

《그게 다 좋은 일루 늦었으니 그리된걸세.》

얼마후 승용차가 결혼식장에 왔다. 새 살림집마당은 사람들로 꽉 찼다.

대문앞에서 오철운이 승용차에서 내려 삼륜차를 탔다. 신부 귀향이 뒤에 서고 그뒤로 좀 떨어져 량옆에 학술이네 부부가 갈라서 걸었다.

대문에서부터 테프가 늘어지고 량옆에 사람들이 쭈욱 늘어서 손바닥이 아프게 박수를 쳐댔다. 퇴마루우에 내다놓은 결상우에서 록음기가 노래 《축복하노라》의 선율을 울려주고있었다. 사진사가 연방 샤타를 눌러댔다.

어른들의 다리짚을 빠져 앞에 나선 라로인네 손자애는 누구를 보고 그러는지 입을 헤 벌리고 《곰구나! 곰구나!》 소리를 뽀박했다.

대문안에 들어선 신랑신부의 눈에 제일먼저 띄운것이 학교시절의 스승들이었다.

옛 담임선생 둘이 나란히 나섰다.

먼저 오철운의 담임이었던 머리 흰 녀선생이 눈물이 글썽해 신랑의 손을 꼭 잡아쥐고 목메여 말했다.

《결혼을 축하해요. 군대에 나갈 때 철운동문 영원히 군복을 입고 손에서 총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지요. 그래요, 벗지 마세요. 난 동무가 마음의 군복을 영원히 벗지 않고 한생 정보로 걷기를 바래요.》

이번에는 귀향의 선생이었던 자그마한 키에 새물거리는 눈을 가진 40대의 녀선생이 나서 신부를 그러안고 잔등을 쓰다듬었다.

《행복하세요. 한생을 시작처럼 열렬하게 사세요!》

미리 끝라두었던듯싶은 뜻깊은 말이였다.

《축하합니다!》

누군가의 선창에 따라 사람들모두가 화답했다.

《축하합니다!》

꽃보라가 날아내리고 박수소리가 높아가는 속에 노래소리가 터졌다.

좋은 때 좋은 날 맺어진 사랑

한쌍의 꽃으로 활짝 피었네

신랑신부가 자기들의 앞을 지나칠 때마다 군파리의 책임일군들도 간단한 축하의 말들을 하였다.

《신랑신부가 한마음한뜻이 되어 혁명의 꽃을 계속 피우기를 바랍니다.》

삼륜차가 천천히 출입문으로 다가갔다. 높이 않은 퇴마루에 삼륜차가 올라갈수 있게 계단폭을 좁히고 양쪽을 문턱까지 완만한 경사를 주어 거침없이 그대로 넘어 전실에 들어갔다. 삼륜차가 밖을 향해 돌아섰다.

오철운은 학술이 구해온 꽃다발을 높이 들어 흔들었다. 그의 눈에 물기가 그렁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만족한 웃음을 짓고 선 군당책임비서가 문앞가 사이에 선 리인민병원 원장이며 의사선생들을 보고 머리를 끄덕였다.

《원장선생,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돌려주세요.》

《예, 우리 더 잘 돕겠습니다. 아마 내년 이맘때엔 식구가 눈길 꼭 보게 될겁니다.》

《그래야지, 웅당 그래야지.》

라로인이 오로인쪽에 머리를 기웃이 하고 한마디했다.

《저들이 어찌 두 집안의 자식이기만 하겠소. 우리모두의 자식이구 형제가 아니겠소.》

귀남은 가슴이 몽클해나 모여선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영예군인 새 가정을 위해 마음을 써온 양반장이며 장안순이네 부부, 천학술이며 부업분조의 로인들, 첫새벽에 토끼며 살진 닭들을 남모르게 안아다놓은 고향사람들, 학교의 옛 스승들, 병원의사들, 군과 리의 책임일군들...

귀남은 이들모두가 그 어떤 인정때문에 모여오고 위해주는게 아님을 잘 안다. 그들은 오늘 남다르게 결합하는 두 청춘남녀의 아름답고 고결한 정신세계에 매혹되어 왔다. 사람들모두가 하나같이 지향하는것이 아름다움이었으니 그 아름다움의 절정에 바로 오철운이나 누이동생이서있었다.

아름다운 사람만이 아름다움을 사랑할수 있다!

아름다운 시대가 아름다운 인간들을 키운다!
귀남은 만사람의 축복속에 결합하는 누이동생부부의 행복한 모습에서 고향땅에서 아름다운 시대의 송가가 태여남을 보고있었다.

그 송가를 우리에게 안겨주신분은 바로 인민의 아버지 **김정일** 장군님이시였다. 우리 장군님 가꾸시여 온 나라가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사는 인간사랑의 토양에 새 가정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우리 장군님 기뻐하시게 열렬히 사랑하라!

우리 장군님 기뻐하시게 끝없이 행복하라!

귀남은 두눈이 젖어올라 마냥 행복해 수줍게 웃고 선 누이동생을 보았다. 동무 오철운이 행복하리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았다. 그는 이 순간에 다시한번 조국과 고향을 위해 최전연초소에 피를 바치고 돌아온 때부 오철운의 뒤통까지 합쳐 고향땅을 더 잘 가꾸리라는 생각을 굳혔다.

뒤전에서 오로인이 방금 방에서 나온 천학술의 등을 가만히 두드렸다.

《괜찮아! 장한 일을 하구서두 입을 다물고있다니...》

천학술이 씩 웃었다.

《결혼식에 지장을 주고 뭘 말하겠습니까?》

아름다운 산천에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강성대국건설의 총공격전을 벌리느라 수고도 많아 온한해 협동전야에 뚜렷한 삶의 노래를 새긴 고향사람들이 저물어가는 이해의 언덕에서 또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엮고있었다.

찬란한 해빛이 머리우에서 쏟아져내렸다.

산천엔 눈이 덮였으나 대기는 별스레 훈훈했다.

고향산천의 행복한 하루가 노래속에 흐르고 있었다.

축복하노라 그대들 새 가정

축복하노라 오늘의 이 행복

...

세계유모아

거짓속의 진리

작가 마크 트웨인은 식탁으로 한 부인을 안내하며 말했다.

《부인은 황홀하게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와 같은 좋은 말을 당신에게 해드릴수 없군요.》

그러자 작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였다.

《그럼 부인도 나처럼 거짓말을 하면 됩니까.》



철웅령의 검은소나무

김 순 철

1

우— 우—

바람이 터졌다.

온 천지를 미친듯이 이리저리 내달으며 이 세상 모든것을 다 휩쓸어갈듯 무섭게 몰아치는 눈보라, 그 사나운 기세에 우중충하니 솟아있는 산악들마저도 거대한 몸체를 웅송그리고 떠는듯싶었다.

숲이 사나운 바람에 태질하듯 몸부림치며 세차게 설레었다. 가지들을 무겁게 짓누르고있던 눈가루들이 폭포처럼 쏟아져내렸다.

허리까지 치게 쌓인 눈을 잔뜩 집어삼킨 눈보라가 우— 우— 피성을 지르며 낮게 드리운 암회색 구름을 치고 솟아있는 철웅령마루에서부터 골짜기를 따라 무서운 기세로 내리붙었다.

자기앞을 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는듯 이리저리 방향없이 몰아치며 노호하는 눈보라...

머칠동안 맴판 추위가 계속되더니 그에 동풍이 터진것이다. 철웅령일대 사람들은 이 동풍을 《미친바람》이라고 불렀다. 계절에 관계없이 이놈의 《미친바람》이 터지면 여러가지 상서롭지 못한 일들이 생기곤 했다.

리찬식은 공교롭게도 돌박산주변에서 이 눈보라와 맞닥들었다. 눈보라가 어찌나 갈개는지 숨이 격격 막히고 몸조차 제대로 가눌수 없었다. 허공을 짝 메운 눈가루때문에 한치앞도 가려보기 힘들었다. 나무 한대 없는 돌박산주변이어서인지 눈보라는 더욱 세찬듯 했다.

찬식은 한팔을 들어 얼굴을 가리우고 맞받아 불

어치는 눈보라속을 헤치며 한결음한결음 나갔다. 뒤로 돌아서면 오십리 무인지경이라 오히려 더 큰 화를 당할수 있었다. 얼마 멀지 않은 철웅령 검은 소나무숲속에 들어가야만 살수 있다는 오직 한가지 생각으로 걷고 또 걸었다.

눈보라는 열다섯살 어린 소년의 연약한 몸을 편속 사정없이 후려갈겼다. 찬식은 허깨비처럼 바람에 불리어 나가넘어졌다가는 다시 일어서서 술취한 사람처럼 비칠거리며 걸음을 옮겼다. 몇발자욱을 못 가서 또 넘어졌다.

일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며 허우적거리던 찬식은 끝내 일어서지 못하고 눈속에 얼굴을 박고 어푸러졌다.

온통 눈범벅이 된 얼굴을 들고 철웅령쪽을 바라보았다. 세차게 설레이는 검푸른 소나무숲이 몰아치는 눈보라속에서 흐릿하니 바라보였다.

어느때같으면 한달음에 가닿을수 있을 그 숲이 천리처럼 아득해보였다. 어떻게든 저기까지 가내야 할텐데...

찬식은 눈속을 엉금엉금 기어갔다. 세찬 눈보라는 영악을 쓰며 사정없이 찬식을 때리고 후려갈겼다. 끝없이 몰아치는 눈보라, 눈보라...

마지막숨을 몰아쉬는 참새처럼 할딱거리면서도 찬식은 이를 악물고 철웅령쪽을 향해 기고 또 기어갔다. 맥이 진해 쓰러졌다가는 다시 일어나 또 기었다.

뒤설레는 검푸른 소나무숲이 어느덧 손을 내밀면 닿을듯 가까와졌다.

하늘땅을 뒤흔들며 광란하는 눈보라는 검은소나

무숲에도 달려들어 발광하고있었다. 땅속깊이 억척스럽게 뿌리를 내린 소나무숲은 시퍼런 솔잎들을 바늘끝처럼 치켜들고 눈보라와의 싸움을 벌리고있었다. 팔뚝만큼 굵은 억센 가지들을 이리저리 휘저으며 눈가루들을 휘뿌려던졌다. 아름답리소나무들을 뿌리채 뽑아던질 기세로 무섭게 달려들고 또 달려드는 눈보라를 맞받아 몸부림치며 설레이는 소나무숲, 제왕처럼 온 천지를 휘감으며 달려들던 눈보라도 철웅령을 빼곡이 뒤덮은 검은소나무숲만은 어쩔수 없는 모양인지 가지에 얻어맞고 솔잎에 찢리워 맥없이 눈가루로 흐트러져 땅바닥으로 떨어져내렸다.

찬식은 젓먹은 힘까지 깡그리 짜내며 소나무숲속으로 기여들어갔다. 숲속깊이까지 들어가자 한숨이 나갔다. 솔잎사이를 스치는 눈보라의 굉음소리가 마치 사나운 짐승의 울부짖음소리처럼 들렸다. 그래도 숲속에 들어서니 미친 눈보라도 한결 잦아든 듯 하고 지어 안온한 느낌마저 드는듯싶었다.

찬식은 굵은 소나무밑동에 잔등을 기대고 앉아 긴숨을 토해냈다. 세차게 태질하듯 설레이는 솔가지들사이로 씩씩이 떨어지는 눈가루가 그의 온몸 위에 쌓이고 또 쌓였다.

맥을 놓고 쓰러진 그에게 추위가 엄습해왔다. 지은지 오래되어 다 삭아빠진 배장삼에 누덕누덕기운 홀버선우에 신총만 남은 낡은 짚신을 걸친 몸이 손발은 물론 내장까지 얼어들어왔다.

허기진데다 기운이 다 빠져 손가락 하나 움직일 기력이 없는 찬식은 터슬터슬한 껍질이 덮인 소나무밑동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눈시울째으로 가는 눈물방울이 습배어나왔다. 누구도 보는데 없는 이 무인지경 숲속에서 홀로 얼어죽는다고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서러움이 복받쳐올랐다. 눈굽에 맺혔던 눈물방울이 퍼렇게 얼어든 볼을 따라 구울러내렸다.

《어머니!》

찬식은 입속으로 가늘게 어머니를 불렀다.

그는 아버지의 얼굴을 모르고 자랐다. 그가 칠들기 전에 아버지는 왜놈목재판에서 나무에 치워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는 세상에 남은 일점혈육인 찬식을 애지중지 키웠다. 그래도 그때는 《행복》했었다. 풀죽이라도 배를 풀지 않게 해주는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있었고 바람이 세차게 불면 당장에 날아나버릴 새둥지같은 집이나마 보금자리가 있었다. 하지만 악착한 이 왜놈의 세상은 찬식이네 가정의 그 소박한 《행복》마저도 용납하지 않았다.

찬식이 열살나던 해 몸쓸 전염병이 그들이 살던 마을을 휩쓸었다. 인정사정없는 병마는 험한 세상풍파를 겪으며 아들을 키우느라 고생했던 찬식의 어머니를 쓰러뜨렸다. 찬식이 그토록 눈

물을 흘리며 엄마, 죽지 말아 하고 애원하고 또 애원했던만 무정한 세상은 그의 애절한 부르짖음을 들어주지 않았다. 어머니는 애어린 자식을 이 험한 세상에 홀로 남기고 먼저 가는것이 마음에 걸리는듯 눈도 감지 못하고 한많은 세상을 하직하였다.

혈혈단신 고아가 된 찬식은 그때부터 여기저기 헤매이며 한술두술 동냥으로 죽지 못해 근근히 살아왔다. 그러다 몇해전 우연히 인정많은 로승을 만나 서림사로 들어가 절간의 심부름꾼인 행자가 되었다. 그런데 오늘 주지의 심부름을 갔다오다가 눈보라를 만나 이렇게 된것이였다.

《엄마, 나 죽어요.》

찬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또다시 어머니를 불렀다. 하지만 이미 저세상의 혼으로 된 어머니가 어떻게 숲속에서 홀로 죽어가는 아들을 도와줄수 있으랴.

뼈속까지 스며드는 추위에 다 얼어버렸는지 이제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온몸이 떨리다 못해 팔다리가 찢찢해지기 시작했다. 손발끝이 수천개의 바늘로 콧콕 찢려내는듯 저려났다.

문득 이승의 고통을 어찌어찌하면 저승에서 어떻게든 중들의 설교가 떠올랐다. 저승에 가면 나도 복을 누릴수 있을가. 먼저 가신 아버지, 어머니의 혼이라도 만나봤으면... 어쨌든 지금의 이 고통이 괴로운 이승의 마지막고통이었으면... 찬식은 참기 어려운 이 고통이 한시라도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마음속으로 빌고불었다.

이때 눈보라소리속에서 이상한 기척이 났다. 분명 무엇인가가 두렵게 쌓인 눈을 뚫으며 이쪽으로 다가오고있었다.

찬식은 천근만근으로 무거운 눈을 간신히 가늘게 뜨고 소리나는쪽을 보았다. 누런 털을 뒤집어쓴 거뿔한 형체가 성큼성큼 다가오는것이 눈보라속에 희미하게 보였다.

짐승인가?... 이 세찬 눈보라속에서 굴을 나와 나돌아다닐 짐승이 있을가. ... 아니면 《돌귀신》?...

몇해전부터 사람들은 철웅령 검은소나무숲에 《돌귀신》이 나타난다고 했다. 철웅령 소나무림을 탐내고 기여들어 제멋대로 돌아치다가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를 돌세례에 대갈통이 부서지고 팔다리가 부러진 왜놈들이 한둘이 아니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돌귀신》을 왜놈만 잡아먹는 좋은 귀신이라고들 했다. 하지만 어쨌든 귀신은 귀신인 것이다. 찬식은 이 령을 넘을 때마다 혹 《돌귀신》이 나타날가봐 무서워 머리칼을 곤두세우고 고개를 움츠리곤 했다. 하지만 《돌귀신》은 한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찬식은 눈을 스르르 다시 감았다. 까짓, 짐승이

면 어떻게 《돌귀신》이면 어떠랴. 아무려나 고생 많은 이 세상을 떠나기는 마찬가지인것이다. 아무 미련도 없는 이 세상… 될대로 되라지. 찬식은 마음이 평온해졌다. 그의 넓은 이미 저세상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의 혼을 찾아가고있었다.

…주린 창자를 뚫게 하는 구수한 난알 익는 냄새에 찬식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다.

찬식은 지끈지끈 쑥셔나는 머리를 흔들며 사방을 둘러보았다. 어둑한 한구석에서 뿌직거리며 타오르는 광술불이 돌로 대충 쌓아올린, 막인지 집인지 알수 없는 방안을 어슴푸레하니 비쳐주어 형체를 겨우 가늠할수 있게 해주었다.

방을 둘러보던 찬식은 갑자기 사방에서 갖가지 짐승들이 무리로 달려드는듯 한 환각에 사로잡혀 그만 악 소리를 칠번 했다. 겨우 자신을 다잡고 자세히 보니 방안은 온통 짐승털가죽천지였다. 벽에도 바람이 스며들지 않게 가죽을 둘러쳐놓았고 바닥에도 부근부근한 털가죽을 두툼하니 깔아놓았다. 바닥을 짚어보니 뜨끈뜨끈했다. 자기 몸에도 털가죽이 씌워져있었다.

도대체 내가 어디에 온걸까?… 여기가 스님들이 넘볼때마다 외우던 극락세계인가, 아니면 지옥인가. 하지만 코를 찌르며 풍겨오는 엇구수한 냄새는 분명 여기가 저승이 아닌 이승이라는 현실감을 느끼게 하는것이였다.

어리둥절해있던 그는 도무지 꿈인지 생시인지 알수 없어 자기 허벅다리를 꼬집어보았다. 아파났다. 그러니 오늘의 세상인것이다.

그제서야 자기가 눈보라가 미친듯이 휘몰아치던 철옹령의 검은소나무숲속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던 생각이 어렴풋이 살아났다. 도대체 여기가 어디일까? 내가 어떻게 여기에 온걸까?… 의아하여 아직 잘 움직여지지 않는 몸을 일으켜 앉았는데 갑자기 어둑속에서 웬 사내아이의 반기는 목소리가 울렸다.

《정신을 차렸구나.》

소리나는 쪽을 돌아보던 찬식은 와פל 놀라 뒤로 앉은뱅이걸음을 쳤다. 길게 기른 머리칼이 어깨에 까지 내려온데다 누런 털가죽옷을 입은 사람이 어둑속에서 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고있었던것이다.

찬식은 더럭 겁이 나 소리질렀다.

《귀신이요?! 사람이요?!》

그러자 그 《귀신》이 통쾌하게 웃어댔다.

《하하하.》

그러더니 이쪽으로 다가와 찬식이앞에 스스럼없이 앉았다.

《너무 놀라지 말어. 난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야. 창일이라구 부른다, 여긴 내가 사는 돌막이구.

어제 산에 사냥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네가 숲속에 쓰러져있더구나. 그래서 내가 업어왔어.》

가까이 다가앉은 모습을 보니 부리부리한 눈이며 우뚝 솟은 코날, 두툼한 입술 등 신이 굵직굵직한것이 꽤 잘 생긴 소년이었다. 다만 머리를 삭발한 찬식이와 달리 머리를 길게 기르다나니 첫눈에 꼭 귀신처럼 보였던것이다. 아마도 산속에서 살다나니 그렇게 된것 같았다.

창일은 남달리 두툼한 입술을 땡긋거리며 자기가 찬식이를 업어오기까지의 과정을 차근차근 이야기해주었다. 그제서야 찬식은 모두숨을 내쉬며 한껏 조였던 마음을 풀었다.

《나도 사연이 있어 여기 깊은 산속에 들어와 혼자 살아가는 처지니 그렇게 겁먹지 말어.

너 서림사의 행자지? 내 네가 철옹령을 넘어 심부름 다니는걸 드문히 봤어. 배고프지?》

창일은 부뚜막까지 잇달린 방에서 가마뚜껑을 열고 음식을 차렸다. 음식이라야 산나물이 섞인 좁쌀죽 두그릇이였다.

《심산속이라 변변한게 없으니 어려워말고 어서 속을 덥혀라.》

창일은 찬식의 손에 나무숯가락을 쥐여주며 친절하게 권했다. 허기진 몸으로 눈보라속을 헤매이느라 온몸의 기력을 깡그리 뽑은 찬식은 사양할 생각이 없이 죽그릇에 달라붙었다. 게논 감추듯 한그릇을 축냈으나 시장기는 가셔지지 않았다. 허나 초면에 더 청할수가 없어 입을 다시며 물러나 앉았다. 그 모양을 측은히 바라보던 창일이 움쭉 일어나더니 가마에서 산토끼를 통채로 삶은것을 나무옹배기에 담아 들여왔다.

찬식은 김이 문문 나는 산토끼고기에서 나는 냄새에 군침을 꿀꺽 삼켰다. 하면서도 선뜻 손을 대지 못했다.

《자, 어서 들어.》

창일은 토끼다리를 하나 푹 떼어 소금을 찍어가 지고 찬식에게 내밀었다.

《아니, 난… 난…》

찬식은 황겁히 손을 내저으며 뒤로 물러났다. 일단 불가에 몸을 둔 사람이라면 일체 육식을 금해야 한다고 엄하게 설교하던 중들의 말이 떠오른것이였다. 그 모양을 보고 창일이 씩 웃음을 지었다.

《너두 참. 행자야, 중들이 술, 고기 안 자신다는건 다 거짓말이래. 고기가 없어서 못 먹지.

그리구 너야 뭐 아직 중도 아닌데 뭘 그러니. 네 몸을 좀 봐라. 후 불면 날아갈것 같구나. 이 산토끼고기는 몸보신에도 좋대.》

투박하나 진정이 넘치는 창일의 말에 찬식은 코마루가 찡해올랐다. 부모를 잃은 다음부터 이날이 때까지 고기는 고사하고 따끈한 밥 한그릇 마음편히 먹어본적이 없었다. 남들이 먹다버린것이라도 입에 넣어 주린 창자를 채워야만 했다. 서림사

에 들어가서도 소식이랍시고 산나물 섞인 조나 보리, 감자밥이 고작이었다.

《고마와.》

《고맙긴, 우리같이 외롭게 사는 처지에야 인정을 내놓고 뭐 불게 있니. 난 부모형제를 왜놈들때문에 다 잃고 이 산속에서 혼자 산다.》

찬식은 난생처음 토끼고기를 배가 불쑥하도록 먹었다.

그날저녁 그들은 비좁은 돌막안에 나란히 누워 자기들이 살아온 눈물겨운 인생사를 서로 나누었다. 알고보니 그들은 나이도 동갑이었다. 찬식은 하루밤사이에 창일리와 막역지우가 되었다.

그 다음날 아침 찬식은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창일리의 돌막을 떠났다. 철옹령의 벼랑 밑에 돌을 쌓아 지은 막은 유심히 보지 않으면 가까이에서도 알아보기 힘들었다. 창일은 멀리까지 따라나와 종종 놀러 오라며 웃음짓고 배려주었다.

그후부터 찬식은 짬만 있으면 창일리를 찾아 돌막으로 가곤 했다. 창일리는 찬식이 울적마다 산토끼나 꿩 같은 별식을 내놓곤 했다.

가을비가 축축히 내린 뒤 어느날이었다.

찬식이 읊으로 심부름가던 길에 돌막에 들리니 창일은 《고기볶음》을 가마채로 내놓았다.

《이거, 중이 고기맛을 알면 절간에 빈대가 없어진다는데 내가 이렇게 고기를 먹다간 부처님께 죄를 짓고 절간에서 쫓겨나고말겠다.》

속이 켜기어 너스레를 떨면서도 찬식은 혀를 감빨며 《고기볶음》가마앞에 나앉았다. 향긋하면서도 잘근잘근한 《고기볶음》은 그 맛이 하도 감미로와 돌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정도였다.

《야, 이건 무슨 고진데 이렇게 맛이 좋니?》

《작은 스님, 이건 고기볶음이 아니라 송이버섯볶음이옵시다.》

창일은 불이 미여지게 먹어대는 찬식에게 일깨워주었다. 찬식이 눈알을 데룩데룩 굴리며 입에 넣은것을 꿀꺽 삼키고 놀라움을 표시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 절에서도 버섯채를 더러 먹곤 하는데 이런 맛은 아니었어.》

《찬식아, 너희 서림사주변에 소나무가 많지 않으니 그렇지. 네가 먹어본건 아마 싸리버섯, 개암버섯, 참나무버섯 같은것일게다. 이 송이버섯은 꼭 소나무숲속에서만 돋는단다.》

창일은 싸리바구니에 담겨져있는 불기우리고 오동통하니 살진 송이버섯을 보여주면서 차근차근 말해주었다.

《야! 송이버섯만 먹는다면 부처님께 죄를 짓지 않을수 있겠는데... 에, 잘 먹었다.》

송이버섯볶음을 단숨에 요정낸 찬식은 혀를 내두르며 물러나앉았다. 창일이 버섯을 다듬으며 말했다.

《송이버섯은 진귀한 약재로도 유명하단다. 이 버섯은 검은소나무숲이 준거니 인사는 소나무숲에다 해. 너 지난 겨울에도 눈보라를 만났을 때 이 숲이 아니었다면 어쩔번 했니.》

이 검은소나무는 우리 나라에도 여기 철옹령일대에밖에 없다는거야. 다른 소나무들은 다 붉은색이지만 이 소나무만은 검은색인데 목재의 질이 좋아 예로부터 유명했대. 난 여름에나 겨울에나 한 모습으로 푸르른 이 검은소나무숲이 정말 좋아. 그런데 왜놈들이 이 진귀한 소나무숲을 노리고있거던. 그래서...》

창일은 더 말을 하지 않고 불이 황황 이는 눈으로 저 멀리 하늘가를 지그시 노려보았다.

찬식은 읊거리로 심부름을 갈 때마다 창일리가 마련한 산짐승고기와 털가죽, 약초, 산나물들을 가지고가 식량과 소금을 바꾸어다주곤 했다.

창일은 사냥에서 특이한 솜씨가 있었다. 웅노나 몇도 잘 놓았지만 돌팔매질의 명수였다. 한 오십보쯤 떨어진 곳에서도 꿩대가리를 명중하곤 했다. 그의 허리춤에는 언제나 돌구렁지가 데룩데룩 매달려다녔다. 찬식은 창일의 돌팔매질솜씨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말하는 《돌귀신》이 혹시 창일리가 아닐가 하는 생각을 하곤 했다. 하면서도 왜선지 선뜻 물어볼념을 못했다.

며칠후 어느날이었다.

서림사안에 갇히워 잡일을 하느라 몸뻔새가 없던 차에 답답하여 죽을 지경이던 찬식은 주지의 심부름으로 길을 떠나자마자 쏜 화살처럼 달음박질하여 철옹령으로 갔다. 창일리가 무척 보고싶었던것이다. 그런데 돌막은 비어있고 창일리도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어데 사냥이라도 나갔나?... 궁금한 속에 속이 출출하여 가마를 열어보았지만 빈 가마였다. 두루 막안을 살펴보았지만 입에 넣을만 한것은 하나도 없었다.

찬식은 도끼를 들고 샘물터로 향했다. 샘터옆에 있는 십오년쯤 자란 소나무에 굽직한 다래덩굴이 감기워 올라간것을 본 생각이 났던것이다. 그 우듬지가지들에 단물이 흠뻑 오른 새파란 다래알들이 조롱조롱 매달려있었다.

나무잡이를 하는 재간이 없는터라 찬식이로서는 달콤한 다래가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그러니 소나무를 찍어넘겨 다래맛을 볼수밖에 없었다.

긴 장삼을 벗어던진 찬식은 도끼날을 휘둘러대기 시작하였다.

산속에 도끼질소리가 메아리쳐갔다.

도끼날을 박을 때마다 허연 도끼밥이 짹짹 튀어나왔다.

덩굴채로 넘어질 다래를 먹을 생각에 저절로 흥이 난 찬식이 뻑뻑 깎은 머리에 땀을 번들거리며 한참 도끼질을 하는데 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어깨박죽에 호된 아픔을 순간적으로 느꼈다. 찬식은 한손으로 어깨를 싸치고 도끼를 툭 떨어뜨리며 땅두석처럼 굳어졌다. 무심중에 소름이 오싹 끼쳐 사위를 두리번거렸다. 이 철옹령에 유명짜한 그 《돌귀신》이 나타난것이 아니야?

와삭와삭 가랑이를 밟은 소리가 가까와지더니 등뒤에서 벽력같이 성난 목소리가 울렸다.

《찬식이, 너 정신이 쑥 나갔니?》

목소리의 입자는 뜻밖에 창일이였다.

찬식은 후— 한숨을 내쉬며 돌아섰다.

《야, 이거 정말 놀랬구나. 골통이 깨어지면 어쩔려구 돌팔매질을 막 하는거야, 내가 뭐 짐승이냐?》

찬식은 제편에서 성이 나서 투덜대였다.

《내가 짐승하구 다르게 뭐냐?》

《뭐, 내가 짐승?! 너 날 그렇게 생각했니?》

불쑥 노여움이 치밀었다. 성이 나서 펄펄 뛰는 창일이가 노여웠다. 산판에 흔하디흔한 나무 한대를 찍는게 뭐라고 그다지나 아던정보던정없이 돌팔매질까지 하며 저렇게 사람을 모욕하며 펄펄 뛰가.

《왜놈들이 이 소나무들을 찍어가는것만도 가슴 아픈데 너까지 나무를 찍어? 너까지... 아.》

창일은 눈물이 글썽한 눈으로 찬식을 쏘아보다 못해 주먹으로 그 소나무를 팡팡 두드리었다.

하지만 찬식은 창일의 실분에 찬 표정보다도 짐승보다 못하다는 그 말마디가 더 아프게 가슴에 안겨들었던지라 입에서 나가는데로 푸념을 쏟아놓았다.

《허, 이게 너희 산판이라는거냐? 아무래도 왜놈들이 다 찍어갈진 뻔한데 그 나무 한대때문에 친구지간에 우정두 락엽 쓸어버리듯 한다는거지? 좋다. 그동안 신세진것은 잊지 않으나. 하지만 섭섭해.》

제때잡 내뱉고난 찬식은 벗어놓았던 장삼을 집어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채 히— 샘물터를 떠나 버렸다.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는 창일이가 불쌍했다. 왜놈들은 벌써 철옹령의 소나무를 벌목하려고 목재소를 옮기고있는데. ...

2

가을이 오자 산전은 빨리도 변해갔다.

산전은 서둘러 나무가지들마다에서 잎을 떨구고 새벽바람에 추위를 실어다주었으나 한낮이 되면 제법 여름철처럼 해별이 따거웠다.

음을 떠나 서림사로 돌아가는 찬식은 돌박산근방에서 땀캐나 흘리었다. 나무 한대 없으니 그늘한점 찾아볼수 없고 목이 타들어와도 물 한모금조차 마실 곳이 없었다.

한때는 아름드리소나무들이 울창하고 산자드락에는 복숭아꽃, 살구꽃이 피어나는 오붓한 마을도 들어앉아있었다.

조선을 강점한 왜놈들이 대대적으로 벌목을 하느라 산판을 홀라당 벗겨놓은데다 《미친바람》세레까지 받다보니 오늘은 돌밖에 없는 불모의 땅으로 되었다. 찬식의 고향이 바로 이 돌박산이였다. 아버지는 여기 채벌장에서 통나무에 치워죽고 어머니는 전염병에 돌아갔다.

찬식은 목이 마르다못해 쇠비린내가 났지만 부지런히 걷고 걸었다. 이제 조금만 가면 철옹령의 검은소나무숲이 나치고 이가 시리게 찬 샘물도 있다는 한가닥 위안을 안은채 걸음을 재촉했다. 머리에 쓴 삿갓을 벗어 부채질을 해대며 지루한 돌박산일대를 벗어나 드디어 소나무숲속에 당도하였다. 장삼을 벗어들고 보기만 해도 시원한 소나무숲속에 들어서니 화— 솔바람이 온몸을 식히며 불어왔다. 두팔을 벌리고 한참동안 바람결에 땀을 식히고난 찬식은 정신없이 샘물터로 달려갔다. 넉적 옆드려 시원한 샘물을 꿀꺽꿀꺽 마시고 세면까지 하고나서야 그는 털썩 샘물터옆에 퍼터버리고 앉았다. 문득 다래덩굴이 감기워 올라간 소나무가 눈에 안겨왔다.

찬식은 허거뜰 웃음을 지었다. 아직도 퍼그나 많은 다래알들이 덩굴에 매달려 가을바람에 흔들거리고있다. 저 다래때문에 창일이와 얼굴붉히던 열흘전 일이 떠올랐다. 그 소나무의 도끼자리는 진흙매질을 정성껏 하고 피나무껍질로 총총 감아놓았다. 시허연 상처자리처럼 아픔을 호소하는것 같던 도끼질자리는 보이지도 않았다.

찬식은 창일의 그 마음이 소중히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허무했다. 며칠전부터 벌목장을 옮긴 왜놈들이 경치좋은 철옹령산기슭에 사무실과 인부들의 숙소까지 지어놓고 드디어 채벌을 시작한것이다. 한달쯤이면 샘물터 주변의 나무들도 끝장이 날 판이다. 이 나무들을 다 찍어버리면 이 샘물도 점차 말라버릴것이다.

찬식은 절로 마음이 서글퍼져 움쭉 일어서 돌막으로 향했다. 서로 다투고 헤어진 후 만나보지 못한 창일이가 무척 보고싶었다.

막주변은 조용했다. 출입문을 연 찬식은 안에서 풍겨오는 썰렁한 기운에 마음이 섬적해졌다.

《창일아—》

대답대신 어둑컴컴한 막안에서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울려나왔다. 어둑속에서 구들바닥에 덩구는 형체를 발견한 그는 황급히 다가갔다. 그것은 몸이 불덩이같이 뜨거운 창일이였다.

《창일아, 창일아. 이게 웬일이냐?》

창일은 의식이 없었다. 조글조글 말라터진 입술사이로 《물, 물》하는 가냘픈 헛소리만이 새어

나왔다.

서둘러 웅배기를 들고 샴터로 뛰어내려가 물을 길어온 그는 창일의 입에 한모금씩 떠넣어 주었다. 방바닥은 며칠동안 불을 못 땔는지 싸늘했다. 그렇다면 그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혼자 앓고있었을것이다. 찬식은 서둘러 아궁에 불을 지피고 막안을 뒤져봤지만 미음을 끓일만 한 난알거리라고는 한줌도 없었다. 나무를 한아궁 빼곡이 넣고 무작정 밖으로 뛰어나온 그는 큰길에서 멈춰 곤어졌다. 읊은 팔십리길이다. 설사 간다고 해도 주머니에 동전 한알없이 약은 어떻게 구하며 쌀은 또 어떻게 해결한단 말인가. 철옹령의 삼사십리아 근에는 인가가 하나도 없었다. 눈앞이 캄캄해서 막 울고싶었다. 그대로 놔둔다면 창일이 위험했다. 이때 가까운 곳에서 도끼질소리들이 쩡쩡 메아리쳐왔다. 새로 전개된 벌목장에서 울려오는 도끼질소리였다. 그렇지. 그 벌목장에 생각이 미쳤다. 왜놈들은 벌목장에 인부들의 주머니를 털기 위해 음식점도 약국도 차려놓는다.

생각이 그렇게 돌아서자 찬식은 저도모르게 그 쪽으로 달려갔다. ...

창일은 찬식이 약을 먹이고 흰쌀미음까지 쥘떡인 후에야 겨우 열이 떨어지면서 의식을 차렸다. 사위여 그물그물하던 창일의 눈에 금시 눈물겨운 반가운 빛이 어리었다.

《찬식아, 너 아니면 난...》

《별소릴 다하누나. 먹어야 일어서. 자, 좀더 먹자.》

찬식은 창일이가 의식을 차린것이 기뻐서 자꾸만 미음술가락을 들고 재촉했다.

《자, 이젠 열을 뚝 떨구는 신식약이야. 점심 먹고 이 약을 먹어야 해.》

식사가 끝나자 찬식은 종이봉지에 싼 흰가루약을 펼쳐들고 보여주었다.

《그건 어디서 난거냐?》

열흘사이엔 판 사람처럼 뼈만 앙상해진 창일이 찬식의 손을 부여잡고 물었다.

《난 처음엔 네가 죽는줄 알고 아찔했댔다. 죽을수에 빠지면 살수가 생긴다고 글썽 목재소가 요아래 골짜기로 이동해온 생각이 나더구나. 그래서 목재상놈과 열흘동안 나무를 찍기루 계약하고 약과 이 흰쌀을 줌 받아왔어. 내 오늘도 일하고 돌아올테니 점심밥이랑 먹고 이 약도 먹으면서 기다려.》

찬식이 벌목장으로 가려고 일어서는데 맥없이 누워있던 창일이가 얼굴색이 하얘지면서 그의 바지가랑이를 움켜잡았다.

《그럼 저 소리가 이 철옹령의 소나무를 찍는 소리란 말이나?!》

《그래.》

찬식은 침울하게 말했다.

울려오는 도끼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창일은 머리를 싸쥐고 《아!-》 하고 목이 짹 잠긴 소리를 내며 몸부림쳤다.

《창일아, 너 왜 그러니? 영.》

찬식의 부름에 창일은 숙였던 머리를 들었다. 벌겋게 충혈진 눈을 부릅뜨고 찬식을 무섭게 쏘아보며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다.

《병주고 약준다더니... 야, 이 덜된 놈아. 우리가 왜 이 꼴이 됐니? 왜 산속에서 짐승처럼 사는가 말이야? 왜놈들이 나라를 빼앗구 고향땅의 나무들을 망탕 찍어먹어 산천이 황무지가 되구 부모형제들이 다 죽지 않았니. 그런데도 그 왜놈들한테 소나무를 찍어주구 이따위를 구걸해와, 이 못난 놈아!》

창일은 실성한 사람처럼 구들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통곡을 했다.

《가라! 썩 사라져. 보기두 싫다. 나에겐 너같은 친구가 없어, 다시는... 다시는 내앞에 나타나지 말아!》

창일은 약봉지며 쌀가루까지 집어던지며 찬식을 내쫓았다.

찬식은 억이 막혀 말 한마디 못하고 막안에서 나왔다. 밖에서 끊기지 않는 창일의 설분을 들으며 찬식이기도 울었다.

난 뭐 저만 못해서 이 짓을 하는줄 아는가. 그래도 다 죽게 된 제가 불쌍해서, 같은 처지에 맺은 정이 귀해서 오르락내리락하다 할수없이 왜놈에게 구걸해온건데 성의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우리 처지에 이 험악한 왜놈세상에서 어쩔단 말인가.

제 설움에 흐느끼던 찬식은 문득 창일에게 이 숲과 맺어진 류다른 인연이라도 있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였다. 그렇지 않으면야 왜 저렇게 제 살붙이라도 떨어진것처럼 서러워하고 분통해할가 하는 의아한 심정이였다. 찬식은 창일의 그 마음을 이해할수가 없었다.

찬식은 억울한 심정을 어디에 하소할데 없는 기막힌 마음으로 돌막을 떠났다.

그날밤 철옹령목재소에서는 화재가 일어났다. 누군가가 왜놈들이 숙식하는 사무실건물에 불을 지르는통에 술에 취해 곤드라졌던 목재상놈을 비롯한 여러놈이 죽거나 화상을 당했다는것이였다.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찬식은 틀림없이 창일이가 한 일일거라는 생각을 하였다.

왜놈경찰들은 범인을 찾는다고 철옹령일대를 발각 뒤지였다. 어떻게 되여 창일이임을 짐작한 왜놈들이 막바지의 돌막에까지 들이쳤으나 텅빈 돌막을 발견한 놈들은 서림사까지 물러왔다.

찬식이 친구의 약값을 마련한다며 산판로동을

한것이 빌미가 되어 이번에는 찬식이를 내놓으라고 행패를 했다.

그날밤 서림사의 로승이 찬식을 철웅령넘어 멀리까지 내려주며 창일이네 가정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창일이네는 철웅령일대에서 비교적 밥술이나 먹는 향교집이었다. 왜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기자 도회지에 나가 중학공부를 하던 그의 아버지는 화승대를 들고 의병투쟁에 나섰다. 의병투쟁이 비참한 종말을 고하자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 가정을 이루고 향촌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다.

그러던중에 나라의 산림자원을 대대적으로 략탈하던 왜놈들이 철웅령일대에 자라는 검은소나무에 눈독을 들이고 마수를 뻗치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들려왔다. 아버지는 고향사람들을 휘동해가지고 결사적으로 검은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운동을 벌렸다.

철웅령의 검은소나무는 조선에서도 이 일대에서만 자라는 우량종의 소나무이다.

세계적으로 백여종이나 되는 소나무들은 거의 다 적송이지만 철웅령의 검은소나무만이 껍질이 검은 밤색인 흑송이다. 이 소나무는 척박한 땅은 물론 바위나 벼랑우에도 뿌리를 내리고 추위에도 잘 견딘다. 나무가 굳고 곧게 자라기때문에 용재림으로서 으뜸이다. 또한 나무에 송충이며 잡벌레가 일체 끼지 못하며 이 소나무의 송진을 태워서 얻은 그을음으로는 질 좋은 먹도 만든다.

이러한 검은소나무의 생태학적우월성과 함께 지방적특성으로서도 이 고장에서는 이 소나무림이 아주 귀중한 방풍림역할을 하였다.

어느 고장보다도 동풍이 자주 세차게 부는 철웅령일대에서 이 검은소나무림을 없애면 마을이며 산천이며 사람들이 큰 재앙을 입게 된다고 하면서 예로부터 철웅령사람들은 이 소나무림을 남달리 사랑해왔다. 철웅령사람들은 한사람같이 땀쳐나 벌목을 반대하는 투쟁을 완강하게 벌렸다.

그러자 왜놈경찰들은 이 투쟁을 주관하는 창일의 아버지를 불온사상을 류포시키는 주범이라고 하면서 불잡아다 주재소에 가두고 악착한 고문을 해댔다. 거의 한달만에야 폐인이 되어 들것에 들리워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종내 며칠만에 세상을 떠났다. 운명하기 전날 아버지는 열살나는 창일의 손을 꼭 잡고 이런 말을 남기었다.

무섭게 여윈 얼굴에 두눈만이 강한 섬광을 품고 이끌거리고있었다.

《창일아, 울지 말아라. 사내가 울면 큰일을 못한다.

그러구 명심해라, 이제 내가 하는 이야기를.

그러면 아버지가 왜 목숨까지 바쳐가며 이 검은소나무림을 그토록 지켜내려 했는지 알게 될

게다.

저 철웅령의 검은소나무는 겨울이 오고 눈보라가 몰아쳐도 가랑잎처럼 굴지 않고 속이 궁궁 소리로 울지도 않고 언제나 우뚝 선채로 푸르다. 하나같이 미끌하게 장대로 자라고 사시장철 변함이 없다. 바위나 절벽에도 뿌리내리는 완강한 기질은 신동히 조선사람의 절개와 닮을 방불케 한다. 년이 아버지가 왜 산골에 혼한 소나무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가고 생각할테지? 나라를 빼앗기다보니 제 목숨은 고사하고 조국의 재부도 다 략탈당하고있다. 저 소나무는 단순한 소나무가 아니라 조선사람의 님이라고 이 아버지는 생각한다. 그래서 철웅령사람들도 저 검은소나무를 남달리 사랑하는게고... 창일아, 님을 빼앗기면 인간이 아니다.

아, 이렇게 가자니 마음이, 마음이 떼여지질 않는구나.

창일아, 저 검은소나무를 사랑해다오. 부디 지켜다오. ...》

창일의 아버지는 눈도 감지 못하고 절통한 한을 마음속깊이 묻은채 비통하게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의 장례를 계기로 마을사람들의 반일감정은 한층 고조되었다. 그러자 왜놈들은 깊은 밤중에 말을 타고 마을에 달려들어 집집마다 불을 지르고 닥치는대로 쏘아죽였다. 그속에서 창일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

왜놈들은 그후 대대적으로 검은소나무림에 대한 벌목을 시작했다. 검은소나무숲이 완전히 도벌당한 돌박산일대는 몰아치는 동풍과 가물, 큰물, 닥치는대로 자연피해를 다 입다보니 오늘날과 같은 불모지로 되었다.

로승의 이야기를 들으며 찬식은 영영 울었다. 그리고 창일이가 왜 다래덩굴이 감긴 소나무를 찍으려던 찬식을 그렇게 질시했으며 왜놈들의 검은소나무림도벌에 본의아니게 참여한 찬식에게 나한테는 너같은 친구가 없다고 그토록 모진 선언을 했었는지 충분히 리해가 되었다.

아, 나와 창일인 나이도 같고 자라온 풍토도 같건만 너무도 다른 마음을 안고살았구나.

빠져린 후회속에 이제라도 이 땅을 사랑하고싶으나 왜놈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으니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의 곡절을 한탄하며 찬식은 로승에게 무릎꿇고 절을 하였다. 아니, 고향땅에 마지막인사를 하는 심정이었다.

태어난 고향, 지리지도 못살면서도 떠날수 없었던 고향산천과 영영 작별한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비오듯 쏟아져내렸다.

수난많은 민족과 함께 살아 고향에 이른 로승이 눈물젖은 바래움의 손을 저으며 툴아내는 하소연이 애절하게 찬식의 마음을 허비였다.

《어허! 나라를 빼앗기니 생령들과 산천초목도 지옥의 고행길을 걷는구나—》

3

한때는 번창했던 산천에 마가울의 찬바람이 날리는 11월이었다. 철웅령의 검은소나무숲은 엄혹한 계절에 도전하듯 시퍼런 솔잎을 추켜들고 조용히 설레이고있었다.

리찬식은 추억깊은 눈길로 소나무숲을 더듬으며 오솔길을 따라갔다. 강산이 변한다는 십여년만에 철웅령을 다시 밟은 그의 가슴은 느닷없이 설레었다. 어린시절에는 철웅령의 검은소나무를 범상하게 보아왔지만 지금 그의 눈에 비낀것은 류다르고 크나큰것이었다. 솔잎은 다 푸르지만 그가 팔도강산에서 보아온 소나무들중에서도 철웅령의 검은소나무는 으뜸가는 수종이었다. 벼랑에 억척같이 뿌리를 내리고 참대처럼 곧게 자라면서도 굽적굽적한 튼튼한 모습은 예전과 다름없이 그의 가슴을 짝 채웠다.

한발자욱한발자욱 숲속의 오솔길로 들어가던 그는 아!— 하고 탄성을 질렀다.

소나무숲속의 한가운데 정갈하게 솟아나는 샘물터가 그의 시선을 끌었던것이다. 찬식은 철갑모를 벗어서 옆에 놓고 두손으로 티 한점없이 맑은 샘물을 퍼들려다 말고 수면에 비낀 자기 모습에 놀라 굳어졌다.

낯설은 모습이다. 자기자신으로서도 익숙될수 없는...

해방전 왜놈들의 마수를 피해 로승의 소개로 찾아갔던 불국사의 애송이중 찬식은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나자 남조선피뢰군에 징집되게 되었다.

북으로 향하는 미기갑부대의 뒤를 따라 철웅령 기슭까지 왔을 때 그의 심중은 슬픔과 회오, 환희가 뒤섞인 자못 미묘한것이었다.

환희의 감정이란 십여년만에 고향땅을 다시 밟는다는데서 오는것이었고 슬픔과 회오는 일제의 무자비한 도벌에 맡겨진 운명이었던 검은소나무숲과 창일에 대한 생사여부를 모르는데서 오는것이였다.

창일은 그후 어떻게 되었을가. 검은소나무숲은 무사할가. 이모저모로 마음이 썩었다.

더우기나 북조선을 한주일만에 타고앉는다며 호언장담하던 미군이 영웅적인민군대와 지방유격대에 의해 전전궁궁하며 패배의 고배만 마시고있는 형편에서 영낙없는 패배자의 모습으로 환향하게 되었으니 찬식은 울지도 웃지도 못할 심경에 사로잡혀있었다.

철웅령인민들은 유격대를 조직하고 땅크와 장갑차를 비롯한 최신장비로 무장한 미군과 피뢰군의 공격을 여지없이 격파해버렸다.

험악한 벼랑으로 난 외통길을 장악하고서 유리한 지형에 은거하여 여유작작하게 매복전과 습격전을 들이댔다. 특히 때없이 투석전을 들이대는 《돌새》의 습격은 피뢰군병사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원숭이도 주저할만 한 칼벼랑을 소리없이 오르내리며 무성한 소나무숲속에 은거하여 불의에 날리는 돌맹이들은 눈이 달린것처럼 무자비하고 백발백중이었다. 놈들은 바람소리만 나도 저저마다 까투리처럼 대가리를 틀어박고 벌벌 떨었다.

찬식은 그때마다 전율하는 흥분으로 가슴이 설레었다. 《돌새》! 그는 분명 창일이일것이다.

당장 숲속으로 달려가 창일을 만나보고싶은 생각이 골백번 들었지만 선뜻 움직일수 없었다.

아무리 고향사람들이라고 해도 종교를 아편과 같이 해로운것으로 타매한다는 무산혁명가들로 조직된 인민유격대가 불교도이며 《국군》사병인 자신을 용서할리 만무하였다. 창일은 더구나 불의라면 친구도 가리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있지 않는가. 한산한 가을풍경에 못지 않게 쓸쓸하고 애달픈 심정을 안고 찬식은 오늘 조용히 샘물터를 찾았던것이다. 가을바람이 휘익 불자 락엽이 흩날렸다. 허공에 휘뿌려지는 락엽을 망연히 바라보던 그는 저도모르게 불쑥 일어섰다.

오불고불 미출한 소나무를 감고 올라가 푸른 가지들에 넉출을 감고 앙상하게 흐느적이는 다래덩굴이 그의 심중에 다시 추억을 불러왔다. 덩굴이 감긴 소나무를 훑어내려오던 그의 시선이 허물자리가 움푹 패인 나무밑둥에 멎었다. 온 전신으로 짜릿한 흥분이 지나갔다. 그 소나무였다. 그때문에 창일과 다투기도 하고 돌맹이세례까지 당했다. 지금 생각하면 창일이 옳았다.

자기가 저 소나무를 찍었더라면 오늘의 의젓한 소나무와 맛스러운 열매를 맺는 다래나무는 없어졌을것이다. 그리고 왜놈들이 망하지 않았다면 이 숲은 물론 이 샘도 없을것이다.

창일이 생각이 간절했다. 찬식은 소나무를 꼭 부둥켜안고 속삭이듯 불렀다.

《창일이—》

썩아— 솔바람소리가 그 대답소리마냥 길게 울려왔다.

철웅령을 점령하기 위한 전투가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 아침일찍 공격서열에 있던 땅크와 룬전기재들이 남쪽으로 돌아서고있었다. 미군은 차에 다 오르고 《국군》한개분대만 전투계선에 정렬했다. 《돌새》에게 얻어맞아 대가리가 터진 중대장놈이 봉대를 칭칭 둘러감고 앞에 나서서 침울하게 지껄이였다.

《에, ... 우린 전략상 철웅령을 포기하고 남하한다. 그래서 미군은 저 귀신같은 철웅령을 몽땅 불태우라는 명령을 내렸다. ...》

찬식을 비롯한 몇명의 사병들은 화염방사기를 휴대하고 전투계선을 차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전투계선앞에 개울물이 지줄대며 흐르고있었다. 화염방사기의 불길에 저 개울물을 넘어가면 철옹령은 순간에 불길에 휩싸이게 된다. 찬식은 그것을 상상하기조차도 무섭고 소름이 끼쳤다. 생각다 못해 중대장앞에 나섰다.

《중대장님, 저 철옹령의 검은소나무들은 잔악한 왜놈들도 없애지 못한 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숲입니다. 그런데 조선사람인 우리가 이런짓을 한다는건 무서운 죄악입니다. …》

찬식은 눈물이 글썽하여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사병들이 술렁거렸다.

《이 중놈의 새끼야, 명령을 거부하는가?

우린 빨갱이놈들에게 저 소나무숲을 고스란히 넘겨줄수 없다. 알겠는가? 쏘라!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당장 썩죽일테다.》

중대장놈은 권총을 뽑아들고 사병들을 내몰았다.

찬식은 다시한번 용기를 내었다. 그도 조선사람이 아닌가.

《중대장님. …》

입을 열기 바쁘게 연방 군화발이 날아와 얼굴을 찔다. 눈앞에 불찌가 번쩍이며 코피가 툭 터져나왔다. 찬식은 피투성이가 되어 땅바닥에 나딩굴었다.

《쏘라! 썩!—》

중대장놈은 제가 먼저 화염방사기를 들고 미친듯이 시내물건너편으로 쏘아댔다. 시뻘건 불줄기들이 쭉— 쭉— 숲으로 뻗어갔다. 바싹 마른 새초와 풀잎들에 달린 불길은 소나무숲이 밀집된 산기슭으로 번져가기 시작했다. 삼십십미터만 더 나가면 몇백년동안 자란 검은소나무숲은 통채로 불길에 휩싸이게 된다.

찬식은 오열을 터뜨리며 땅을 쳤다.

이때였다. 철옹령의 검은 푸른 숲속에서 솟아오른 숨웃저고리를 벗어난 한 사나이가 비통하게 소리치며 불이 번지는 곳으로 뛰어났다.

《개놈들아!—》

그는 저고리를 휘둘러대며 소나무숲으로 번지는 불길을 끄려고 필사적으로 싸웠다.

찬식은 대번에 가슴이 뜨끔하여 눈을 크게 치뜨고 지켜보았다. 너울대는 불길과 싸우는 허리춤에 매달린 유별난 자루가 흔들리었다. 드러나는 넓은 이마와 불길에 펄펄 이는 눈길, 사려문 두툼한 입술, 짝 버그러진 앞가슴…

찬식은 땅을 움켜쥐고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는 분명 권창일이였다. 십여년만에 만나는 반가움보다 이제 벌어질 비극때문에 숨이 짹 막히었다.

《창일아, 피하라!》

찬식은 어떻게 자기가 자리를 차고 일어났는지, 어떻게 그를 향해 달려갔는지 알수 없었다.

《창일이, 뛰라!》

다시한번 고향을 지르자 창일은 자기 이름을 부르는 피뢰군사병을 의혹에 찬 눈길로 바라보는양 싫었다.

순간 그들의 눈길이 마주치며 허공중에 불꽃이 일었다. 그들은 한순간 굳어졌다.

땅, 땅, 땅…

요란한 총성이 몰방으로 터졌다.

찬식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창일이 반나마 불에 타버린 솜웃저고리를 맥없이 떨구며 천천히 앞으로 넘어졌다. 그러면서도 그는 찬식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엄청난 놀라움과 분노가 엇갈린 그의 눈빛은 서서히 꺼져버렸다. …

4

승용차는 중부산악지대의 울창한 산림을 꿰질러 달리였다.

리찬식은 잠을 설치여 피발이 선 가는 눈으로 흘러가는 산천을 바라보고있었다. 세월이 많이도 흘렀다. 락엽이 날리는 마가울의 산천은 쓸쓸했다. 세월이 실리어 속절없이 고목이 된 그의 얼굴엔 많은 주름살이 엇갈려있고 무표정한 얼굴에 선 흰눈썹만 이따금 움썹거렸다.

고향을 떠나 반세기만에 찾아온 그의 가슴에 추억의 파도가 쉽없이 실려왔다. …

준엄했던 조국해방전쟁의 그 나날 검은소나무숲이 타래치는 불길에 휘감기게 되었을 때 찬식의 마음속에서도 무서운 불이 불고있었다.

창일이 쓰러지면서 바라보던 그 눈빛, 그 눈빛이 일으킨 불이었다. 그 불은 자기자신이 이 전쟁의 와중에 휩쓸리면서 조금이나마 가졌던 미체에 대한 환상을 여지없이 태워버렸고 뜻도 없이, 리념도 없이 맹목적으로 살아온 자신을 깡그리 태워버렸다. 자신은 짐승의 무리속에 생존하는 하나의 짐승이나 다를바 없었지만 친우 창일이는 의로운 뜻을 위해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내던질수 있는, 크나큰 품에 몸담고있는 고결한 정신세계의 소유자였다.

전쟁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승리로 끝났을 때 그는 창일이 결코 무한한 바다속의 한방울의 물이 아님을 절감했다. 청소한 북조선이 《불패의 거인》이라고 호언장담하던 미체를 패배의 시궁창에 처박았던것이다.

찬식은 전쟁을 겪으면서 미체가 군사기술적우세나 역량상우세를 가지고도 왜 철옹령을 점령할수도 불태울수도 없었던가를 어설뜨게나마 깨달은것 같았다.

절간으로 돌아간 그는 남녘땅에도 평화로운 세계가 오기를 희망하며 열심히 목탁을 두드렸다.

파쑈가 살판치는 남녘땅에 분렬의 장벽은 더 높

아지고 인간불모지가 되어갔다.

자유, 민주를 부르짖으며 고통에 시달리는 생령들의 모습을 나날이 눈앞에서 보아야 하는 가슴아픔을 견디다못해 찬식은 어느해 친구의 주선으로 해외로 망명하는데 성공하였다.

눈앞에서 황무지로 변모된 남조선사회상은 보지 않게 되었으나 마음속에서 세월과 함께 커가는 향수병은 녹잡힐수 없었고 검은소나무숲을 다 볼태 위버린것 같은 자신에 대한 타매와 혐오의 감정은 더욱 짙어갔다. 석가모니의 《우주인생진리》도 결국은 인간을 고통과 불행에서 구원할수 없는 김빠진 고무풍선과 같았다. 그는 때없이 절간에 한산하게 울리는 풍경소리를 들으며 너무도 애절한 청춘으로 세상을 떠나간 창일의 생각으로 몸부림쳤다. 그는 《우주인생진리》를 뛰어넘은 《불타》였다. 나이가 들수록 고향산천이 그리웠다. 허나 선뜻 발을 뗄수 없었다.

고향땅에 나무 한대를 심어 가꾸기는 고사하고 검은소나무숲을 불속에 내맡긴 죄악때문에 밤마다 지옥의 악몽속에 시달렸다.

소나무가 푸른줄은 겨울이 와야 안다. 무너진 이전 쏘련과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 제국주의자들의 고립과 봉쇄,련속 들이닥치는 자연재해...

단독으로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쳐들고 강성대국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북조선의 위엄있는 모습은 날이 갈수록 리찬식의 심금을 틀어잡았다. 어떻게? 무슨 힘이?

찬식은 대담하게 평양행에 올랐다. 현해탄을 건널 때 것처럼 공경하던 목탁과 넘주알을 던져버렸다. 고향땅을 찾아가 죄많은 인생을 권창일의 묘소앞에서 속죄하고 그의 명복을 빌고싶었다. 평양에 도착하여 철웅령의 검은소나무숲이 건재할뿐 아니라 더 많이 분포되어 자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찬식은 깜짝 놀랐다. 그리고 이미 저세상사람이라고 단정했던 권창일도 살아서 지금까지 소나무숲을 가꾼다는 소식에 그만 정신이 아찔했다.

잊을수 없었다. 물방으로 터지던 총성! 쓰러지던 창일! 충천하던 불길이 영화화면처럼 생동하게 안겨왔다.

국가천연기념물을 관리하는 부서의 일군이 그에게 창일의 과거지사를 들려주었다. ...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왜놈목재소사무실에 불을 지른 권창일은 그날밤으로 도망을 치다가 깊은 산중에 쓰러졌다. 그를 구원해준것은 국내공작임무를 수행하러 나왔던 항일유격대원들이었다.

그들은 노루를 잡아 그 피를 먹여 치료해주었다. 창일은 그때 홍역을 앓고있던지라 노루피가 특효약이었다. 그의 인생사를 알게 된 유격대원들은 많은것을 일깨워주었다.

《너 혼자서 왜놈들과 맞서서는 소나무숲을 지

킬수 없다. 지금 백두산에서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일제놈들과 싸우고계신다. 조선사람들모두가 그분의 뜻을 받들어 한사람같이 싸울 때만이 나라를 찾을수 있고 검은소나무숲도 지킬수 있다. 우리모두 그날을 위해 싸워나가자. 조국이 해방될 날은 멀지 않았다.》

철웅령에서 산짐승처럼 숨어살던 창일에게 조국해방의 봄이 왔다. 해방후 그는 철웅령의 첫 검은소나무림의 산림감독원이 되었다. 그날부터 그의 새삶이 시작되고 한생을 소나무숲과 더불어 살아오게 되었다.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창일의 희생적인 투쟁과 유격대원들에 의해 소나무숲은 구원되었다. ...

차창밖으로 철웅령의 암록색검은소나무숲이 웅장하게 안겨왔다.

차에서 내린 그는 아름다리로송들이 짝 들어차 하늘을 가리운 철웅령기슭의 표식비앞에 섰다.

표식비에는 국가천연기념물로 등록된 검은소나무숲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증식시켜야 한다고 지적되어있었다. 눈앞이 뿌잇이 흐려졌다. 나라없던 그 시절 왜놈들이 마구 략탈해가던 철웅령의 검은소나무숲이 법적으로 보호되고있다.

찬식이 철웅령을 짝 뒤덮은 검은소나무숲을 녀을 잃고 바라보는데 그 숲속에서 걸걸한 목소리가 울리며 풍채가 좋은 로인이 나왔다.

《누가 왔다구?!》

젊고 생신했던 그 모습엔 흰서리가 내리고 소나무껍질같은 주름이 얼굴을 덮었으나 창일은 기력이 정정했다.

《임자가 찬식이 옳은가?》

《창일이!》

찬식은 연약한 팔을 내밀어 로송같은 창일의 목을 그러안았다. 꼭절많은 인생을 살아온 두 늙은이는 한덩어리가 되었다.

긴긴밤을 울며 웃으며 회포를 나눈 두 늙은이는 다음날 아침 흰눈이 깔린 숲으로 떠났다.

그날밤 첫눈이 퍼그나 내렸던것이다.

돌박에 남은것이 없어 돌박산이라 부르던 곳에도 검은소나무들이 짝 들어왔다. 그 숲에도 창일의 땀과 남모르는 노력이 깃들어있다고 한다.

돌박산을 바라보고나서 아름이 넘으면서 기력이 청청한 로송들이 짝 들어찬 소나무숲으로 올라가던 창일이 힘이 들어 가쁜 숨을 몰아쉬는 찬식을 부축하며 물었다.

《예가 생각나나?》

찬식은 목이 짝 메여 아무말도 할수 없었다. 꿈속에서도 목메여 부르던 이 샘물터를 어찌 모른단 말인가. 샘물터의 모습은 예나 다름이 없었다.

《이 나무들도 생각나겠지?》

우리의 본때가 여기에 있다

김 대 성

여기엔 없다
아득히 쌓아가는 언저의 높이에
타산을 앞세우는 전사도
층층 막아서는 천연암반앞에
조건을 내대며 늦추는 전사도

여기엔 있다
얼어붙은 강녘에 천막도 치기 전
발파구멍부터 서둘러 찾으며
분분초초 시간의 흐름을
책임과 의무로만 따지는 정신이

회천발전소건설장
심장을 내대며 돌파구를 열며
한몸 정알이 되고 폭약이 되어
완공으로 완공으로 달음치는 전사들

혁명의 준엄한 년대기마다
나래치지 않았던가
조국이 준 명령 받드는 길에
필요하다면 피와 살
목숨까지도 다 바쳐싸운
투사들과 영웅전사들의 그 정신에서
오늘에로 이어진 본때 그 기질

오, 세월을 넘어

세대를 이어
고난의 언덕에 백리물길굴을 뚫으며
혁명적군인정신을 떨쳐온 그 본때

그 본때 의지 지니지 못했다면
어찌 난관을 웃으며 박차고 일어나
산악을 통채로 떠올려 바다도 메우는
새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으랴
결사관철의 정신력을 생명으로 지니지 못했다면
완공의 날을 앞당기는
《회천속도》를 창조할수 있었으랴

장군님 키워주신 혁명적군인본때
우리의 이 본때 이 기질
이 세상에 당할자 없나니
명령만 내리시라 최고사령관동지이시여
노도치는 철의 대오에

떨쳐가리라
한다면 반드시 해내고야마는 그 본때를
그 신념 장약으로 다진 총대
폭풍을 일으키고 번개쳐달리며
끝장을 볼 때까지 맏시나게 해제끼는
백두산혁명장군의 담찬 일본새

오, 이런 본때가 우리에게 있다

권창일은 아름이 넘게 자란 로송을 툭툭 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아!)

다시한번 흥벽을 두드리는 충격으로 찬식은 비
칠거리며 그 소나무앞으로 다가갔다.

반세기전 다래덩굴이 감졌던 그 소나무는 거목
으로 자라 한마리의 룡이 하늘로 나래쳐오르는 모
습으로 우뚝 솟아있었다. 찬식은 그 나무를 쓰다
듬었다.

세월의 년륜이 감고감았으나 그 허물자리만은
없어지지 않았다.

《임잔 저 소나무에 기여올라 열매를 맺은 다래
를 무척 좋아했지. 난 자네가 오늘처럼 오기를 기
다렸네. 저절로 익어 다래가 떨어질 때면 자네 생
각을 했네. 참 이상해. 다래나무는 다른 나무에
감기지 않으면 구실을 못하거던. 한 샘플을 먹고
사는 두 나무가 판판이 다르단 말이야.》

창일의 의미심장한 말을 들으며 찬식은 세월의
풍파속에서 뿌리와 원목, 줄기와 잎을 지키느라

갑옷처럼 껍질이 투실투실해진 거목앞에 머리를
숙이였다. 그는 속죄의 눈물을 떨구었다.

백발을 없고 흐느끼고있는 리찬식의 머리위로
바싹 마른 다래나무의 마지막잎이 너울너울 떨어
져내렸다. 찬식은 이 소나무와 다래나무에서 판이
한 자기들의 운명길을 보는듯싶었다. 자신도 자기
명을 한껏 살았다. 인생이란 그런것이던가. 매국
은 아니였다고 해도 제 한목숨의 보존을 위해 철
을 따라 옷을 바뀌입듯 리기로 산 자신의 인생뒤
에는 무엇이 남았던가.

권창일은 정다운 시선으로 눈서리도 감히 침범
못하는 검푸른 소나무숲을 흐뭇하여 바라보았다.

눈보라가 몰아쳐도 곧바로만 자라고 영원히 푸
름을 잃지 않는 철옹령의 검은소나무숲이 눈가루
를 날리며 싸아— 설레였다.

창일이 가슴에 안고 산것은 철옹령의 검은소나
무숲이였고 참된 애국이였다.

조국을 위해 산 사람! 그는 조국의 기억속에 남
은 사람의 인생을 산것이다.

고향이 어딘가 외 2편

김 봉 운

즐거운 려행길
잠시 사귀길 손들고
문득 나에게 묻더라
고향이 어딘가고

애젊은 청춘의 그 시절
내 군복입고 초소에 설 때
전우들도 먼저 물었더라
고향이 어딘가고

초소가 바뀔 때마다
누구나 묻던 고향
내 품고있는 공민증에도
이름과 함께 적혀있는 고향

고향이여
인생의 태를 묻고
첫걸음마 익힌 정든 뜨락
마시며 차란 동구밖 그 박우물
그저 잊지 못해 누구나 묻던가

고향의 발이랑에 씨앗을 묻으며
가슴에도 조국애의 씨앗이 움튼 땅
땀으로 가꾸고 피로 지키며

고향과 함께 성장한 이 몸

고향이여
너를 위해 아까운 청춘을 다바친
이웃들도 많더라
너의 한치땅을 위해
목숨도 서슴없이 바친
애국렬사들도 많더라

그렇다 고향은
청춘도 심장도 다 바쳐
한생으로 가꾸는 조국
한목숨 다 바쳐 지켜가는
영원한 삶의 요람
몸은 멀리 떨어져있어도
키워준 사랑과 정을 못 잊어
땀땀이 사는 애국의 넋이 뿌리내린 곳

오, 그때문이여라
누구나 고향을 물을 때
조국위해 바치는 그 열정 가다듬게 되는것은
내 이름과 함께
고향은 언제나
인생의 길을 함께 하는것은

《처녀선반공》

누구나 다 아는 정다운 그 이름
누구나 오늘도 그렇게 찾는
《처녀선반공》

살뭇이 흘러내린 귀밑머린 희였어도
아들딸모두 선반공으로 키웠어도
《처녀선반공》

천리마가 나래퍼던 그때 그 시절
우리 수령님 대견하시여 기특하시여
몸소 불러주신 그 이름

천리마휘장을 가슴에 달고
매일 계획을 넘쳐하는 처녀가 장하다시며

그의 등을 두드려주시던 그날

그날을 못 잊어 오늘도 못 잊어
언제나 그날에 마음을 세우고사는
《처녀선반공》

수령님께 기쁨드린 그날을 못 잊어
장군님께 기쁨드릴 그날을 그리며
열정에 사는 마음이어서

누구나 다 아는 정다운 그 이름
누구나 오늘도 그렇게 찾는
《처녀선반공》

추억 속의 돌고개길

가파로운 벼랑을 가로질러
읍으로 질러가던 돌고개길
돌부리에 걸채이며
바위바위 넘어가던 한나절길

굽이굽이 개울따라 산을 에돌면

읍으로 가는 길 하루길이어서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넘어지며 텅굴며 넘던 돌고개길

희천에도 막바지 심심산골
내 고향의 문턱인듯 넘던 돌고개길

시대의 요구를 민감하게 반영하자

—올해 상반기도 《조선문학》에 실린 단편소설들을 두고—

리창유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까지 강성대국의 문패를 달기 위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기 세차게 타오르고있는 장엄한 현실은 우리 작가들로 하여금 우리 군대와 인민의 벽찬 투쟁을 더욱 힘차게 고무추동할 우수한 문학작품들을 더 많이 써낼것을 요구하고있다.

당의 부름따라 150일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100일전투에서 높은 정신력을 총동원하여 날에 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우리 군대와 건설자들은 변이 나는 올해에 새로운 《희천속도》를 창조하였으며 세인을 경탄시키는 눈부신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이러한 벽찬 현실에 뛰어들어 시대의 숨결을 뜨겁게 체험할 때만이 선군시대에 창조된 인간전형의 참모습을 통하여 수령, 당, 대중의 혼연일체가 된 우리 나라의 현실을 진실하게 그려낼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의 사상전선을 지켜선 우리의 작가들은 어떤 환경속에서도 당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야 하며 작가의 필봉은 언제나 당을 옹호하는 혁명의 보검으로 빛나야 한다.》

올해 상반기에도 우리 작가들은 선군시대의 현실을 반영한 우수한 단편소설들을 적지 않게 내놓았다.

당이 맡겨준 초소에서 누가 보건말건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를 이악하게 관철해내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성실히 일해온 한 농촌리병원 원장의 형상을 진실하게 그려낸 단편소설 《숲속의 돌배나무》(리영환, 2호)와 오늘을 위한 오늘이 아니라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선군시대 인간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뜨겁게 보여준 단편소설 《오늘과 래일》(리정수, 1호), 《숲속의 나무 한그루》(김홍익, 4호), 조국수호정신을 주제로 한 단편소설 《가시오갈피》(김홍철, 3호)와 해방직후 한 철공소의 특수강관을 온갖 계급적원수들이 준동하는 속에서 목숨을 내대고 지켜낸 한 당원의 투쟁을 그린 단편소설 《자물쇠》(박성진, 1호)는 그의 대표적레증으로 된다.

우의 작품들은 선군시대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벽찬 환경속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어떻게 살며 일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민감하게 반영한것이 특징적이다.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굳센 신념을 안고 나이가 많아 탄광 지배인자리를 내놓게 된 때에도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탄광의 래일을 위해 3년분의 굴진을 선행시키려고 굴진막장에 들어가 전투를 지휘하는 주인공 한명진(《오늘과 래일》), 조국의 산야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기 위해 수송을 보장하는 여가에도 누가 보건말건 나무를 잘 관리하는 책임운전자 강진(《숲속의 나무 한그루》)...

이들은 조국의 재부를 늘이기 위해 누가 알아주건말건 진심으로 애쓰는 선군시대의 참된 사람들이다.

했어도 내 자란 향촌의 길이어서
추억속에 잊혀지지 않던 돌고개길이어

변모되는 내 고향에
적으나마 무엇이라도 보태고싶어
내 머리 흰 오늘에 찾아오니
아 꿈은 아닌가
그날의 돌고개는 사라지고
너무도 희한한 넓은 도로우에
대형차들 드바빠 달리니

정녕 두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그날의 돌고개길 그 고개길인데
산악을 통채로 날려버리고
읍으로 뻗은 그날의 한나절 지름길이
오늘은 순간으로 당겨졌구나

우리 장군님병사들
하는 일은 정말 통도 크다
발전소건설도 앞당기며
《희천속도》를 창조한 그 열정
내 추억으로만 남은
이 돌고개길자리에서 다 알겠구나

걸음도 한결 가벼워지고
늙은 이 몸에도 날개가 돋히는듯
가자
저 일떠서는 언제우에
한줄 물탈이라도 어서 올리자
가자
애국에 불타는 심장만이
장군님께 기쁨드리는 이런 지름길 열수 있어라

단편소설 《숲속의 돌배나무》의 주인공인 외진 산골 리인민병원 원장 윤혜순 역시 영예군인이 된 영웅전사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하기 위해 20여년을 하루와 같이 자체로 각종 고려약을 만들고 최신의료기구로 각종 치료에 전심하는 우리 시대의 참된 애국자의 전형으로 잘 형상되었다.

그의 주도적인 성격적특질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충정이다.

이것은 30여년전 그가 대학을 마치고 이곳 진료소(그후 리인민병원으로 됨.)로 배치되게 된 동기와 그이후 그가 해놓은 일들에서 잘 나타나고있다.

의학대학 박사원생이었던 그는 실습차로 이곳에 나왔다가 이 진료소가 여러차례에 달하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를 받은 단위라는것을 알게 된다. 농촌진료소를 앞으로 병원화하여 환자없는 마을로 만들데 대한 뜨거운 은정의 교시를 주신 아버지수령님.

수령님의 현지교시에 접한 윤혜순은 심장을 불태웠고 그를 관철하기 위한 길에서 끝없는 헌신성을 높이 발휘하였다. 모든 치료실들을 꾸렸고 덩지 큰 건물들도 여러개 지었다. ...

그의 주도적인 성격적특질은 또한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우리의 미래는 양양하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고한 신념이다.

《고난의 행군》시기 생활이 어렵다고 일부 의료일꾼들이 이곳을 뜨려 하자 그는 어려운 때 자기 일터를 버리고 제 살 궁냥만 하는것은 래일에 대한 신념이 없는 사람들만이 할수 있는 일이라고 준절히 말한다. 그러면서 그들의 생활을 진심으로 도와준다. 그의 이 말과 행동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우리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만 있다는것을 확고히 믿는 그의 굳센 신념을 잘 말하여준다.

우의 단편소설들은 또한 사회주의조국수호정신을 투철히 반영하고있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참다운 조국애는 사회주의조국을 목숨으로 수호하려는 높은 자각과 그를 실현하는 실천행동에서 발현된다. 그것은 문학작품에서 우리 수령, 우리당이 세상에서 제일이고 사회주의 우리 조국이 제일이라는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과 참다운 조국애를 소유한 인간전형들을 형상할 때 나타나는 사상정신적특질이라고 할수 있다.

단편소설 《가시오갈피》나 《자물쇠》는 이런 의미에서 적지 않은 시사상을 주는 작품들이다.

《가시오갈피》의 주인공 명식이가 홀어머니를 집에 두고 인민군대에 나가는것을 주저하자 그의 어머니는 해방전의 쓰라린 과거사와 조국해방전쟁시기 조국을 지켜 전사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네가 진정 이 어머니 생각을 한다면 아버지처럼 나라를 받드는 길에서 남 부끄럽지 않게 조국을 지켜 자기 한몸을 바칠 각오를 하고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전쟁시기 원쑤 미제놈이 뿔군 세균탄만행으로 하여 다 죽게 된 명식이를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의 손길이 있어 무상치료제의 혜택으로 살려내게 된 어머니...

이렇게 자라난 명식이기에 그는 군사복무도 성실히 하였고 군사임무수행중 허리를 상하여(전우들을 구원한 영웅적행동) 제대된 후에도 나라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자고 광산탐측과에 와서 열성껏 일을 하였고 광산의 책임일군으로까지 성장한다.

작품에서는 가시오갈피세부형상을 중심으로 어떻게 늑마에 명식이가 태어났으며 그가 어머니를 위한 일이라면 그 누구에게도 비할수 없을만큼 지극한 효성을 지니게 되었으며 그로 하여 나라에 죄된 일을 할번 하여 어머니의 된 꾸지람을 받은 어린시절 과거사와 군사복무과정에 있는 영웅적소행이며 그이후 허리부상으로 제대되었어도 조국을 위한 일에 보탬을 주려고 자진하여 힘든 일을 하게 된 참다운 조국애의 소유자로 높이 승화시켜 진실하게 그려보고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참다운 조국애와 결합시켜 선군시대 강성대국건설에서 일꾼들이 소유한 높은 정신력의 형성발전과정을 단편소설의 용적에 담아 형상한것, 바로 여기에 이 작품의 높은 사상예술적풍격이 있고 작품이 가지는 독특한 예술적견인력이 있다.

특히 작품에서는 선군시대의 인간이라면 그 누구이건 또 어떤 환경에 처하든 남의 그늘밑에서 사는것을 수치로 여겨야 하며 따라서 하나라도 진심을 바쳐 조국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할 때 그 인간의 삶은 만사람의 공감을 받게 된다는 인생철학을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이것으로 하여 작품은 강성대국건설에 자기 한몸을 서슴없이 내대고 뛰고 또 뛰는 우리 시대 일군의 높은 정신력의 바탕을 참다운 조국애와 결합시켜 잘 형상하였다고 할수 있다.

단편소설 《자물쇠》의 주인공인 봉수의 아버지는 인민이 주인된 새 조국의 재부를 지키려고 왜놈들이 패망하면서 실어가려고 한 특수강판을 목숨을 내걸고 빼앗아내며 계급적원쑤들의 온갖 유혹과 협박을 받으면서도 끝끝내 그것을 지켜냄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치하의 말씀을 받아안게 된다.

작품에 그려진 수령님의 교시에 대한 결사관철의 정신은 비록 해방직후 로동계급의 투쟁을 반영한 생활소재임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준다. 한것은 과거생활소재라 할지라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긍정인물의 생활과 투쟁을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의 측면에서 잘 부각시켜 형상하였기때문이다.

우에서 폐증한 단편소설들에서는 예술적형상화의 높이에서도 훌륭한 점들을 많이 찾아볼수 있다.

우선 작가에 의하여 탐색된 이채로운 생활세부들이 적지 않다.

인간과 생활에 대한 세부묘사는 인물을 그리든 환경을 그리든 관계없이 소설의 기본묘사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생동하고 특색있는 세부를 선정하고 그것으로 이야기를 펼쳐나가는데 작가의 깊은 탐구가 있고 재치있는 예술적기교가 있다.

단편소설 《숲속의 돌배나무》에서 농촌풍경을 그리면서 돌배나무세부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며 주인공 윤혜순이 절벽에 매달려있는 벌집에서 꿀을 따려 하다가 떨어지는 세부, 군대에 나가는 아들에게 돌배 한배낭을 넣어주며 고향을 잊지 말라고 하는 아버지의 당부, 윤혜순이 환자치료에 쓰기 위해 산비둘기를 잡아오려고 강건너 섬으로 가려 하자 그의 남편이며 의사 연두철이 제 먼저 강물에 뛰어드는 세부 등은 얼마나 이채로운 것인가.

또한 단편소설 《가시오갈피》에서 주인공 명식이 늦게까지 어머니의 젖을 먹는 세부며 그가 《가시오갈피》라는 별칭으로 불리우는 세부, 그가 직일관근무를 설 때 한고향에서 군대에 나온 성문병사를 찾아 뵈어진 그의 목달개를 달아주는 세부, 명식이 군대에 나가기를 저어하자 어머니가 그의 종아리를 때리다못해 자식교양을 잘못했다며 자기의 종아리를 때리며 눈물 흘리는 세부 역시 특색이 있는것들이다.

특히 이 작품에서는 《가시오갈피》라는 별명이 붙게 된 세부를 중심에 놓고 기본이야기가 펼쳐지도록 이여의 세부형상을 이에 집중시킬수 있게 배열함으로써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조국에 대한 사랑으로 승화되는 과정이 산만하지 않게 그려져있다.

우에 레중한 작품들을 살펴보면 인물들의 내면 심리묘사를 자연환경묘사와 밀착시켜 한것도 역시 우점으로 볼수 있다.

이러한 작품으로서는 단편소설 《숲속의 나무한그루》를 들수 있다.

작품에 그려진 자연환경에 대한 질은 정서적묘사, 그것은 마치 한쪽의 아름다운 풍경화를 감상하는듯 한 느낌을 준다. 이것은 자연환경에 대한 묘사를 줌에 있어서 숲을 사랑하는 작가자신의 심리가 비끼고 인물들의 사상감정으로 물들여진 정서적평가에 의하여 굴절된것이라고 할수 있다.

이밖에도 원산청년발전소건설자들의 생활을 취급한 단편소설 《뜨거운 심장들》(조인영, 5호)과 석탄전선에 자원진출하여 새로운 갱건설에 펼쳐나선 세대군인들의 모습을 형상한 단편소설 《세대의 룰리》(오운서, 3호)는 선군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살며 일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민감한 예술적해명을 주고있는것으로 하여 우수한 계열의 작품으로 평가할수 있다. 작가의 발견이 있고 탐구의 몫이 크다. 또 예술적흥미가 있게 이야기가 잘 엮어져 다 읽고난 뒤 좀더 무엇인가 있었으면 하는 느낌도 든다. 이것이면 단편소설이 성공한것이 아닌가!

올해 상반기년도에 이처럼 사상예술성이 비교적

높은 좋은 단편소설들, 그것도 시대의 요구에 민감한 예술적해명을 준 작품들이 눈에 뜨이게 발표되었다.

하지만 창작실천상 반드시 언급해야 할 부족점들도 나타났다.

그것은 사상예술적높이가 저조하거나 시대의 요구가 잘 반영되지 못한 비전형적인 문제를 두고 쓴 작품들이 실린것이다.

단편소설 《탄부와 불》(한웅빈, 6호)을 살펴보자.

소설은 재미있게 이야기를 꾸미고 일정하게 작가의 예술적기교를 알수 있게 하는 점에서 그 우점을 찾아볼수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문제설정과 그 해명에서 비전형적인데로 이야기를 펼쳐보임으로써 들끓는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한 큰 부족점을 안고있다.

탄광에서 모범적으로 일하던 청년탄부인 철남이가 왜 갑자기 우울해하는가. 그것은 일 잘하는 모범적인 사람들을 탄광에 보내지 않고 하필이면 과오를 범한 일군들을 보내는것으로 생겨난 불만이며 우울증이다.

작품에서는 이렇게 쓰고있다.

《탄광이 어쨌다구? 그들은 모두 강성대국건설에서 석탄이 가장 중요하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사람들이였다. 그렇다면 웅당 제일 모범적인 사람들을 두고 <저런 사람은 탄광에 보내도 되겠구만.> 해야 할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말하고있지 않는가.》(방점-필자)

주인공 철남이가 휴가차로 평양에 놀러갔다가 돌아올 때 열차칸에서 한 좌석에 마주앉아있던 사람들이 일을 쓰게 못한 어느 한 공장의 일군들을 두고 그런 사람들은 처벌이 아니라 탄광막장에 들여보내여 《제 손으로 탄을 캐보게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에 속으로 반발한 심리를 서술한 대목이다. 나는 구태여 이 짧은 글에서 작가가 무엇을 표현하려 하였는가 하는것을 그이상 분석하지 않으려 한다.

다만 작품에서 이런데로 이야기를 끌고나가다보니 주인공 철남이의 시점에서는 모든것을 찌글서하게 보고 주관적으로 망탕 평가한다는가 불만에 가득찬 행동밖에 할수 없게 된 그 모든 생활장면들이 저조하게 그려졌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주인공 철남이의 이지러진 성격형상으로 흐른 결과 작품의 양상은 어둡고 침침할수밖에 없는것이다.

이것은 작품에서 비전형적인 문제에 집착하여 이야기를 꾸민데 부족점의 기본원인이 있다고 해야 할것이다.

론의점이 있는 작품으로서는 단편소설 《뿌리와 열매》(최상기, 1호)를 들수 있다.

작품은 일군들이 선진과학과 기술을 중시하여야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킬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문제설정자체는 선군시대 초미의 문제를 들고나왔다고 할수 있다.

아들과 나는 마음속 대화

염 득 복

아들아
뿌리가 상하지 않게
잘 다지거라
네가 뛰놀며 자란 이 교정에
너는 다만 애어린 나무만을 심지 않는다

날이 밝으면
너는 이제 군복을 입고 떠나가겠지
최전연초소로 너는 떠나가도
네가 심은 이 나무는 푸르싱싱 자라
아름드리거목으로 설레일게다

그때면 새들도 날아와 우짖고
귀여운 동생들 뛰어놀 때
시원한 그늘도 던져줄게다
형님들 심은 나무 더 잘 가꾸며
마음도 희망도 키울게다

전초선의 깊은 밤
비바람이 불어와도
눈보라 사납게 울부짖어도
문득 네 추억속에 떠오를게다
네가 심은 나무가 상하지는 않는지

그보다도
불바람이 몰아쳐오면 처갓기며
너는 한가슴 성벽처럼 내대는 순간에도
고향에 네가 심은 나무 불에 타지 않게
네 자란 행복의 이 마당가에
한점 불찌라도 날릴세라 용맹하려니

아들아
너는 다만 어린 나무만을 심지 않는다
조국이라는 크나큰 거목에
뿌리가 될 그 마음
애국의 그 넋을 심는것이니

저기 정문결에
영웅의 반신상이 너를 지켜보누나
이 교정을 나서는 너 몇번째 병사더냐
묻는듯 웃는듯
오늘도 위훈으로 빛나는 최후의 그 순간에 서서
네가 심는 나무도 애무하는듯

아들아
조국위해 너 이제 첫걸음을 떼지만
부디 억세게 이어가다오
네가 심는 나무도 연약한 뿌리를 이 땅에 내렸어도
이제 나날이 나무에 자양을 보태주며
조국의 대지에 억센 뿌리 내릴테니

바라노라 그리고 지켜보리라
너를 낳은 어머니의 자격으로
저 영웅의 반신상이 바라보는 이곳에서
언제나 초소의 네 모습 그려보려니
너를 낳은 어머니 하나이듯이
너를 키운 행복의 요람
네가 지킬 조국도 하나
네가 새길 애국의 넋도 하나일진대
뿌리가 되여다오
강성번영하는 내 조국의 뿌리가

그런데 작품에 등장하는 적지 않은 일꾼들은 절박한 시대의 요구에 너무도 뒤떨어졌거나 무능한 인간으로 형상되고있다.

작품의 간단한 줄거리를 살펴보자.

주인공인 오성농장 1작업반 기술원 용범이는 새로운 벼재배법을 완성하기 위해 부단히 탐구하고 사색하는 일꾼이다. 그런데 그의 제의를 관리위원장 오영순이 너무나 모질게 반대해나선다.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 군을 현지도하시실 때 평도의 첫 자옥을 새기신 곳이고 수령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찾아주신 오성농장.

이런 본보기농장을 책임진 일꾼이 과학과 기술의 시대인 오늘의 현실을 외면하고 구태의연한 농법으로 농사를 지으려 한다. 그는 새로운 벼재배법을 창안완성한 기술일꾼을 제마음대로 사업정지처벌을 주며 아무런 과학기술적파악도 못하면서 얼굴이 새파래져 욕설을 퍼붓다못해 그가 자리를 뜬 사이에 시험포전을 갈아엎으려 한다.

보다싶이 위대한 혁명사적이 깃든 농장을 책임진 일꾼으로서는 전형이 못되는 일꾼이다.

작품의 중요인물인 1작업반장 조성덕은 기술적 확신을 못 가진 인물일뿐아니라 지나치게 우왕좌왕하는 일꾼이다.

작품의 부족점은 긍정의 대가 너무나 허약하고 부정이 판을 치는것으로 이야기가 꾸며진것이며 선군시대 현지도단위의 책임일꾼형상이 전형이 못되는 인물로 그려진것이다.

작품은 사상예술적풍격이 지나치게 낮다.

이밖에도 올해 상반기연도에 나온 일부 단편소설들을 보면 틀에 박힌 얄은 오해선을 반복해씀으로써 형상수준이 낮다든가 단편소설 《바쁜 일》(변창률, 2호)과 같이 시대정신이 희박한 일련의 작품들도 있다.

우리 작가들은 강성대국건설대전의 들끓는 현실을 뜨겁게 체험하고 시대의 요구에 민감한 해답을 줄수 있는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작품들을 더 많이 써내야 할것이다.

밝은 앞날의 모습



추 병 호

김영진동지, 그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소식을 전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오는 12월 ×일에 우리 막내아들의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강만 허락하신다면 꼭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표성규 드림

이 짝막한 결혼식초청장을 받은 김영진은 한동안 깊은 추억에 잠겨 앉아있었다. 그러다가 사진첩을 꺼내어 표성규를 비롯한 기계공장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찾아보았다.

…세월이란 참, 내가 다른데로 조동되면서 기계공장을 떠난지도 어느덧 스무해가 지났구나. 그런데도 표동무랑 모두들 아직 나를 잊지 않고있다니…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다. 그래 좋다. 이 사진이다. 이 사진이 표동무의 기술혁신안 성공을 기념해서 찍은 사진이지. 여기 가운데 서서 밝은 웃음을 짓고있는 사람이 표동무이지. 표동무옆에 서서 복스럽게 웃고있는 이 처녀가 군인민병원 의사 리은하이구, 표동무에게 밝은 웃음을 안겨주기 위해 애쓴 처녀… 그 과정에 서로 사랑도 꽃피우고… 그들도 이제 많이 변했겠지. …

김영진은 그들의 현재모습을 상상해보았다. 하지만 왜서인지 그 모습이 잘 떠오르지 않았다.

다만 기술혁신안을 성공하고 기쁨에 넘쳐 밝게 웃던 표성규의 모습만이 삼삼히 떠오를뿐이었다.

…표성규, 저주로운 일본땅에서 태어나 갖은 고생을 다 겪으며 잃었던 웃음을 조국땅에 와서야 되찾은 사람…

참! 올해는 제1차 귀국선이 청진항에 닿을 내린 지 50년이 되는 해로구나. …

김영진은 표성규에 대하여 감회깊게 돌이켜 보았다.

40여년전 언땅이 풀리고 새움이 싹터오르면서 산도 들도 파릇파릇 푸른빛으로 단장되어가던 계절이었다. 끝간데없이 펼쳐진 하늘과 찬란한 햇빛을 떠이고 표성규는 어느 한 기계공장의 기사로 배치되어왔다.

공장에서는 부모도 형제도 처자도 없이 홀로 조국에 온 이 스물일곱살난 청년을 친혈육처럼 반갑게 맞아주었고 청년기사 류경식과 합숙의 한호실에서 지내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그날밤 청진에서 그곳까지 먼길을 온 피곤이 몰려 표성규는 일찌기 잠들었다가 한밤중에 꿈을 꾸었다.

… 모진 광풍이 검질기게 몰아치더니 한알의 씨앗을 끝내 가지에서 떼내어 허공높이 날려보냈다. 광풍에 휘말려오는 씨앗은 숨막히도록 오염된 대기속에서 방향없이 떠다녔다. 언제 어디에 떨어질지 몰라 겁에 질려 오돌오돌 떠는 씨앗을 번개가 번쩍 놀래우고 우뢰가 파르릉 비웃었다.

뒤미처 억수로 쏟아지기 시작한 장대비에 말려들어 하마트면 나락속깊이 떨어질번 하였을 때 불쑥 나타난 한척의 배가 씨앗을 아득히 수평선끝에 자리잡은 맑은 아침의 나라로 실어갔다.

그곳의 대지는 보드라운 흙으로 그를 덮어주고 나서 속삭였다.

《나의 품엔 수분도 자양분도 무진장하다. 어서 억세게 뿌리를 내리거라.》

땅속까지 스며든 포근한 햇빛도 따뜻이 어루쓸어주며 속삭였다.

《여긴 너의 보금자리다. 자, 어서 아름답리

거목으로 자라나거라.》

그러나 한알의 씨앗은 모든것이 눈에 설고 귀에 설다나니 몸을 웅송그리고 두리번두리번 주위를 살펴볼뿐 어찌할바를 몰랐다. …

어느덧 그 씨앗이 자기자신의 모습으로 변하였을 때 표성규는 잠에서 깨어났다.

(꿈이었구나.)

호실안은 캄캄하고 조용했다.

단잠을 자고있는 류경식의 고르로운 숨소리만 알릴듯달듯 들려온다. 창밖을 내다보니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보석처럼 반짝이고있었다.

몸을 일으킨 그는 잠시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국땅에서 나서자란 사람인것만큼 조국에는 아는 사람이 없고 추억에 남아있는 풍경도 없다.

청진항에 내린 순간부터 이 공장에 오기까지 며칠동안 지내보니 벌써 모든것이 자기가 살던 일본과는 전혀 다르다는것이 알렸다. 사방에 나붙은 구호판들을 보면 조국인민들의 지향, 목표, 신념 등이 비슷이 짐작이 갔다.

물론 갓 건너온 그에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구호도 있었다. 레하면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라는 구호의 뜻은 잘 알수 없었다. 지난날 손에 무장을 들고 일제와 싸운 항일유격대식으로 생산이나 학습을 하자는것은 무슨 뜻인지? 또한 오늘 그를 환영해준 공장사람들속에 초급당위원회 위원이라는 나이많은 기사도 있었는데 그런 직책은 듣다 처음이었다. 류경식에게 물어보았더니 공장에서 오래동안 기사로 일해온 김영진이라는 아바이인데 공장초급당위원회 위원으로서 공장의 전반사업을 결정하는데 참가한다는 것이었다. 그 초급당위원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평범한 기사가 어떻게 공장의 전반사업을 결정한다는것인가?…

저녁에 류경식과 단 둘이서 대화를 나누다가 우연히 《메뚜기》가 화제에 올랐다.

《메뚜기가 뭐요?》

표성규가 의아하여 물었다.

《아니, 세상에 메뚜기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나? 일본에는 메뚜기가 없소?》

사실은 메뚜기를 모르는것이 아니라 《메뚜기》라는 조선말을 몰랐을뿐이지 일본말로 《바타》라고 하였더라면 왜 몰랐겠는가. 일본학교에만 다니다가 대학을 나온 다음에야 우리 말 공부를 시작한 그는 아직 그런 곤충의 이름까지는 미처 배우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저 사람들은 제유충수요?》

합숙의 앞마당에서 룡구경기를 하고있는 젊은 사람들을 가리키며 표성규가 물었다.

《제유충수가 뭐요?》

류경식이 눈을 크게 뜨고 머리를 기웃거렸다. 알고보니 아직도 우리 말 발음을 정확히 번질줄

모르는 표성규가 《체육선수》를 《제유충수》라고 발음한것이였다.

《표동문 인민학교(당시)에 가서 우리 말 공부부터 다시 해야겠소. 하하.》

류경식은 배를 그러안고 웃었다. 원래 쾌활한 성격이다보니 일상이 남들을 잘 웃기고 자기도 늘 웃으며 사는데 습관된 그였다.

하지만 본의아니게 그 웃음이 표성규의 기분을 잡쳐놓았다. 비록 바람에 날아갈것 같이 강마른 몸이었으나 자존심은 여간만 강하지 않은데다가 이국땅에서 하도 외롭고 고통스럽게 살아온 탓으로 성격이 어지간히 이지러져버린 표성규는 그만 입을 다물어버리고 더이상 대화를 나누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안된다는것을 모르지는 않았지만…

공장에 와서 하루도 못되는 사이에 있는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표성규는 긴숨을 후 내쉬었다. 자기가 조국에서의 생활에 빨리 적응되겠는지 걱정이 되어 다시 잠들수 없었다.

어느 일요일 오전이였다. 뜻밖에 김영진아바이가 합숙에 찾아왔다.

표성규는 벌떡 일어섰다. 예상치 않던 일이여서 그는 저도 모르게 콧웃해졌다. 공장초급당위원회 위원이라는 《높은 직위》에 있는 아바이가 자기같이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을 무엇하러 찾아왔을가? 그것도 다들 쉬는 일요일에…

《책을 보고있었소?》

《기계설계》라는 책이 표성규의 손에 쥐여져있는것을 본 김영진아바이가 너그러운 웃음을 지으며 물었다.

《예, …》

《생활에서 불편한 점이 많겠지?》

김영진아바이는 앉으라고 손시늉하였다.

《뭘 별로…》

표성규는 앉지 않았다.

《합숙식사가 입에 맞지 않는것 같은데?》

실지 표성규는 밥을 남기는 일이 많았다. 아바이가 그것을 알고 물어보았을가? 설마…

《괜찮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였다. 그는 일본에서 위병을 타고왔으며 그 위병은 이미 만성화되고있었다.

《보매 분명히 아픈데가 있는것 같은데?》

《아, 아닙니다.》

《표동무…》

《예.》

《왜 그렇게 딱딱해서 몸돌바를 몰라하오? 나도 동무와 같은 우리 공장의 평범한 기사란 말이요》

《아니, 저…》

《하하하, 동문 벌써 우리 공장 사람들한테서 호평을 받기 시작했소.》

그는 표성규를 의자에 앉혔다.

《호평이라니요?》

《동무가 〈표준시계〉라고 불리우고있는걸 모르오? 시간과 약속을 잘 지킨다는거요. 그러니 우리 공장에서 시작은 잘 땀샘이지. 하지만 결함도 있소. …》

《어떤 결함 말입니까?》

《동문 사람들과 잘 휩쓸리려 하지 않고 늘 혼자 있다더군. 모두가 동무와 가깝게 사귀고싶어하는데 그걸 몰라주면 안되지.》

《저같은것과 왜 사귀고싶어하겠습니까.》

《하, 이 동무 봐라. 동무는 우리 공장의 기사이며 귀중한 혁명동지란 말이요.》

《혁명동지?》

《물론 그 말의 뜻을 아직은 잘 모를수 있지.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많은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사귀도록 해보오. 우리 집에도 놀러오고…》

아버이는 이어 표성규에게 공장의 실태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면서 기계공학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였다. 표성규는 그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할수 있었다.

《표동무가 기계속에 아주 밝구만. 래일 함께 지배인동지한테 가보기요. 동무에게 한가지 과제를 맡기기로 토론이 있었소. 믿고 맡기는것이니 잘해보오.》

어느날 공장의 기사들이 다같이 이 공장 부업발에 나갔다. 환그룹이 따가운 해별을 가리워주고 선들바람도 불어오니 김매기철치고는 그닥 무덤지 않았다.

모두가 한이랑씩 타고앉아 술술 김을 땀다.

늘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머리넘겨 운동부족을 해소하는 좋은 기회였다.

어느 익살꾼이 우스운 이야기를 했는지 웃음이 터져올랐다. 흥얼흥얼 코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유독 표성규만은 다른 사람들보다 멀리 떨어져서 땀을 뻘뻘 흘리고있었다. 창피해도 쇠약해진 몸이 말을 듣지 않으니 아무리 이악을 써도 어찌는수가 없었다.

그는 위의 아픔을 내색하지 않았다. 그래야 소용이 없다고 고집스럽게 생각하고있는 그였다.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그 험악한 일본땅에서 앞길을 개척하느라 악전고투해온 그 피로운 나날에 그를 진심으로 동정해주고 도와준 사람이 있던가? 남의 아픔따위는 돌아보지조차 않는 세상이었다.

일찌기 부모를 여의고 혈혈단신으로 모진 풍파를 헤쳐나가지 않으면 안되었던 그에게는 인생행로가 그대로 고독하기 이룰데 없는 가시덤불길이었다. 찢리워도 피를 흘려도 참고 견디여낼수밖에 다른 길은 없었던것이다. 그래서 그는 참는데 습

관되고말았다. 누가 동정해주리라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다.

《후…》

모두숨을 내쉬 표성규는 얼굴을 찡그리며 위부위에 왼손을 댄채로 주저앉았다. 또 속이 메스메스해지기 시작한것이다.

앞서나가는 사람들속에 김영진아버이의 뒤모습이 보였다. 초급당위원회 위원인데다 나이도 많은 아버지가 이런 작업에까지 나선다는것이 잘 믿어지지 않았다.

자기 이랑을 다 나간 류경식이 표성규의 이랑을 반대쪽에서 매주면서 마주오고있었다. 쾌활하고 좋은 동무인데 어딘가 모르게 항상 표성규에게 교양을 주려는 태도가 엿보이는것이 좀 비위에 거슬렸다.

그때 멍치끝을 쥐여비트느것 같은 심한 아픔이 가슴으로 울려뻔치는통에 표성규는 숨쉬기조차 급해졌다. 식은땀이 쭉 흘러내렸다.

그는 주머니에서 건위산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꺼냈다. 마침 그 찰나에 류경식과 마주쳤다.

《힘든 모양이구만.》

류경식은 표성규가 손에 쥐고있는 건위산봉지를 보면서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런걸 이런데서 먹지 않는게 좋을거요. 우리 사람들은 한알의 사탕이라도 함께 나누어먹는데 습관되어있거든.》

위의 아픔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늘 가지고다니는 건위산을 류경식은 물에 풀어서 마시는 과일음료가루인줄로만 알고있었다. 그렇게 말한것은 다름아닌 표성규자신이였다. 위병이 심하다는것을 숨기려고 그런 거짓말을 한것이다.

《으—옥!》

도저히 참기 어려운 육체적고통이 표성규를 그만 탈고랑에 쓰러뜨렸다.

《아니 표동무, 왜 그러오? 표동무!》

류경식은 너무 당황해서 어쩔바를 몰랐다. 김영진아버이를 비롯한 사람들이 달려왔다.

군인민병원 내과 의사 리은하의 일기

…오늘 아버지의 친구인 김영진기사동지가 환자를 직접 업고 우리 병원에 오셨다. 일본에서 갓 귀국해온 기계공장의 기사라고 한다.

진찰을 해보니 위경련이였다. 오랜 위병이 그 지경으로 악화된것이 틀림없었다. 몇가지 혈을 누르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일단 동통을 진정시켜놓았는데 지금 깊이 잠들고있다.

오늘은 나의 스물일곱번째 생일이지만 환자의 병상태가 말이 아니니 퇴근하지 말고 지켜볼 결심이다.

영진기사동지는 환자에 대해서 늦게까지 이야기

를 해주고 가셨다. 그가 자본주의 일본사회에서 갓 건너온 청년이라는것, 왜서인지 사람들에게 결을 주지 않고 늘 혼자 있으려 한다는것, 위병이 그렇게 심한데도 내색을 하지 않았으니 아무도 몰랐다는것...

《은하가 우리 표동무의 위병과 함께 마음의 병도 입원기간에 잘 진단을 내리고 고쳐주면 좋겠는데...》

나에게 환자를 맡기고 가면서 영진동지가 몹시 안타까와하는 기색으로 하신 말을 나는 무심히 듣지 않았다. 사실 20대의 청년이 늘 혼자 있으려 한다는것도 위의 아픔을 숨겨왔다는것도 다 비정상이다. 짐작하건대 자본주의사회에서 환자가 겪은 생활에 그 원인이 있을수 있다. 병치료는 마음이 절반이라는 말도 있는것만큼 웅당 영진기사동지의 부탁을 흘려듣지 말아야 할것이다.

새벽에 가까운 밤중이었다. 손목에 무엇인가와 닿는 감촉을 느낀 표성규는 눈을 반쯤 떴다. 흰 위생복을 입은 녀의사가 그의 맥을 조심스럽게 짚어 보고있었다. 급하기 이룰데 없었던 위경련의 아픔을 진정시켜준 처녀의사라는것을 어둠속에서도 그는 알아보았다. 이름은 리은하라는것 같았다.

맥을 짚어준 은하는 이어 그의 두발을 두손으로 감싸주었다. 파스한 그 손이 차디찬 발을 사르르 녹여주는듯싶었다.

표성규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환자들의 상태도 다 살펴보고나서 그 처녀의사는 조용히 입원실에서 나갔다.

처녀의사가 나간 다음에도 두발에 그냥 남아있는 그 따뜻한 기운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것이였다.

일본에서 여러해동안 신문매달을 해온 그는 새벽 4시면 저절로 깨어나고 아침까지 더 잠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리은하가 날이 밝을 때까지 두 번씩이나 더 들어왔다가 환자들의 상태를 살펴보고 물러간것을 다 알고있었다. 다만 모르는척 했을뿐이였다.

동녘하늘에 홀로 남아서 끝까지 반짝거리던 별도 사라지고 새날이 희뵤히 밝아온 다음 또 들어온 은하는 먼저 뼈가 앙상한 표성규의 가슴에 청진기를 갖다대고 귀를 기울이였다.

키도 크지 않고 미인이라고는 할수 없어도 복스럽게 생긴 얼굴에 언제나 생글생글 웃음을 짓고 다니는 이 처녀의사가 표성규에게는 왜선지 가까이 하고싶지만 그결에 감히 설수 없는 엄엄한 존재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마치 백설처럼 희고 깨끗한 위생복이 이 처녀의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는것만 같았다.

《저... 선생님, 나때문에 밤을 밝혔지요?》

아직까지 부모를 내놓고는 자기를 위하여 뜬눈

으로 밤을 새워준 사람이 없었던것이다.

《어마나, 그러니 기사동진 잠든척 하셨됐구만요. 제가 잠을 깨웠나보지요?》

《그런게 아니라 야간직일을 서는 선생도 있었는데...》

《기사동진 제가 맡은 환자예요.》

《그래두 눈을 좀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걱정마세요. 그것보다도 기사동진 병상태로 미루어 몹시 힘들게 살아온것 같은데?》

표성규는 순간 자기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난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너무나도 외롭게 살아온 그는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며 화목하게 사귄수 있는 사람이 자기 인생행로에 나타나기를 얼마나 갈망했던가. 허나 다음순간 힘들게 살아온것 같다고 한 은하의 말은 의사로서의 소견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알았다. 실지 오랜 세월 질나쁜 식사를 해오거나 섭생을 못 지켰을 때 혹은 위염이나 소화불량증을 제때에 고치지 못했을 때 그것은 위병으로 넘어갈수 있는것이다. 따라서 위병이 생활에서 꼭절이 많은 사람들이 걸리기 쉬운 병이라는것을 의사가 모를리 없다.

《글쎄요. ... 뭐 그닥...》

표성규는 은하의 물음에 어정쩡한 대답밖에 하지 않았다.

《... 좋습니다. 오늘부터 투시를 비롯한 모든 검사를 해보고 치료대책을 세웁시다.》

은하는 더 캐어묻지 않고 생글 웃음을 지었다.

은하는 표성규에게 각별한 관심을 돌리며 정성껏 치료해주었다. 환자들의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여기며 치료를 하는 은하의 그 정성은 가물이 든 땅에 내리기 시작한 단비마냥 표성규의 이지러진 마음속에 서서히 스며들었다.

《세상에 아무런 보수도 바라지 않고 저렇게 정성껏 환자를 치료해주는 의사도 있는가?》

입원한지 사흘째 되는 날 은하는 표성규를 침대에 눕혀놓고 촉진을 하고있었다.

《됐습니다. 옷을 입으세요.》

상반신을 일으킨 표성규는 절반 벗었던 옷을 바로 입고 은하는 병력서에 몇자 적은 다음 말을 이었다.

《모든 실험검사를 다 끝냈는데 기사동지의 위병을 될수록 빨리 고쳐드리자고 협의를 했습니다.》

표성규는 놀란 기색을 보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미 만성화되어버린 병인데 어떻게 그렇게...》

《치료의 첫 공정은 신심을 가지는것입니다.》

《물론 은하선생의 그 정성이면 돌에도 꽃이 피겠지요. 하지만 처처럼 팔자가 사나운 사람한테는 선생의 그 정성도 소용이 없을겁니다.》

《팔자요?... 저... 기사동진 방금 환자들에 대한 저의 정성에 대해서 말했지요?》

《예, 은하 선생은 훌륭한 의사입니다. 전 일본땅에서는 선생같은 의사를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훌륭한 해서가 아니라 고마운 우리 제도와 우리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자고 그러는거예요.》

《?!...》

《10여년전에 우리 오빠가 뜻밖의 일로 온몸에 화상을 입고 사경에 처한적이 있었어요. 자본주의 나라같으면 죽었을거예요. 그러나 우리 당에서는 무조건 살려내야 한다고 의사들을 고무해주고 의사들은 주야전투를 벌리고 오빠의 학교에서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펼쳐나서서 피를 주고 자기의 살점까지 떼주어 끝내 우리 오빠를 살려냈어요. 오빠는 지금 튼튼한 몸으로 조국의 방선을 지켜 군사복무를 하고있어요.》

우리 오빠가 뭐 팔자가 좋아서 살아났을가요? 아니지요. 우리 제도가 좋아서 살아난거예요. 기사동지도 그 고마운 제도하에서 치료를 받고있다는걸 알기만 해도 병이 빨리 나을수 있어요.》

표성규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리은하의 일기

...오늘 표성규기사의 입에서 왜 《팔자》소리가 나왔는가? 그들이 짙은 그의 두눈이 말없이 그 물음에 대답해주는것만 같았다.

일본땅에서 귀국한지 얼마 안되다니 아직 우리나라가 어떤 사회인가를, 우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잘 모르고있는것 같다. ...나에게는 의사로서 그의 병을 고쳐주어야 할 의무도 있지만 그의 이지러진 마음을 바로잡아주고 행복한 앞날을 개척해나가도록 도와주어야 할 혁명동지로서의 의무도 있다. 무엇보다도 그에게 자기도 병을 고칠수 있고 일본땅에서 억눌려온 모든 권리를 쫓아낼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어야 한다. 그래야 병도 빨리 고치고 기사로서, 인간으로서 삶을 빛내어나갈수 있을것이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그에게 희망을 안겨줄수 있을까?...

해빛밝은 일요일아침 밖에서 매미들이 땡땡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표성규는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그동안 병문안을 와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서였다. 같이 일하는 기사들을 비롯하여 려계가 깊은 기능공들, 공장사로청위원장(당시), 합숙의 식모들과 사감아바이... 오늘은 류경식이 세번째로 와주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김영진아바이도 함께 왔다는것이다.

《지금 파장선생을 만나고계시오.》

《파장선생은 왜?》

《왜라니? 표동무의 병상태를 알아보고 우리가 병치료를 위해 도와줄 일이 없는지 알아보자는

거지.》

(얼굴도 잘 모르고 말도 변변히 못해본 사람들이 지금 나 한사람을 위해...)

그때 은하와 내과과장 그리고 김영진아바이가 입원실에 들어왔다. 인사를 하려고 침대에서 일어선 표성규의 손을 아바이가 뜨겁게 잡아주었다.

《표동무의 손에 온기가 도는걸 보니 병이 좀 나아가는것 같구만. 자 여기에 좀 앉으라구.》 하면서 창가에 놓인 의자에 그를 앉혔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은하는 빙그레 웃으며 소묘침을 펼쳐들었다.

김영진이 마주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주었다.

표성규는 난색을 지었다.

(량불이 움푹 들어가고 광대뼈가 두드러지게 나온 팔불견인 나의 얼굴을 무엇때문에 그리겠다는 건가?)

불안해하는 표성규의 그런 마음속을 꿰뚫어보았는지 보기 좋게 뚱뚱한 내과과장이 우스개소리를 시작하였다.

《기사동문 내 이름이 뭔지 아요?》

《모릅니다.》

《변강준이요. 그런데 젊었을적에는 <뼈가죽>이라 불리웠겠소. 그만큼 말라썩이었지. 현대 그 말이 신통히도 내 이름과 비슷하지?》

입원실에 모인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난 태어났을 때 고고성도 제대로 울리지 못했더군. 그만큼 몸이 약했던 말ियो. 아니, 내가 혹시 하도 점잖은 사람이니까 조용히 태어났는지도 모르지.》

사람들은 또 유쾌히 웃었다. 하지만 표성규만은 웃지 않았다. 어쩐지 자기가 웃음거리로 되고있는듯 한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그렇게 인상이 좋았던 은하가 순간에 미워졌다.

내과과장이 말을 이었다.

《그러던 내가 지금은 어떻게 변했나. 전엔 동무처럼 몸이 바싹 마르고 식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은 우리 나라의 맛있는 민족음식들인 평양랭면을 비롯해서 신선로, 보쌈김치, 감자농마국수, 설기떡, 평양온반, 녹두묵, 어죽, 소고기탕국, 대동강송어국, 추어탕, 구절판, 약산적, 약밥, 약과, 파죽, 다식, 정과, 전골, 노치, 초계탕, 찹쌀식혜 등등 있는대로 다 먹고 다 소화시키니까 이제는 뚱뚱보라는 말을 듣게 되지 않았소.》

모두가 또다시 배를 그러안고 웃었다.

그 사이에 은하가 소묘를 다하고 먼저 김영진아바이한테 보였다.

《제목은 이렇게 달았는데...》

《음, 좋구나. 어서 표동무에게 주라구.》

아바이가 표성규를 가리켰다.

《자, 받으세요. 이권 위병을 완전히 고친 기사동지의 앞날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받아본 표성규는 깜짝 놀랐다. 소묘의 제목은 《밝은 앞날의 모습》이었다. 미술가 못지 않은 솜씨로 그린 그의 모습이 자기 얼굴같지 않으면서도 틀림없는 자기 얼굴이었던 것이다.

문득 부모와 함께 찍은 어릴 적의 사진이 생각났다. 그 사진에 있는 어릴 때의 모습은 지금같지 않았다. 그때는 자기도 복스럽고 귀엽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부모를 잃고 험악한 사회풍파를 혼자서 겪어오느라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그림속의 자기는?

《밝은 앞날의 모습》!

그림속의 표성규는 밝게 웃으며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보기 좋게 둥그스레한 얼굴이 꼭 자기 같지 않았다. 하지만 눈매며 코날, 입술 등은 분명 자기 표성규였다.

표성규는 어리둥절해졌다. 꼭 동화에 나오는 앞날을 내다보는 거울앞에 선 것 같았다.

《저… 이 건…》

갑자기 무어라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전 기사동지가 앞으로 그런 모습이 되도록 정성껏 치료해드릴테니 기사동지도 앞으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아니, 꼭 되어야 한다는 신심을 가지고 치료를 받으세요.》

은하가 진정 어린 투로 말하자 김영진 아버지가 뒤를 이었다.

《은하 선생이 그려준 이 그림을 그저 무심히 보면 안 되겠소. 그건 하루빨리 병을 고치고 기사로서 일을 팡팡 하고 사회주의 건설에 크게 이바지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빛내이라는 거요.》

은하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뜨거운 눈길이 그 대로 봄날의 해살이 되어 마음속에 두텁게 얼어붙은 차거운 얼음을 스르르 녹여주는 것만 같았다.

군인민병원 뒤마당의 한쪽 가녀에 한그루 은행나무가 키높이 서 있었다.

표성규는 그 은행나무 밑 의자에 앉아 미풍에 설레이는 나무잎사귀들을 생각에 잠겨 바라보고 있었다.

그에게로 다가온 은하가 말을 건넸다.

《여기서 뭘 하고있어요?》

생각에서 깨어난 표성규는 은하를 알아보고 웃음을 지었다.

《은하 선생이요? 여기 와 앉소.》

표성규는 곁에 앉은 은하를 친근하고 정다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눈이 부시도록 희고 깨끗한 위생복을 입은 이 처녀의사의 자태도 아릿다웠지만 그의 얼굴에서 떠날 줄 모르는 미소는 더욱 매혹적이었다. 그리고 처음에는 딱딱하게 이랬습시다, 저랬습시다 하던 그들의 대화가 이제는 허물없는 친구들사이의 말씨로 변한 것도 표성규를 기쁘게 하였다. 은하가

자기들은 나이가 동갑인데 그렇게 하자고 해서 표성규도 웅한 것이다.

《저… 이런 걸 생각해 보았는데…》

표성규는 손에 쥐고 있던 도면을 은하에게 펼쳐 보였다. 그것은 구상중에 있는 기술혁신안의 도면이었다. 어쩐지 은하에게는 모든 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 품고 있는 사연까지 다 더놓고 싶었던 것이다.

《어마나! 벌써 이런 걸 생각했어요?》

《우리 영진 아버지가 합숙에 찾아와서 해보라기에 좀 생각해 보았는데…》

《어마나! 영진 동지가요?》

은하는 《어마나》를 턱발하면서 말을 이었다.

《그건 믿음의 표시예요.》

《믿음의 표시?》

표성규는 은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공장 초급당원인 영진 동지가 찾아와서 그런 말을 할 때는 당조직이 동무의 기사로서의 능력과 사람됨됨이를 믿고 있다는 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날 믿고 있단 구?》

그 말에 왜서인지 가슴이 뜨거워났다. 당조직이 나를 믿고 있다! 심장이 달아오르고 눈곱이 찜해졌다.

《기술혁신안이 어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이야기해주세요. 그런데 지금이 아니라 퇴원하는 날에.》

은하는 웃으면서 표성규의 손에서 그 도면을 슬그머니 빼앗았다.

《아니 그건…》

《이건 내가 의사의 권한으로 회수하고 책임적으로 전사해 두었다가 돌려드리겠어요.》

《?!…》

《지금은 병치료에 집중해야지요. 그대신 오늘 여기서 약속하자요. 첫째, 퇴원하는 날에 나에게 이 기술혁신에 대해서 설명해 줄 것. 둘째로, 퇴원한 다음 이 기술혁신안을 반드시 완성하겠다는 것. 셋째로, 성공하면 나에게 제일 먼저 알려 주겠다는 것. 넷째로, 알려 주면 내가 축하해 드리겠다는 것. 어때요?》

얼마나 반가운 약속인가. 정말 그날이 빨리 왔으면… 표성규는 은하와의 약속을 기어이 지키리라 마음속으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하고 은하가 말을 이었다.

《이국땅에서 나서 자란 기사동무 조국땅안에 추억할 만 한 풍경이 없겠는데 오늘부터 이 은행나무를 추억에 남기세요. 그러면 조국땅이 그만큼 친근하게 느껴질 거예요.》

조국에서 성장하지 못한 표성규에게는 참으로 뜻이 깊은 말이라고 생각되었다.

은하의 말이 옳았다. 이제부터 기쁜 일이 있을

적마다 그와 편관이 있는 조국의 한포기의 나무, 한송이의 꽃, 한줄의 흙 등을 추억속에 새겨나가면 조국이 그만큼 친근한 곳으로 될것이다.

언젠가 꾸었던 꿈이 생각났다. 꿈속에서 몸을 웅숭그리고 떨기만 하던 작은 그 씨앗도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치고 잎새를 펼치면 이런 거목으로 자라날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느라니 자그마한 부채잎사귀들을 흔들어주는 은행나무가 별스레 정답게 안겨왔다.

《그러니까 위병도 고치고 기술혁신도 해내리라 굳게 결심한 〈맹세의 은행나무〉로서 추억하면 되겠구만.》

그는 짐짓 틀스레하게 말하였다.

《너무 요란하구만요.》

서로 마주보며 그들은 동시에 웃었다.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가까와지게 하는 웃음이었다.

표성규가 퇴원하기 하루전이었다. 가물이 계속되다가 오래간만에 하늘이 찌프러지더니 오후부터 소나기가 억수로 쏟아졌다. 더위에 시달려 후줄근하니 늘어졌던 나무잎들이 시원히 미역을 감아 푸르싱싱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다.

한바탕 번덕을 부리던 하늘은 얼마 못 가서 씻은듯이 개이고 평통한 칠색무지개를 펼쳐놓았다.

의사들과 환자들은 《야!》 하고 탄성을 지르며 저저마다 마당에 달려나와 그것을 바라보았다.

표성규와 은하도 은행나무밑에서 그 무지개를 바라보고있었다. 그에게는 그 무지개가 자기와 은하사이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처럼 생각되었다.

표성규는 한동안 갑자르다가 입을 열었다.

《은하동무, 난... 난... 나쁜 놈이요.》

《예?》

뜻밖의 말에 놀란 은하는 눈길을 표성규에게로 돌렸다.

입원당시 표성규를 진찰하고난 은하가 병상태로 미루어 몹시 힘들게 살아온것 같은데 하고 물었을때 표성규는 어정쩡한 대답밖에 하지 않았다. 그동안 자기를 비롯한 환자들에게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이고있는 은하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꼭 은하를 속인것만 같은 심정에 헐싸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래서 표성규는 그때의 잘못을 속죄하는 심정에서 은하에게 자기가 살아온 지난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표성규는 일본의 고베에서 태어났다. 당시 그의 아버지는 일공로동자였는데 그 수입만으로는 입에 풀칠조차 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어머니도 거리에 지집방을 차려놓고 지집을 지저 팔면서 근근히 살아나갔다. 그런 형편이어서 어릴적부터 공부하기를 좋아하던 그였으나 책 한권 살 돈을 달라고 부모에게 손을 내밀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여기저기 다니며 파철과 파지를 주어가지고 최씨성을 가진 조선사람을 찾아가곤 하였다. 그 사람은 파철과 파지를 모아 파는것이 직업이었다.

《꼬마가 또 왔구나. 깨끗한걸 고르라구.》

최아저씨는 웃으며 파지더미를 가리키곤 했다.

성규는 남들이 파지로 팔아버린 책들속에서 공부에 필요한것들을 골라서 파철과 바꾸었다.

그가 중학교를 졸업한 해에 아버지가 뜻밖의 사고로 사망하는 불상사가 났다.

휴식시간에 건물공사장의 꼭대기에서 떨어진 휘들과 블로크에 얻어맞고 쓰러진 그의 아버지를 함께 일하던 로동자들이 병원까지 업고갔는데 병원에서는 옷차림을 보고는 치료를 거절하였다.

《침대가 없습니다. 다른 병원에 가보시오.》

신통히도 어느 병원에 가나 같은 말을 하였다.

또한 건설업자는 표성규의 아버지가 자기네 사람이 아니라 립시고용로동자라고 해서, 건물주인은 본인의 불찰로 인한 사고라고 생억지를 부리며 치료비를 주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는 끝내 치료도 한번 제대로 못 받고 숨을 거두었다.

생활의 중하를 연약한 한몸에 지닌 표성규의 어머니는 남편이 없어도 아들을 대학에 보내주고싶어서 빚을 저서까지 자그마한 지집방을 술집으로 차리고 술집을 경영해보았다. 술집의 영업이 일정한 궤도에 올라서서 숨을 좀 돌릴만 하다 했는데 천만뜻밖에도 두명의 깡패들이 횡방을 놀았다. 술집을 지켜줄테니 매 달 《보호비》를 내라는것이였다.

표성규의 어머니가 거절하자 놈들은 술집앞에 버티고서서 손님들이 못 들어오게 막았다.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술집앞에 서있는것은 법에 걸리지 않으며 공갈하고있다는 증거도 없다면서 오히려 깡패들을 두둔해나섰다.

손님들과 이웃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들도 복수가 무서워서 다 보고도 못 본체 하였다.

설상가상으로 심부름군으로 일하던 일본녀자가 돈을 몽땅 채가지고 달아나는 사건까지 일어났다.

원래 속병이 있던 표성규의 어머니는 분통이 터져 쓰러져 사흘만에 한많은 세상을 떠났다.

일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표성규는 그동안 살아온 비좁은 세방에서도 나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방세를 물 돈이 없었던것이다.

한지에 나앉게 된 그의 마음속에는 랭혹한 사회와 무정한 인간들에 대한 증오 그리고 망망대해에 홀로 버림을 받은것 같은 불안이 엄습해왔다. 그렇다고 해서 무뎡하게 주저앉아 굶어죽을수도 없었다. 도꼬에 올라간 그는 신문배달을 하면서 고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신문판매소에서는 헛간같은 방을 하나 녹은 값으로 내주었다. 하루에 두번 조건과 석간신문을 배달하면 그만이니 공부할 시간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었다.

표성규는 목욕값도 아까워서 판매소의 위생실에서 몸을 씻었다. 리발도 두달에 한번밖에 하지 않았다. 식사도 하루 한끼는 굶고 한끼는 즉석국수로 굶곘다.

허기증을 참다못해 다 본 책들을 고서점에 팔아서 얻은 돈으로 빵 몇개를 사들고 네온등이 반짝거리는 대도시의 밤거리를 돌아올 때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마음은 비애에 잠겼다.

3년후 겨우 입학금이 마련되어 희망하던 공업대학에 붙을수 있었다.

그런데 그동안 무질서한 식생활을 해온탓인지 심한 위탈을 만나 고통을 겪기 시작했다.

병원에 가자니 돈이 없었다. 그래서 병을 더 길렀다. 아프고 쓰리고 게우고 설사를 하고...

그의 몸은 날마다 쇠약해졌다. 고학이라는것 자체가 힘이 드는데다가 경제적인 곤란과 병마에까지 시달리다나니 죽을 맛이였다. 게다가 자기보다 앞서 대학을 나온 조선청년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해 거리를 헤매고있는 가궁한 모습이 그를 더욱 깊은 절망의 나락속으로 몰아갔다.

그를 도와줄 사람도 걱정해줄 사람도 없었다. 너무나도 괴롭고 외로운데다가 앞이 보이지 않으니 성격마저 이지러져갔다.

그의 피타는 노력은 사막에 꽃씨를 뿌리고 가꾸어온 격이 되고말았다.

그는 웃음을 잃었다. 그런 정신상태가 육체에도 영향을 미쳤는지 위병은 더더욱 악화되어갔다. ...

《그 애길 다른 사람들에게도 했어요?》

이야기를 다 듣고난 은하가 물었다.

《아니, 나의 밝은 앞날의 모습을 그려준 은하동무에게만 이야기했소.》

그렇게 대답해놓고 표성규는 왜선지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귀까지 새빨개지는것을 느꼈다. 어째서 그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지 않았는지 알수 없었다. 아마 몸쓸 왜놈땅에서 울타리를 치고 살아오던 생활습관의 연장일것이다.

침울해진 표성규의 기분을 눈치챘는지 은하가 얼른 명랑한 목소리로 말머리를 돌리였다.

《오늘 저녁에 산삼을 섞은 좁쌀죽을 갖다드릴테니 잡쉴보세요. 명중하면 위병이 뚝 떨어지고 밥이 당길거예요.》

그 다음날 표성규는 퇴원하였다.

이미 약속한대로 표성규는 은하에게 자기가 생각하고있는 기술혁신안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주었다.

은하는 질문까지 하면서 진지하게 물었다. 불과 10분밖에 걸리지 않았으나 그것이 표성규에게 얼마나 큰 고무로 되었는지 은하자신도 몰랐다.

공장사람들은 퇴원후의 표성규에게서 두가지의 변화를 포착하였다. 하나는 그가 합숙에서 내주는 밥을 남기지 않고 다 먹기 시작한것이다. 은하가 먹여준 산삼의 효과가 나타난것 같았다. 다른 하나는 그가 입원중에 병문안을 와준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사귀기 시작한것이다.

《장마전 하늘처럼 찌뿌둥해있던 표동무의 두눈에 밝은 정기가 엿보이기 시작했소. 요즘엔 룡담까지 하더구만.》

모두가 제일처럼 기뻐하였다.

해를 넘기고 또다시 꽃피는 봄철에 들어선무렵 표성규의 기술혁신안이 완성되어 심의를 받았다. 공장당위원회는 그 기술혁신안을 생산에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다.

여러차례의 협의회가 열리고 적극적인 대책이 취해졌다.

첫 협의회에 참가하고있을 때 들려온 매미우는 소리가 표성규에게 옛 추억을 되살려주었다. 은하가 소묘를 해주던 그날에도 매미가 울었다는것을 그는 잊지 않고있었다.

《밝은 앞날의 모습》이라고 제목을 단 그 소묘는 지금 표성규의 보물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는 부모와 함께 찍은 어릴적의 사진과 그 소묘를 대조해보기도 하고 거울을 보면서 그 소묘에 점점 가까와지는 자기 얼굴을 대조해보는것이 이제는 즐거운 습관이 되었다.

협의회가 끝났을 때 표성규는 기술혁신안의 성공을 약속대로 은하에게 알리고싶었다. 그러나 알리면 축하해달라고 재촉하는것 같고 알려지 않으면 약속을 어기는것 같아서 망설이였다. 그런데 은하가 먼저 합숙에 전화를 걸어올줄이야. ...

《축하해요!》

어떻게 알았는가고 물어보았더니 김영진아바이가 출장을 떠나면서 알려주었다는것이였다.

《일요일 점심때 경식기사와 함께 우리 집에 오세요, 기다리겠어요.》

포랑포랑한 은하의 목소리가 저 멀리 다른 세계에서 들려오는것 같은 착각이 일어났다. 그런 따뜻한 정을 모르고 살아온 그였다.

일본에서 대학시험에 합격했을 때도 누구 하나 축하해준 사람이 없었던것이다.

약속한 일요일 표성규는 류경식과 함께 은하의 집을 찾아갔다. 여름인데도 통풍이 잘되는 방안은 조금도 무덤지 않았다. 꽃무늬를 수놓은 엷은 창가림천이 따가운 해별을 막아주며 가볍게 하늘거리고있었다.

은하가 직접 료리솜씨를 발휘하였다는 뽕면도 어찌나 시원하고 별맛이였는지 표성규는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았다.

《우리 애가 치료해준 사람이 병도 고치고 뽕면

도 맛있게 잡셨으니 내 마음도 흐뭇하구만.》

은하의 어머니가 밝게 웃으며 말하였다.

《은하선생은 정말 팬찮습니다. 의술도 높고 환자들에 대한 정성도 지극하고 품성도 좋구 요리솜씨도 수준이 있구...》

류경식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렇게 마음에 든다면 임자가 얻어가게나. 서른이 다 되여오는데 시집을 안 가서 난 속에 재가 앉았네.》

목소가 터졌다. 그러나 류경식은 며칠전에 약혼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은하에겐 스스로가 정한 조건부가 있었다. 리은하가 꼭 곁에 있어주어야 할 사람에게 시집을 가겠다는것이다.

표성규는 그런 사람으로 자기가 될수 없는가고 말하고싶었으나 입밖에 낼수가 없었다.

은하의 어머니가 빈그릇들을 거두어가지고 부엌에 들어갔을 때 표성규는 갑자기 정색해져서 눈을 내리깔았다.

《은하동무, 경식동무, 오늘은 내가 조국에 올 결심을 하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고싶는데 들어주겠소?》

그것은 오랜 세월 갑속에 박혀있었던 그가 드디어 찾아낸 진정한 벗들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려는것이였다.

뼈를 굽어내는듯 한 괴로움속에서도 표성규는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마쳤다. 그러나 일자리는 얻지 못하였다.

배운 지식을 써먹을수 있을만 한 공장이나 기업소들에서 입직시험을 치고싶어도 반드시 내놓아야 할 주민등록사본에 밝혀진 조선국적이 횡방을 놀았기때문이었다.

(대학을 나온 나에게 주민등록사본따위를 요구하지 않는 신문배달과 같은 일밖에 차폐되지 않는단 말인가.)

그것은 일생 가난과 고독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것을 의미하였다.

타락직전에까지 이른 그는 신문배달도 그만두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고 비가 오는 날엔 비를 맞아야 하고 눈이 오는 날에는 눈을 맞으며 일해야 할 신문배달을 앓는 몸으로는 더이상 견디기 어려웠다.

그런 때 누마따라는 동창생이 도와주겠다고 나섰다. 키는 작은데 어깨가 넓고 목이 발랐으며 네모난 얼굴에 박힌 실눈이 어딘가 모르게 음흉한 인상을 주는데다가 그의 형이 야꾸자(일본의 깡패 집단)라는 소문도 돌았기때문에 거의 상대하지 않던 사람이였다.

《어떻게 도와주겠다는건가?》

《사람이 살아가려면 안면이 넓어야 하는거야. 많은 사람들과 사귀는것이 앞길을 개척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야.》

누마따의 그 말이 틀리지 않는다고 표성규는 생각하였다.

《자네 내게 일자리를 알선해줄만 한 사람을 소개해주겠다는건가?》

《내가 이래봐두 정치계, 금융계, 문화예술계, 종교계를 비롯해서 얼마나 안면이 넓은지 오까다군은 모르는 모양이지?》

표성규는 대학에서 조선사람이라는것을 숨기고 오까다 시계나라라는 일본식이름으로 불리워왔다.

《오늘 내가 국회의원을 소개해줄테니 가보지 않겠나?》

국회의원이라는 말에 표성규는 귀가 솔깃해졌다. 국회의원이라니 자기의 일자리쯤은 얼마든지 도와줄수 있을것이다.

근경에 빠져 허우적거리고있던 그는 누마따라는 지푸라기를 잡았다.

《그럼 좀 신세를 저볼가?》

《좋네. 이제 당장 가보자구.》

그들은 전차를 한번 갈아타고 기찌쵸지라는 역에서 내렸다. 그리고 얼마쯤 갔을 때 누마따가 잠깐 아는 집에 들렀다가 뒤따라갈테니 천천히 이길을 곧추 가라고 말하고 골목으로 사라졌다.

표성규는 누마따의 말대로 그 길을 천천히 걸어갔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파출소앞에 이르렀을 때 두명의 경찰이 그의 앞길을 막아나섰다.

《야! 좀 서라.》

둘중 여우상의 경찰이 오만한 투로 말하였다.

《왜 그러니까?》

《외국인등록증을 내놔.》

안경을 낀 또 하나의 경찰이 한손을 내밀었다.

일본에서 사는 외국인들은 그 등록증을 늘 휴대하고 다니게 되어있었다. 하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을 그 법에 걸고 단속하는 일은 드물었다. 오직 조선사람들에 대해서만 그 법을 걸고 못살게 구는 것이였다.

표성규가 하숙에 두고왔다고 대답하자 두명의 경찰들은 막무가내로 표성규를 파출소안에 끌고들어갔다.

(이상하다. 내가 조선사람이라는것을 경찰들이 어떻게 알았을가? 4년동안 함께 대학에 다닌 동창생들도 모르고있는데 혹시 누마따가?)

그는 졸업식때 있던 일이 생각났다. 대학의 출석부에는 일본식이름이 등록되어있었는데 졸업증에만은 본명을 써준다. 그 졸업증을 대학의 안마당에 놓인 의자에 앉아서 혼자 멍하니 보고있을 때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니 다편아닌 누마따가 히물히물 웃으며 다가오던 기억이 났다.

그때 졸업증에 찍힌 그의 본명을 보았는지도 모른다.

(누마따가 나를 경찰에? 설마...)

그는 파출소의 창밖에 나타나야 할 누마따의 모습을 찾았으나 인차 뒤따라오겠다면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들이 심문끝에 조서에 지장을 찍고 벌금을 내라고 하였으나 표성규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다.

그러자 경찰놈들은 둘이서 표성규의 량쪽팔을 하나씩 잡아당기면서 류치장에 가두어놓으려 하였다.

표성규는 새파래졌다. 류치장이라니!

《내가 무슨 도적놈이라고 류치장에 갇혀야 한단 말이요! 나라! 나라!》

서로 밀고 당기는 소동이 벌어지는통에 창문우리가 하나 깨졌다.

가까스로 표성규를 류치장안에 밀어넣은 경찰놈들은 그에게 외국인등록증을 휴대하지 않은 《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및 《기물파손죄》까지 들썩였다.

표성규는 분노에 치를 떨었다. 눈에서 불이 일고 이가 뿌드득 갈렸다. 이렇게까지 분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였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아니다. 싸워야 한다.

그는 결연히 단식으로 넘어갔다.

이튿날 아침에는 류치장출입문의 쇠살창에 혁띠를 감아 그 한끝을 두손으로 꼭 잡고 경찰들이 열지 못하게 하였다. 《죄》를 인정하는 문서에 지장을 찍으라고 강요하기때문이었다.

예상치 않던 완강한 저항에 부딪친 경찰놈들은 당황한것 같았다. 실지 주의나 한마디 주고 놓아주어도 될 《죄》인것이다.

그리고 표성규는 그들의 기본탄압대상인 총련일군도 아니었다. 그런데 이틀째 밥을 먹지 않고 무죄석방시키라고 항탕 맞서니 골머리를 앓았다.

시간을 끌다가는 인권유린이라면서 되려 자기네가 얻어맞을수 있는데다가 기자들이나 총련조직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날엔 문제가 더 복잡해질수 있었다.

놈들은 하는수없이 으름장만 놓고 석방시켰다.

류치장에서 놓여나온 다음에 알고보니 누마따는 미국으로 떠나갔다는것이였다. 그가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배운것은 군수산업계제로 진출하기 위해서였다고 다른 동창생이 대주었다.

누마따가 철저한 극우익극수주의가문이라는것도 표성규는 뒤늦게야 알게 되였다.

누마따의 할아버지는 지난날 악명높은 《간도파견대》의 중위로서 반일력량에 대한 초토화작전에 미쳐날뛰다가 한쪽눈을 잃은것으로 하여 조선사람을 극도로 미워하고있다는것이다.

그런 놈의 집안에서 나서자란 누마따가 어떤 교양을 받았겠는가. 그래서 표성규가 조선청년이라는것을 알게 되자마자 그런 교악한 장난질을 해

놓고 미국으로 달아난것이 분명하였다.

표성규는 자신의 생활을 심각히 돌이켜보았다.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먹고 살아가는데만 바빴던 나머지 자기가 조선사람이라는데 대해서는 얼마생각이 미치지 않았던것이다. 내내 일본교육만 받아온것도 그렇게 된 원인의 하나였다.

그는 그 이후 식당의 잡부놀음을 하면서 조선의 력사와 지리 그리고 우리 말을 독학으로 배워나갔으며 총련일군들과도 접촉하였다.

특히 총련일군이 보여준 우리 나라의 기록영화와 예술영화들은 그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 과정에 조국으로 귀국하여 앞길을 개척하리라 마음먹게 된것이다.

《그런데...》

이야기를 끝낸 표성규는 은하와 경식을 번갈아 보면서 말을 이었다.

《조국에 온 다음에도 내 성격상의 약점때문에 인차 사람들과 속을 터놓지 못하고 섭쓸리지 못해서...》

그는 부끄러운듯 고개를 숙였다.

《표기사동무, 고마워요. 이제는 우리를 믿어준단 말이지요?》

그러면서 은하는 표성규의 손을 뜨겁게 잡았다.

《다시는 건위산을 파일음료가루라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구. 나까지 표동무를 〈리기주의자〉라고 오해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았소.》

류경식이 웃으며 표성규의 잔등을 두드렸다.

《아 아니, 그 이야기는 하지 말자구.》

당황해하는 표성규를 보고 모두 유쾌히 웃었다.

드디어 표성규의 기술혁신안이 성공하여 생산에도 도입되는 날이 왔다.

공장에서는 표성규와 그의 기술혁신안을 성공시켜주기 위하여 도움을 준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진을 찍어주었다.

때마침 예방주사를 놓아주려고 공장에 온 은하와 군인민병원 내과과장 변강준도 기술혁신성공에 기여한 공로자라는 인정을 받고 특별손님으로서 함께 사진을 찍었다. 김영진아바이도 한결에 서있었다. 모두 밝게 웃고있는 얼굴로...

결혼식초청장을 받고 기차를 타고온 김영진이 역나들문을 벗어나자마자 《아바이!》 하고 미소를 머금으며 다가온 풍채좋은 사나이가 있었다. 헤여진지 20년이 넘었지만 그가 표성규라는것을 김영진은 대뜸 알아보았다.

순간 은하가 30년전에 그려준 소묘 《밝은 앞날의 모습》이 생각났다.

그 소묘는 신통히도 표성규의 앞날을 정확히 내다본것이다.

《아저씨!》 하고 표성규의 곁에 서서 안기는

이 가 을 날 에

전 성 호

누렇게 익은 이삭들이
너희들을 향해 고개를 숙인다
바람결에 실려오는 난알향기에
숨조차 가쁜 아, 가을날의 이 환희
무르익은 벌이
통채로 너희들 품에 안기려드는구나

영희야 꽃순아 그리고 탄실이 너도
그저 웃고 울지만 말고
무슨 이야기 좀 하려무나
봄내 여름내
로동복을 빨아입던 내가의 시내물이
메밀꽃 하이얀 등판이
온 고향산천이 너희들을 지켜보지 않느냐

단발머리 애송이였던 너희들이
가벼운 호미자루 골라잡던 너희들이
바친 땀으로 사랑으로 랑심으로
안아온 이 가을날
이제는 말을 해도 될게다
저 열매를 무르익힌 주인의 자격으로

생각나느냐
두엄 실은 달구지 고삐를 잡고도
소에 끌리워가던 모래재의 수렁길이
파종한 이랑들을 날짐승들이 들추던 날
모닥불을 피우며
노래와 함께 지새던 재등의 밤이

잊혀지지 않을게다
장마비에 떠내려간 이랑을 두고
랑심의 한귀가 상한듯이
아프게 자신들을 질책하며
쌓고 덧쌓던 그 흙가마니들을

땅보다 먼저 실농군의 났을 가꾸며

김보다 먼저
마음의 이랑이랑마다에
씨앗처럼 묻힌 랑심을 맨 너희들이였기에
이 땅을
이처럼 조국앞에 성실한 땅으로 내세우지 않았더냐

봐라
봄내 여름내
이 땅을 쓰다듬고 매만지며
이제는 농민다운 너희들의 손이
별에 타고 들바람 맞아
곡식보다 먼저 익은 너희들의 얼굴이
가꾸고 내세운 벌이다

저 푸른 잎사귀들에
맺히는 맑은 이슬방울은
너희들의 수고를 알아
이 땅에 뿌리내린 곡식들이
이삭을 익히고 영글리며 흘리는 땀이 아니냐

공민의 첫 나이를 이 땅에 새겨
실농군의 자세를 손에 마음에 익힌
너희들에게
너희들에게 고향은 이미
이 땅의 주인될 권리를 주었거니
성실한 주인 너희들을 믿어
넌년이 젊어지고 풍요해질 이 땅이다

150일전투에서 100일전투로 이어가며
바친 청춘의 첫 자옥을
궁지높이 돌아보는 이 가을날
난알향기 가득찬 이 벌에 서서
실농군으로 자란 너희들과 운명을 같이할
젊고 굳세고 성실한 이 땅
강성대국으로 불리워질 이 땅의 래일을 본다

~~~~~  
녀인은 표성규의 안해 리은하였다.

그들과 인사를 나누는 김영진의 뇌리를 소모  
《맑은 앞날의 모습》과 표성규가 어릴적에 부모  
와 함께 찍었다는 사진 그리고 표성규의 첫 기술  
혁신안이 성공하였을 때 기념으로 찍은 사진들이  
스쳐지나갔다.

김영진의 눈에는 조국의 품속에서 보다 더 맑을  
표성규와 그 가족들의 앞날이 보이는것만 같았다.  
만일 표성규가 조국의 품에 안기지 않았더라면 오

늘과 같은 날이 있었겠는가. 낳아준 친부모도 그  
의 앞날을 지켜주지 못했지만 조국은 먼 이국땅에  
홀로 내동댕이친 막돌같이 버림받은 인생을 살아  
가던 그를 따뜻이 품어주고 맑은 웃음을 안겨주고  
오늘과 같이 키워주었던것이다. 조국이 있었기  
에 그의 맑은 오늘이 있고 더 맑은 래일이 있는  
것이다.

그들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즐겁게 나누며 표성  
규의 집으로 향했다.

# 할아버지 심은 나무 어디 있나요

김 춘 호

1

어느 사이 여름 가고 가을이 왔는가  
жат나무 푸른 숲엔 무르익은 잣송이들

그 열매를 따며 사람들 기뻐하니  
바라보는 이 마음도 절로 흐뭇한데

들러오네 키높은 잣나무아래에서  
한 로인과 손녀애가 주고받는 이야기

— 이 나무들 수십년전 심은거란다  
추억깊은 로인에게 손녀가 묻는 말

— 할아버지 심은 나무 어디 있나요?...  
할아버지 심은 나무 여기 없나요?...

2

귀여운 손녀애의 그 물음앞에  
어이하여 로인은 웃기만 하는가

나도 안다 저 로인을  
한생토록 산판에서 나무모를 키웠다는...

비오나 눈이 오나 허리 펼 날없이  
나무모를 키우며 긴긴 수십년

키워보낸 나무모들 잘 자라는지  
온산을 돌고돌며 보살폈다지

그렇게 정성 고인 그 나무들이  
무성한 숲이 되어 산을 덮지 않았던가

하지만 로인은 웃기만 하네  
마치 그 웃음이 대답인듯이

3

부럽구나 로인이여 그 웃음이  
후대의 물음앞에 후회없는 그 웃음이

어이 알랴 언제이든 때가 와  
후대의 그런 물음앞에 나도 서게 될지

그때의 내 모습이 어떠할가  
저 로인처럼 웃음으로 대답할수 있을가

생각도 깊은 이 가슴 파고들며  
경구처럼 새겨지는 메아리 메아리어

— 할아버지 심은 나무 어디 있나요?...  
할아버지 심은 나무 여기 없나요?...

상 식

## 산 림 자 원

1정보의 넓은잎나무림은 하루에 1 000kg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730kg의 산소를 내보내며 1 800m<sup>3</sup>의 공기를 맑게 한다.

1정보의 산림은 같은 면적의 맨땅보다 300 m<sup>3</sup>의 물을 더 받아들이며 토지류실과 큰물, 가뭄피해를 막는다. 바람막이숲은 바람속도를

40~50% 감소시킴으로써 1정보당 알곡수확고를 수십kg 더 높인다.

이밖에도 산림은 기후를 조절하고 풍치를 아름답게 하며 소음을 약화시키는 등 여러가지 리로운 작용을 한다.

# 영 각 소 리

고 남 철

뚜벅 — 뚜벅 —  
바위같은 발통에 포석이 진동하고  
음매 — 음매 —  
웅글진 영각소리 대동강물결우에 구울고

온 나라 근로자들 힘겨루는  
대황소상민족씨름경기에서 1등한  
평북의 젊은이 상으로 탄  
황소를 앞세우고 들어서는  
평양의 네거리

어이 지나라 네거리 한복판을  
소고삐를 켜 젊은이 주춤거리는데  
교통보안원처녀는 가리키누나  
네거리의 차들을 멈춰세우고  
황소가 갈 길부터 열어주누나

들에 울려야 할 영각소리 희한해  
차문들이 즈르르 열리누나  
전차의 차창엔 별빛같은 눈들이 웃음짓누나  
소년궁전에서 내려오던 아이들은  
짜락짜락 손벽치며 뽀를 뛰는데  
네거리의 황소행차 촬영기에 담아  
기자들은 화보에 크게 낸다누나

뻗쳐오른 우걱뽀에

넘치는 기상이 힘차구나  
끓직한 목에 수레를 메우면  
산같은 거름짐 난알짐 싣고  
둥싯둥싯 걸음새도 멋들어질 등글황소  
보기에도 푸짐한 등글황소

조국을 땀친 마라손녀왕이 온 길  
장군님께 기쁨드린 처녀축구선수들이 온 길로  
대황소가 들어서는 저 모습  
눈썹이 화끈 다는 풍경이구나  
가슴이 켜 열리는 우리 생활이구나  
온 평양에 민족의 향취를 풍겨주누나

어서 가시라 장한 젊은이여  
우승의 고삐 생활의 고삐 억세게 잡은 그 손으로  
일감을 제껴도 언제나 통배지기 뜨시라  
어서 빨리 가시라  
오늘 새벽에도 이 길로  
우리 장군님 그대들 일터에 가셨는지 어이 알라

총대가 지키고 총대가 받든 우리 생활  
더더욱 억세여지는 조선의 숨결을 뽀어치며  
품만하게 꽃피나는 민족생활을 노래하며  
평양의 푸른 하늘 가득차 울리는 영각소리  
음매 — 음매에 —

## 상 식

### 소금의 리용과 가공

염화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하는 염을 흔히 소금이라고 한다.

소금은 식용으로 중요하게 쓰이며 화학공업과 식료가공업 등 인민경제 여러 분야의 중요한 원료로 된다. 소금은 화학공업에서 가성소다, 탄산소다, 염산, 염소를 비롯하여 농약, 합성수지 등 여러가지 화학제품생산에 쓰이며 랭매로도 쓰인다. 식료가공업에서는 된장, 간장을 비롯하여 각종 식료품을 만들거나 가공하는데 쓰이며 수산부문에서는 물고기질을 절이는데 쓰인다. 이밖에도 보건부문에서는 링게르주사액, 생리적식염수 등을 만드는데 쓰이며 돌소금에서 떼여낸 큰 결정체는 적외선용광학기구에 쓰이는 렌즈와 프리즘을 만드는데도 쓰인다.

이와같이 소금은 인민생활에 필요할뿐만 아니라 화학공업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중요한 원료로 된다. 소금은 자연계에 돌소금형태로도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바다물로부터 소금을 얻는다. 바다물로부터 얻는 소금은 제조방법, 용도, 모양 등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눌수 있다. 제조방법에 따라 별소금, 정제소금으로 나눈다. 별소금은 바다물을 소금발에 넣고 줄여서 만든 소금이다. 별소금에는 혼합물이 많다. 그러므로 그 품위에 따라 등급을 정한다. 정제소금은 별소금을 다시 가공하여 그속에 들어있는 불순물을 없애고 염화나트륨의 순도를 높인것이다. 여기에는 씻은 소금과 짓갈소금, 깨끗한 소금 등이 있다. 용도에 따라 먹는 소금, 공업용 소금, 농업용소금, 약소금 등으로 나눈다.

## 《소경과 앓은뱅이의 문답》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찌기 우리 나라에는 1910년대와 1920년대의 문학예술작품이 얼마 없다고 하시면서 그 당시의 작품을 적극 찾아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일제의 간악한 식민지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말미암아 인멸되었거나 파묻혀있는 근대문학작품을 더 많이 찾아내어 작가와 작품을 정확히 평가하는것은 근대문학사를 정리체제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소경과 앓은뱅이의 문답》은 최근에 발굴된 단편소설이다. 소설은 20세기초 망국의 비운이 드리웠던 시기의 현실을 반영한 이채로운 작품이다. 소설은 작가의 이름이 없이 1905년 11월 17일부터 12월 13일까지 어느 한 출판물의 문예란에 편재되어있는데 소경과 앓은뱅이의 문답을 통하여 일제와 매국역적들에 의하여 날조된 《을사5조약》과 그로부터 초래되는 엄중한 후파에 대하여 폭로단죄하고있다.

소설은 어느날 소경과 앓은뱅이가 망건가게에서 만나 앓은뱅이가 소경에게 요즘은 어떻게 살아가는가고 묻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소경이 지금은 돈벌이가 잘되지 않아 살아가기가 어렵다고 하자 앓은뱅이도 망건이 팔리지 않아 굶어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개탄한다. 소설은 그들의 이야기에 따라 그 원인을 일제의 강요책동으로 나라에 돈이 류통되지 못하고 지방관리들의 착취와 탐욕행위가 극심한데 있다는것을 밝히고 일제와 결탁하여 나라를 망하게 한 매국역적들을 규탄하는데로 나아가며 마지막에 력사가 《오랜 나라 어이하여 망했느냐/5백년 높은 종사 뉘라서 바라볼가》라는 장탄수심가의 노래로 끝을 맺고있다.

소설은 육체적불구자들인 소경과 앓은뱅이를 등장시키고 이들의 생활을 통하여 당시 우리 인민들이 당하는 망국노의 비참한 생활을 일반화하면서도 형상의 주되는 초점을 치욕적인 《을사5조약》을 날조한 일제침략자들과 그 주구 매국역적들의 죄행을 폭로하는데로 돌리고있다.

소설에서는 소경이 《이번에 〈을사5조약〉이 성립되어 일본이 우리 나라에 〈통감부〉를 설치한다는데 그 신조약은 무엇이며 〈통감부〉는 무엇 하는것인가.》고 묻자 앓은뱅이가 《신조약은 우리 나라 외교권을 걷어다가 일본 동경으로 이설한다 함이요, 그 〈통감부〉라는것은 〈통감〉이 있을 처소요. 〈통감〉은 외교권이나 범백사를 모두 감찰하는 관원의 벼슬이름》이라고 알려준

다. 이 말을 들은 소경이 외교권이 일본으로 가면 각국 공사들도 다 본국으로 가겠는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독립국이 아닌가고 오해를 하자 앓은뱅이가 그 리치를 알기 쉽게 말해준다. 가령 김씨의 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김씨가 손님들을 대접하지 못하고 이웃집 최씨에게 부탁하면 집과 음식은 김씨의것이나 손님들에게 대접을 잘하고 못하는건 최씨의 마음에 달렸다고 하면서 《그와 같이 우리나라 정부에서 외교권리를 일본에 주고보면 렬강제국에서는 모든 국제상 일에 대하여 대소를 불구하고 그 외교권리를 잡은 일본과 교섭할것이고 권리없는 우리 정부와 의논할 일이 없으니 다른 나라와 대등국이 못되고 남의 나라 속국이나 다름없다.》고 《을사5조약》의 반동적대막을 까밝힌다.

소설은 계속하여 매국조약으로 하여 빚어진 참담한 현실을 폭로하면서 그 장본인이 바로 매국역적들과 일제놈들이라고 단죄하고있다.

《자주권리 반점없이 왜놈들에게 의뢰하여 전국리의 주어가며 황실위권 빼앗아 외국으로 돌려보내어 강토는 점점 줄어가고 황권은 날로 미약하니 만민은 도탄이요, 국세의 위급함이 조석에 달렸도다. 그 까닭 설명하면 지금 각부대신이 매국하는 수단으로 만든것이라 무죄한 전국인민 속절없이 남의 노예될터이니, 그 죄를 의논하면 나라에는 역신이요, 외국에는 충신이라 죽기를 면할손가.》

소설은 부귀와 영달을 위해 왜놈들과 한배속이 되어 나라를 팔아먹고 백성을 도탄속에 몰아넣은 매국역적들이야말로 가장 추악한 무리라고 단죄하고있다.

한편 소설은 일제의 하수인—매국역적들의 더러운 정체를 까밝히면서도 우리 나라를 침략하여 갖은 행패를 다하는 일제놈들의 죄행에 대해서도 폭로하고있는바 일제는 《철도지이니, 군용지이니 하며 소중한 나라강토 위협으로 빼앗고 남의 나라 일에 충고니 권면이니 하며 내외정치를 간섭》하는 침략의 무리들이며 우리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샅전이 적다고 하면 눈을 부릅뜨고 뺨을 치》는 강도의 무리라고 규탄하고있다.

소설은 대목대목에 성구속담들을 적절히 리용하고 구수한 입말체와 형상적비유들을 옹골게 구사하여 작품의 형상성과 통속성을 보장하고있다.

소설은 사말사적인 불필요한 세부가 많고 구성이 단조로우며 묘사와 형상이 부족한 결함이 있으나 20세기초 사회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함으로써 근대소설문학의 발전면모를 리해하는데 귀중한 유산으로 된다.

리 규 찬



## 박지원의 《열하일기》에서 수필형식의 리용

18세기 후반기에 활동한 실학파문인 박지원(1737-1805)은 생애에 많은 작품들을 남기었는데 그가운데서 장편여행기 《열하일기》는 실학의 리념을 뚜렷이 구현한것으로 하여 가장 대표적인 성과작으로 손꼽힌다.

그가 1780년에 청나라를 여행하고 돌아와 창작한 《열하일기》는 리조봉건국가의 후진성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사회적진보와 문명발전에 대한 근대적지향을 생동한 필치로 반영하고있다.

《열하일기》에서 특징적인것은 청나라여행과정의 체험을 많은 경우 수필형식으로 서술한것이다. 물론 작품에는 소설, 시, 시화, 론설 등 다양한 형태의 글들도 적지 않게 실려있지만 주되는 비중을 차지하는것은 어디까지나 필자의 느낌을 자유롭게 토로하는 수필이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필을 아담하게 잘 쓰면 소설이나 시보다 오히려 사람들을 더 울릴수 있다.》

박지원은 《열하일기》에서 매일 지나치는 대상과 지역, 숙소며 인물 등 기본여행로정에 발을 붙이고 구체적인 생활환경에서 받는 정서적충동을 진지하게 추구하면서 의의있는 인간문제와 사회적문제를 도출하고 해명하였다.

《황도기략》편에 실린 《황금대기》가 그 전형적인 실례이다.

황금대는 옛날 어느 왕이 인재를 구하기 위해 집을 지어놓고 거기에 몇만냥어치의 금덩이를 놓아두던 곳이었다. 그런데 인재는 고사하고 황금마저 어떤자의 손에 들어가버렸다고 한다.

필자는 이 력사유적에 새겨진 곡절을 되새겨보는 생활적계기로부터 출발하여 일신의 치부를 위해 온갖 패륜패덕행위를 저질러온 봉건통치배들을 타매하고 인간의 건전한 의식을 마비시키는 물욕을 근절하는 동시에 참된 의리를 중히 여길것을 강력히 호소하였다.

《슬프다! 이 금은 반드시 길옆에서 굴다가 또 다른 사람이 주어가지게 될것ियो. 그 사람은 가만히 하늘에 절을 하면서도 이 금이 무덤속에서 파냈거나 독약을 먹은자들의 유물이며 또 앞뒤사람을 거쳐 몇천몇백명을 죽였다는것을 모를것이다. ...원컨대 천하인사들은 돈이 생겼다고 꼭 기뻐할것만도 아니요 없다고 슬퍼할것도 아니니 갑자기 돈이 눈앞에 닥칠 때는 천둥이나 귀신처럼 무서워하고 풀밭에서 뱀을 만난듯이 머리칼이 쭈

뒤틀리며 뒤로 물러서야 할것이다.》

흔히 수필은 《산문으로 씌여진 서정시》로 불리운다. 그것은 수필이 현실생활을 일정한 이야기 줄거리를 가지고 반영하지 않고 필자의 사상감정을 위주로 서술하는 특성과 관련된다. 따라서 무엇을 묘사하였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느꼈는가가 기본인 수필의 형상적질에 대한 평가는 주정토로를 놓고 진행된다.

레문의 주정토로에는 황금에 대한 깊은 철학적 사색과 인간생활문제에 대한 탐구가 비껴있다. 다시말하여 정서적색갈이 뚜렷한 형용어와 수사학적질문은 필자 자신의 개인적느낌을 벗어나 불의가 판을 치는 당대의 심각한 모순해명으로 지향되고있다. 결국 이 정론적인 주정토로는 하나의 대상현상에서 사회정치적으로 의의있는 문제를 천명함으로써 작품의 수필적특성을 부각시키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있다.

정론성, 철학적, 호소성이 결합되어 하나의 완결된 특징을 갖춘 정론적인 주정토로의 실례는 《수레 만드는 법식》, 《말방목에 대한 글》, 《세가지 의리에 대한 글》(《일신수필》), 《다섯가지 망녕에 대한 글》(《심세편》), 《코끼리이야기》(《산장잡기》) 등에서도 특징적으로 찾아볼수 있다. 이 글들에서는 진지하면서도 열정적인 주정토로를 통하여 당대의 사회적악폐와 부정적현상, 나라의 후진성을 절감하며 느끼는 증오, 의협심, 분노 등의 감정을 절절하게 표현하고있다.

《열하일기》에 실린 박지원의 수필들에서는 인간의 내면세계를 구체적이고 섬세한 감정의 흐름에 실어서 서정적인 주정토로로 떠나가는 특성도 보여주었다.

사건이 아니라 감정과 느낌을 위주로 하는 수필은 정론성과 함께 서정성을 형상적요구로 내세운다. 아무리 뜻깊은 사상이라도 풍부한 서정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우러나오지 못하고 조잡한 주장만 내세운다면 사람들을 공감시킬수 없다.

수필의 서정성은 역시 주정토로에서 나타나는바 서정적인 주정토로는 추상적이거나 선언적이거나 아니라 구체적대상과 생활세부의 선택, 그에 굴절되는 강렬한 느낌의 연속들로 이루어진다.

박지원의 수필들은 정론적인 주정토로와 함께 서정적인 주정토로들도 특징적으로 많이 리용하고있다.

《북방여행기》편에 들어있는 필자와 마부 장복

# 저 고 리

## 안 명 애

내 어린시절  
할머니의 무릎에 앉아  
옛말처럼 듣던 그 이야기

내 또한 오늘  
손녀애 무릎에 앉히고 하는 이야기  
눈물속에 새겨주는 그 이야기

지주집 종살이  
노예의 그 낮과 밤에  
땀에 젖고 설움에 젖던  
단벌저고리

그 어린 몸 가리워준  
단벌저고리건만  
갈아입을 옷이 없어  
깎고 또 기운 저고리건만

비에 젖고  
눈에 얼고  
땀배이고 눈물배여  
가죽처럼 변한 저고리

그보다도

때없이 가해지는 매질에  
피자옥이 숨배고  
그보다도 부자집 애새끼들  
소가죽저고리라 놀려대던  
그 설움에 젖던 저고리

나라가 없어  
안아줄 그 품이 없어  
피눈물에 얼룩지고  
분함에 이겨져  
소가죽처럼 된 저고리

조국의 귀중함을  
세월을 넘어 새겨주는 그 이야기  
계급적원썹에 대한 증오를  
심장속에 심어주는 그 이야기

이것은 옛말이 아니다  
오늘의 행복에 젖어  
순간이라도 잊는다면  
내 귀여운 손녀애가 또 입어야 할  
그런 치욕의 세월이 되풀이된다는것을  
누구나의 가슴에 새겨주는  
저고리이야기

~~~~~

의 리별을 반영한 글은 그러한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는 낯설은 이국에서 서로가 헤어져야 하는 시각의 극적체험이 필자의 착잡한 내면심리와 결부된 주정토로로 개방되고 있다.

《리별중에도 생리별처럼 괴로운것이 없구나. 그까짓 죽고사는 리별쯤이야 괴롭다고 말할것도 못될것이다. ...오늘 장복으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사이 친분도 아니요, 임금과 신하사이 의리도 아니요, 남편과 안해사이 교분도 아니요, 지사와 벗사이도 아닌데 그와의 생리별이 이토록 괴로운것은 강을 리별장소로 삼은탓이라고도 할수 없을것이다. 이국타향이니 어디라 리별장소 아닌 곳이 있으랴. 슬프다.》

보다실이 글에서는 인간생활에서 겪곤 하는 리별의 정서를 다양한 각도에서 파고들면서 그 의미를 색깔있게 부각시키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량반문인으로서 필자가 최하층신분인 장복과의 리별을 순수 신분관계가 아니라 인간적측면에서 진정으로 애달파하고있는 점이다. 이것은 그대로 진보적인 실학자로서 박지원이 제기하였던 최

하층민들의 인격존중사상의 표현이기도 하다. 하지만 글에서 이러한 지향은 직선적으로 피력된 것이 아니라 생활적인 세부에 토대한 주정토로로 통하여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다시말하여 질은 서정을 불러일으킬수 있는 대상과 계기들이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선택되고 그에 따라 느낌도 서정적으로 깊어졌다. 이러한 주정토로는 글의 감칠맛을 돋우고 정서적감화력을 보장함으로써 독자들을 저도 모르게 필자의 느낌 세계에 끌어들이는 형상적효과를 달성하게 한다.

이처럼 박지원의 《열하일기》에서는 구체적인 생활계기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체험세계를 정서적으로 심화시키면서 강한 정론성과 질은 서정성이 배합된 주정토로로써 시대와의 적극적인 호흡, 사회정치적문제의 민감한 포착과 반영, 그 철학적해명을 실현하고 있다. 그리하여 생활반영의 진실성을 한층 돋우고 전반적인 사상예술적품위를 높이는데서 매우 세련된 기교를 보여주었던 것이다.

황 은 정

주체98(2009)년의 《조선문학》—한해의 마감장을 덮으며

격변하는 세월을 산 보람찬 해, 긍지높은 해 주체98(2009)년이 자기의 마감달을 보내고있습니다.

내리는 눈송이처럼 차곡차곡 우리의 마음속에 하많은 이야기를 새겨주고 덧쌓아주며 올해의 《조선문학》은 작가들과 무엇을 말하려고 할가 하는 생각으로 《조선문학》잡지들을 번져보느라니 오래전에 본적이 있는 시 한구절이 문득 떠오릅니다.

사랑하는 후세의 벗들이여
먼 후날
우리를 위해 따로
기념비를 세우지 말라

이 시구절이 우리 작가들에게도 적중한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웁습니다. 우리 작가들에게는 기념비라는것이 따로 없습니다. 투쟁과 창조로 보람찬 생활의 한복판에서 그 생활을 노래하는것 그자체가 우리 작가들을 위한 최대의 기념비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올해 《조선문학》의 지면에 실린 우리 작가들의 작품들은 어떤 세월을 살았는가고 묻고 싶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작가들은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참된 주체형의 혁명적문예전사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사상예술성이 높은 다양한 주제, 다양한 종류의 성과작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올해 주체98(2009)년은 류다른 해, 조국청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질 뜻깊은 해였습니다. 우리 당력사에서는 올해를 변이 나는 해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얼마나 많고 크고 거창한 변이 우리 조국땅에 일어나 올해를 장식하였습니까.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지펴주시고 조국땅 방방곡곡에 위대한 투쟁과 창조, 기적과 혁신의 격변하는 현실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 작가들도 선군문학의 한페지를 당당히 장식하였습니다.

《조선문학》잡지를 펼쳐보면 제일 뚜렷이 안겨

오는것이 우리 작가들의 영원한 형상과제인 수령형상주제작품들입니다.

단편소설 《새벽산책》(김준학), 《통일아리랑》(리령철), 《봄향기》(박혜란)와 같은 수령형상주제작품들은 우리 인민이 세월이 흘러도 잊지 못하고 영원히 따르는 어버이수령님과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이 나라에 강성대국의 선경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을 훌륭히 형상하여 우리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확고한 수령관을 심어주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올해 소설문단의 특기할 성과라고 말할수 있는 것은 30~40대의 젊은 작가들이 자기의 뚜렷한 얼굴을 보여주고있는것입니다. 자기의 뚜렷한 얼굴이란 소설작품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숨결을 체현한 전형적이며 개성적인 성격창조, 새롭고 독특한 구성수법, 특이한 자기나름의 문체 등을 들수 있을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올해에 단편소설 《가시오갈피》(김홍철), 《세월은 흘러도》(백명길), 《내 고향은 아름답다》(김홍균), 《나래를 퍼덕이라》(김경일)와 같은 작품들을 문단에서 론의할만 한 가치가 있는 작품들이라고 보는것입니다.

올해에 과학환상소설과 실화문학창작에서도 전진이 있었습니다. 《퇴성이 울린 후》(리금철), 《평범한 날에》(엄호삼), 실화문학 《열매는 어떻게 무르익는가》(김철순)와 같은 작품들은 작가적탐구와 고심이 엿보이는 작품들입니다.

올해에 우리 당의 문학의 대중화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서 새 세대 대학생들이 자기의 작품들을 소박하게 문단에 내놓은것도 성과라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단편소설 《나의 불빛》(전은심), 《나락이 익을무렵》(리룡운), 《다시 찾은 사랑》(윤상근), 《첫 생활비》(오광천)와 같은 작품들이 부족점은 있으나 앞날이 기대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그 가치를 높이 사주고 싶습니다.

이처럼 소설문단의 만발한 화원속에 아름답고 호합진 꽃송이들이 오래도록 자기의 향기를 풍기는 반면에 피어났다가 아름다움도 향기도 없이 일찍 스러지고만 꽃송이들도 있다는것을 우리는 꼭 말하고 싶습니다.

작고 평범한 꽃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독특한 미

와 얼굴, 향기를 가지고있는 꽃을 피워주기를, 악동하는 우리 선군시대의 현실을 자기의 독특한 호흡으로 받아들이고 힘있게 내뿜을줄 아는, 한마디로 자기의 얼굴이 있는 작품을 창작해주기를 맡입니다.

올해에 우리 시문단에서 거둔 성과를 말하려고 보니 언젠가 취재길에서 눈에 익혔던 어느 연합기업소 속보판이 떠오릅니다.

그 속보판에는 올해에 발표된 시초 《희천땅의 메아리》중에서 시 《2012년을 향하여 앞으로!》의 한구절이 내용을 대신하여 써여있었습니다.

2012년은 우리의것
강성대국은 분명 우리의것
결전의 길에 높이 날리는 최고사령관기는
우리를 승리에로 인도한다
이 나라 천만군민이여
2012년을 향하여 총돌격 앞으로!

정말 기뻐합니다. 시인들의 삶이란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생각에 행복과 보람, 긍지감으로 가슴이 그들먹해졌습니다. 우리는 취재길에서 종종 이렇게 속보의 내용을 대신하여 멋들어지게 휘갈긴 시구절들을 보곤 하며 건설자들의 피끓는 목소리로 울리는 시토막들을 들곤 합니다.

이 땅의 천만군민을 경애하는 장군님 진두에서 이끄시는 강성대국건설대전으로 힘있게 선동하는 훌륭한 시작품들이 올해에도 《조선문학》의 지면을 꽉 채웠습니다.

시 《불세출의 탄생》(차승수), 《6월 19일》(김춘길), 《9분 2초》(리광선), 《어머님 추억》(럼형미), 《상봉》(박세일), 《우리의 별이 빛난다》(문용철), 《당원증》(박철), 단시초 《미루벌의 새 물길》(박웅전)...

이 시작품들속에는 천만년 세월이 흘러가도 우리 인민이 영원히 못 잊고 높이 모시는 어버이수령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존귀하신 영상이 있으며 이 나라의 새벽문을 여시고 저녁문을 닫으시며 방방곡곡에 성스러운 자욱을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모습에 있으며 장군님과 혼연일체가 되어 그이의 선군령도를 받들어 일떠선 이 땅의 남녀로소 천만군민이 있습니다.

시작품들 하나하나가 마치 우리 시인들이 걸어온 발자국 같습니다.

그 발자국들이 찍어간 길우에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원산청년발전소, 희천발전소건설장, 미루벌물길,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를 비롯한 4대선행부문 기업소들의 약동하는 기상을 반영한 현지특집작품들도 있었습니다.

성과를 언급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시인들에게 고루하고 구태의연하고 선언적인 시가 아니라 열이 있고 정이 숨배여있으며 피가 툭툭 뛰는 시작품들로 《조선문학》의 지면을 채워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조선문학》잡지가 걸어온 한해를 돌이켜볼 때 언제나 예리한 필봉을 들고 작가들에게 지혜를 보태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평론가들을 잊지 않고있습니다.

올해에도 평론분야에서는 평론 《믿음과 사랑의 철학에 대한 숭고한 예술적화폭》(김용부), 《선군시대 사회미학적리상과 진달래의 서정》(최길상), 《언어형상과 작가의 얼굴》(한미영), 《공화국의 첫 녀성영웅이 발휘한 불굴의 정신력을 감명깊게 보여준 예술적형상》(조선화), 《문학에서 민족성을 살려 주체성을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김선일)와 같이 선군문학운동에 생기와 활력을 부여주고 작가들의 왕성한 창작의욕을 불러일으켜주는 평론들로 우리 《조선문학》잡지를 품위있게 장식하였습니다.

새해 주체99(2010)년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어주신 총적목표 2012년을 향하여 날으는 우리 조국 력사에 또 하나의 위대한 자욱을 뚜렷이 남기게 될것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를 마음속깊이 새기고 그이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우리 작가들의 영예로운 사명은 변함이 없습니다.

당시 요구하는 여러가지 주제의 작품창작에서 생신하고 전투성이 있는 작품들, 시대의 숨결이 배여있고 시대의 성격이 체현된 전형적인 인간의 형상을 창조해내기 위해 변함없이 온넉과 지혜, 정열을 쏟아부어야 할것입니다.

하나를 만들어도 자기의 얼굴이 있고 뉘이 있고 피가 뛰는 작품을 만들어내자, 이것이 편집부에서 작가들에게 하는 호소입니다.

마감으로 편집부는 올해 《조선문학》을 선군문학운동사에 또 한페지 기록될 문학작품들로 알차게 묶어주는데 기여한 많은 작가동지들에게 사의를 표합니다.

하많은 이야기, 사변들을 품어안고 올해가 저물어갑니다.

지평선 저 멀리 희망찬 새해의 등근해가 떠오릅니다.

작가들이여!

조국을 위한 먼길에 심장이 일찍 식지 않도록 마음의 신들메를 든든히 조입니다. 그리고 어떤 세월을, 어떤 년대들을 줄달음쳐살았는가 심장에 물으며 선군의 붓대높이 추켜들고 경애하는 장군님 따라서 우리의 행군길을 줄기차게 걸어나갑시다.

《종이와 펜을 달라!》

음악가는 죽으면서도 손가락을 놀린다고 했는데 도이쉴란드의 혁명적민주주의시인 하이네는 숨을 거두는 마지막순간에 몸이 어떤가고 묻는 담당의사의 질문에 《종이와 펜을 달라!》고 한 정열적인 시인이었다.

하이네는 꿈많은 소년시절에 벌써 시, 구전문학, 전설, 고전민요 등을 정통하고 있었다. 1816년에 상업학교를 졸업한 하이네는 은행가인 삼촌한테 가서 은행일을 얼마간 하였으나 돈밖에 모르는 저속한 생활에 환멸을 느끼고 그 일을 당장 그만두고 시를 창작하기 시작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가 시창작을 시작하게 된 리유의 하나가 너무 가난한 탓으로 애인한테서 배반을 당하고 버림을 받아 정신적으로 커다란 번민과 고통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던 사정과 관련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가 모순에 찬 당대 사회에 대해 커다란 울분과 분노를 품고 있었기때문이었다.

1830년 7월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 하이네는 파리에서 직접 노동계급의 혁명적진출을 목격하고 특히 1840년부터 맑스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그때부터 그의 세계관과 창작활동에서는 극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하이네는 《실례지아방직공》(1844)에서 방직공들이 일으킨 폭동을 열렬히 지지하였고 도이

쉴란드문학사에서 처음으로 자본주의사회의 모순과 불합리성을 신랄히 비판했으며 서정서사시 《도이쉴란드 겨울이야기》에서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동경과 지향을 뚜렷이 반영하였다.

하이네의 시들에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리해상 착오로부터 오는 일련의 부족점이 있기는 하지만 강한 정열과 호소성, 전투성, 서정적인 부드러움, 랑랑히 울려오는 음악성, 풍자의 예리성, 진실하고 소박한 심정으로 등으로 하여 독자들의 다함없는 매력을 끌었다.

하이네는 말년에 시력이 몹시 약해져서 책을 읽지조차 못하는데다가 척추병까지 겹쳐서 생애의 마감까지 10년동안 줄곧 병상에 누워있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때 나온 시들을 보면 종전에 볼수 없었던 전투적기백과 혁명적기상이 약동하고있다.

하이네가 창작한 시들은 반동들을 진물과 공포에 떨게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 히틀러가 맑스주의서적과 함께 하이네의 시선집을 모조리 회수하여 불태워버리라고 명령한 이 한가지 사실만 놓고보아도 적들이 그의 시를 얼마나 두려워했는가를 잘 알수 있다.

그 어떤 폭력으로써도 이룰수 없는것을 힘있는 시와 선동으로써 얻을 때도 있으니 이것은 곧 글의 위력을 보여준다.